



9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6)년 제9호

(루계 제 707 호)

차례

우리의 세계	3
현대문학의 진로와 작가의 사명	4
고향집은 어머니의 품	6
수령님과 조국 (외 1 편)	7
우리 이름	7
새벽입니다	8
로혹산의 새 전설	9
붉은 려명	11
소생하는 계절	12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20
목 수 건	20
금로수에 부치여	21
장군님의 추억	22
내 조국에 흐르는 빨찌산년륜	23
한없이 은혜로운 품속에서(1)	24
장군님 찍으시는 사진	26
오늘이여 너를 사랑하노라	27

장군님 바다는 넘려마십시오	27
창작의 나래를 펼쳐주시며	28
주체문학의 대강	29
단편소설의 매혹과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가	29
이 푸른 기슭에 오면 (외 1 편).....	34
갑문길을 걸으며	34
금곡천의 마지막사람.....	35
바다와 전사	47
아 내 고향 내 조국	47
영생하는 영웅의 그 모습을	48
6.15 기치아래 굳게 뭉치자	48
나는 전쟁로병이다	49
선군시대정신의 구현과 성격형상.....	53
물이 일하러 간다.....	57
벼꽃이 고와	57
그 마음을 누가 알랴.....	57
푸른꿈	58
어머니의 한생	67
경구, 격언	67
말없는 바다	68
조선속담	78
어머니는 눈물없이 맞아주었네	79
《사성기봉》	79

우리의 세계

박정애

가없이 넓고 푸른
내 나라의 맑은 하늘 바라보면
하늘 가득히 어러오는
수령님 모습

이 땅을 바라보아도
한껏 무르익어 끝없이 물결치는
날알향기 구수한 풍요한 대지에
력력히 어러오는 수령님자욱

이 마음 송엄히 불러보는 조국이어
고개숙인 이삭들 서로 다정히 설레는 소리
우리 불러 좋은 인민이라 하시던
수령님의 다정하신 그 음성 어러오는
이 땅 이 하늘은 수령님세계

백두의 혈전만리 헤쳐넘어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강을 건너
빈터우에 천년미래를 약속하며
꽃피는 사회주의 인민의 락원 세워주신
우리 수령님

한그루 나무 하나의 바위도
수령님 손길어려 기념비로 솟은 곳
바다의 진주를 캐고 하늘의 별을 따오시듯
온넛으로 인민사랑의 행복의 동산 꾸려주신
이 땅은

이 나라 집집에도 수령님 계시고
이 나라 천만사람들 심장우에 모신 수령님
그래서 스스로가 부르며 사는
김일성 조국
김일성 민족

우리의 해빛이고 우리의 운명이신
위대한분을 잃은 그날에는 오 그날에는
지구가 일순 무너져내린듯
우리의 세계를 잃은듯

가슴두드리며 피눈물 뿌리지 않았더나

쏟아져내리는 우리 눈물 닦아주시며
한사람 한사람 손잡아 일으켜주시며
또 한분 장군이 오시였다
우리의 세계를 찾아주시려
수령님 모습으로 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 빨찌산의 행군길 이어가시며
이름없는 너럭바위에서 때식을 이으셨더라
눈비젖은 야전복자락 마를 새 없이
초소와 마을, 공장과 농촌
끝없이 찾아가시고 또 가시였거니

그이는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초소를 찾으셔도
수령님 자욱어린 그 초소 먼저 찾으시고
공장을 찾으셔도
수령님 못잇던 공장이라고 추억하시며
수령님사랑 수령님력사를 빛내주시여라

조국이어 이런 세상 그 어디 또 있으랴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존엄높고 긍지높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세계
김일성 김정일 조국
김일성 김정일 민족

송엄히 우러르노라
위대한 대변영기를 맞이한 땅
가는 곳마다 사회주의선경 펼쳐쳐
날마다 전변의 모습으로 젊어지는 조국을

천년을 빛나라 만년을 빛나라
수령님 항일의 날 해방의 려명 맞으시듯
장군님 선군승리 밝은 려명 맞이하실
부강조선 새날의 조국이어
위대한 모습으로 세상에 찬란히 빛나라

현대문학의 진로와 작가의 사명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 발표 20돐을 맞으며-

문학은 인간생활의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간 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진보적인 문학은 인간생활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을 찬미하고 사회악과 불의를 고발하며 사람들에게 생활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아갈 길을 밝혀줌으로써 자유와 평화,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이바지한다.

수천년 흘러온 인류문예사에 기록되어있는 이름있는 작가들의 걸출한 작품은 사회의 귀중한 재보로서, 투쟁과 생활의 고무자로서 사람들에게 복무하며 그 감화력은 당대사회뿐아니라 먼 후세에까지 미치게 된다.

문학이 인간생활의 교과서로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가치를 가지려면 작가들에게 옳은 방향타가 있어야 한다.

작가들이 시대적사명에 대한 높은 자각과 인식, 정확한 문예로선을 지침으로 할 때 진실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특히 현시대와 같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도전에 부딪쳐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진보적인 작가들의 창작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는 문제는 매우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이 발표된 2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75(1986)년 9월 29일 평양국제문학토론회와 아. 아 작가협회 집행리사회 회의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은 현시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진보적인 작가들이 문학작품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문헌이다.

고전적로작에는 현대문학의 사명과 작가의 지위와 역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을데 대한 문제 등 자주적인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은 인간생활의 교과서로,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합니다. 문학의 사명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데 있습니다.》

문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작가들이 생활

이 있고 투쟁이 있는 생활에 발을 붙여야 하며 인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온갖 불의와 사회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옹호하는 지성인으로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시대의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옳게 판단하여야 하며 자주적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날날이 폭로하고 준렬히 규탄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자주적인 지향에 맞는 주체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로작에서 밝혀준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과 작가들의 임무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그 불패의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지난 20년간 비상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간 세계정치정세에서는 충격적인 사변들이 전례없이 일어났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지배와 략탈, 전횡이 더욱 포악하고 악랄하며 교활하게 감행된 시기였다. 특히 세기의 교체가 일어난 력사의 순간에 21세기가 정의와 평화의 세기로 되기를 념원하는 진보적인류의 지향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에 부딪쳐 세계는 침략과 략탈, 전쟁과 살륙의 회오리속에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더우기 미제의 《세계화》책동과 민족문화말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가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교묘하게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 현정세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는것이 민족문화발전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

고전적로작의 거대한 생활력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주체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통하여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인간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면서 조선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더욱 빛나게 발전하고있다.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자주적인 인간의 운명개척을 위한 생활의 철학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하여 예술적화폭을 창조하여야 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우리 문학이 오늘은 물론, 미래에도 영원히 형상의 원천으로 삼고 시종일관 옹호하고 복무하여야 할 항구적인 대상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관계이다.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이해할수 없고 그 본질을 밝혀낼수 없다. 문학이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관계를 화폭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문학이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하는데서 기본은 그 지향과 요구를 잘 그려내는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지향과 요구는 수령의 사상에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다. 사상의 유일성과 목적의 공통성, 행동과 의지의 통일성에 의하여 하나의 생명체를 이룬 사회정치적집단에서는 수령의 사상이 곧 당의 의지로 되며 인민의 신념으로 된다. 수령은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최고전형이다.

우리 문학은 자주시대의 주체의 인간학의 근본요구에 맞게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지상의 과업으로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생활의 철학으로서의 사상에술적감화력을 비상히 높여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총서 《불멸의 력사》와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을 창조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하고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총서형식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감수하게 하고 그 위대한 풍모를 크나큰 감동속에 따라배우게 하고있다.

우리 문학에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소설, 시, 아동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실현됨으로써 자주시대, 선군시대, 주체의 인간학의 본색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로작이 발표된 이후 20년동안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된 특징적인 성과는 수령형상서사시들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활발히 창작된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 우리 서사시문학은 중요정치사변들과 격동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형식이 새롭게 더욱 줄기차게 발전되었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념비적작품들이 전례없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 자랑찬 현실은 문학이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해야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할수 있다는 고전적로작이 제시한 사상리론의 생활력이 우리 문학에서 더욱 힘있게 파시되고있는 생동한 실례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격동적인 선군현실속에 깊

이 들어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훌륭한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에서는 시대의 선각자이고 지성인의 대표자들인 작가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인민대중의 지향이 체현되어있는 생활속에 몸을 잠그고 시대를 전진시켜나가는 인민대중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시여 시대와 작가, 현실과 문학과와의 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시였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문예사상이 밝혀준 길을 따라 창작의 비옥한 토양이며 모체인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종자를 탐구하고 꽃피우는것을 창작의 어길수 없는 법칙으로 삼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에는 보람찬 우리의 현실속에서 제기되고있는 절실한 문제들이 반영되고있으며 여기에서 배출되는 선군시대의 전형들이 주인공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사회적전형들이 예술적전형으로 재창조되어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문학이 비전향장기수를 원형으로 하는 60여편의 장편소설을 창작한것은 매우 특기할 문학사적사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 숭고한 뜻에 의하여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가 한꺼번에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이 전무후무한 일이며 또한 그들이 30~40년이라는 최대의 장기수들이고 이들을 각기 원형으로 하여 장편소설을 창작한것도 일찌기 문예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통이 큰 구상과 배짱, 숭고한 인간애에 의하여 사상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의 형상을 창조한것은 유구한 민족문학사는 물론 장구한 인류문예사에도 전례없는것이다.

우리는 고전적로작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이 밝혀준 진보적문학의 진로가 얼마나 불패의 진리성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세대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할데 대하여 제시한 사상의 정당성이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있는데서 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새세대들을 어떻게 교양육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개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운명적인 문제이며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근본문제이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면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을 소홀히 한 나라들에서 나라의 전도가 암담해지고 민족의 장래에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고있다는것을 직감할수 있다. 더우기 새것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빠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문학예술작품이 매우 강한 영향을 주고있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새세대교양에 이바지하는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보시고 혁명의 3세, 4세 교양을 내용으로 한 작품에 대하여 당의 의도에 맞게 정책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제기한 문제를 해명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우리 문학예술은 청소년 교양문제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이들을 위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있다.

고전적로작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의 진리성과 정당성은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실데 대한 사상이 특별히 강조된것이다. 사상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의 해외침략을 위한 주되는 수법의 하나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해외침략에서 의연히 군사적힘에 매달리는 한편 이른바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여기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 큰 작용을 하고있는 문학예술을 그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삼고있다. 문학예술은 지성뿐아니라 감성에도 적극 작용하기때문에 사람들의 사상문화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계관형성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문학예술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오늘의 세계정세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문학예술의 이러한 특성을 리용하여 자기의 침략적본성을 가리우고 사람들속에서 저들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민족문화발전을 억제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을 막지 못하면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억제당하고 나중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20세기는 쓰라린 교훈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오늘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썩어빠진 반동적문학예술과 자본주의적생활양식을 부식시켜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어 제놈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더욱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아내지 않을 때에는 민족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나라의 자주권도 유린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전적로작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는것이 민족문화건설에서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세계 진보적인 작가들에게 참다운 민족문학창작의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등대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에서는 창작에서 그 어떤 이색적인요소도 배겨내지 못하고있으며 주체사실주의 기치밑에 참다운 사회주의적민족문학이 꽃피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책동을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민족문학의 혁명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가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20돐을 맞이하는 때에 우리 작가들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힘있게 전진하여온 지난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주체적문제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나아가고있는 우리 문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창작실천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생활의 철학으로서의 주체의 인간학의 위력을 더욱 파시하여야 할것이다.

최길상

가사

고향집은 어머님의 품

량원의

정일봉 고향집 들어설 때면
문앞에서 어머니 반겨맞는듯
그 품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고향집은 어머님의 품입니다

빨찌산 군복차림 소매를 걷고
답사배낭 다시 살피며 뒤희주는가
눈앞에 그 모습 어리여오는

고향집은 어머님의 품입니다

장군님 따라서 우리 가는 길
따뜻한 미소로 축복하는가
그리운 그 영상 안기여오는
고향집은 어머님의 품입니다
아 김정숙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 사랑 영원한 고향집이어

수령님과 조국 (외 1 편)

장명길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에
조국은 언제나 인민의 것이었다
찾으실 때도
세우실 때도
지키고 빛내가실 때도

기어이 찾아야 했던 조국은
인민이 주인될 나라였기에
우리 수령님은 선군의 길 걸어오셨나니
그 길 생사를 기약할수 없고
천만고생이 앞에 있어도
그 길만이 착취와 억압을 뿌리빼고
인민이 머리 들고 사는 길이었기에

그 뜻을 꽃피우는 혁명이어서
고생도 달게 여기셨던가
항일전의 그 나날
굶으면서도 지나간 인민의 발이랑...
인민의 발밑에 불티가 날세라
원췌의 총구를 맞받아간 백병전...

세워야 할 국가도
다름아닌 인민의 것이기에
삼천만의 총의우에 세우시였다
외세로 갈라진 남녘의 동포들
그 의사까지 다 담으시며

그렇게 찾으신 조국
그렇게 창건된 공화국이어서
한평생 인민을 그리도 사랑하셨던가
그때문에 침략자에게 더 무자비하셨고
티끌만 한 인민의 손해도 용서를 모르시고
세상만복 다 가져다주셨던가

사랑으로 이어진 조국령도의 갈피마다
전설같은 이야기도 많아라
어느 농가집마당에서 주인이 깨여날 때까지
기다리신 이야기
일군들이 인민에게 사죄한 이야기
산모위해 비행기를 띄우신 이야기

하나하나의 정책과 시책들이
우리 수령님 인민과 무릎을 마주하신
토방과 탈곡장 기대앞에서 태여났거니
그 길이었라
바라던 행복을 빨리도 안아온
위대한 내 조국이 걸어온 길

그 은혜로운 세월속에
산원의 보석우에서 시작된 나의 생
막히고 에돌은적 없이
희망하는 앞날이 기다린듯 열리던
즐거운 내 삶의 시절들이 있거니

정녕 인민을 위해
우리 수령님
피바다속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의령도로 우뚝 세운 내 조국은
인민이 마음껏 제 모습을 가꾼 보금자리
그 품에 아름다운 한떨기로 피어난
내 삶의 노래 달리 부를수 없어

나는 부르노라
경사로운 9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그것이 그대로 조국찬가이고
그대로 조국에 대한 사랑인
불러도 불러도 다함이 없는
아 아버지수령님 노래를...

우리 이름

수난의 세월
천대와 멸시속에 버림받던 이름이었다
공화국을 세우던 가슴벅찬 나날에
선거장에서 불리워지던 그 이름들은...

략탈의 명부에만 올라
물 건너온 섬나라족속들에게

밝히우고 뜯기우던 억울한 운명들
모진 세월 백성의 이름은
수탈의 대명사였다

살점뜬 채찍아래 덩굴며
육신의 피기름까지 짜바쳐야 했고
망국노의 호적에 올랐던 그 이름

나중엔
반만년을 물려받은 조상의 성까지 빼앗겨야
했거니

조국이어도
인민의 문패가 걸리지 않은 땅
침략의 발굽아래 더럽혀진 땅에서
버림받던 운명들을
우리 수령님
나라의 주인명부에 올려주시었다

아 피어린 해방의 열매가
모두 자기들에게 안겨진 세상에서
우리 수령님 써주신 머슴군의 이름이
지주집 대문가에
주인의 문패로 못박아질 때

비로소 창공높이 머리를 추켜들며
인민은 제 이름을 큰소리로 들어보았다
억만가닥 해살이 쓰다듬고쓰다듬는
꿈만같이 높이 걸린 자기들의 이름을

멀시의 눈초리 영영 사라지고
어딜 보나 자기들의 대문이 열린 이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만년력사가 주지 못했던 그 이름을
우리 수령님
주인의 문패로 걸어주셨나니

미제와의 전쟁에서
영웅의 고지마다 위훈떨친 이름
페허우에서 천리마의 고삐쥐고
조국을 오늘에로 떠밀고 온 이름
우리 세대앞에 빛나는 전통을 넘겨준
그 기적의 시대의 주인들

다름아닌 그 이름들이다
우리 수령님
해방과 더불어 제 이름 찾아주시고
한평생과 더불어 그 이름 빛내주신
김일성조선의 공민들이다!

새벽입니다

변정욱

새벽입니다
부엌에선 안해가 밥을 짓고
나는
잠든 아기의 고운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
아기의 저 얼굴에 비껴있는것입니까
젖내 풍기는 아기의 부드러운 살결에
나의 큰 불을 비벼보면
정겨움과 따뜻함이 이 가슴에 차넘칩니다

잠을 자도 봄꽃 피는 꿈길을 가고
눈을 뜨면 달디단 어머니의 젖을 빨며
무럭무럭 자라는 행복동이
이제 크머는 또 얼마나 좋은 날들이
저 애에게 마중올것입니까

문득 사무쳐옵니다

텔레비죤화면을 메우던 모습
피어린 살륙과 분쟁으로 동란에 찬 먼 나라
포화속에 몸부림치는
어린 아기들의 눈물겨운 모습이
내 가슴을 허비며 눈앞에 다가섭니다

아 나의 귀여운 잠든 아기
사랑의 요람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
한시도 떠나서는 못살 품임을
내 더더욱 절감하는 새벽

아 아, 나의 집 창가에
크나큰 이 행복을 주시려
오늘도 머나먼 천리전선길에 계실
그리운 우리 장군님 생각에
내 가슴 뜨거움에 젖어오는 새벽입니다

로혹산의 새 전설

무변광대한 북만주의 첫 입구에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앉은 거대하고 음산하게 생긴 로혹산은 자못 전설이 많은 산으로 알려져있다.

로혹산이란 이름자체가 늙고 검다고 하여 붙여진것이라 한다.

산이 늙고 검어진 리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원래의 산은 퍼그나 아름다왔다 한다.

그래서 무지개가 비끼는 날이면 하늘의 선녀들이 이곳에 내려와 놀곤 했다. 사방 백리근처에 안개가 자오록이 끼면 사람들은 누구도 폭포가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았다.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기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이곳에 살고있던 한 늙은 도사가 불측한 마음을 가지고 선녀들이 있는 곳으로 발뽕발뽕 다가가다.

그는 인차 도술을 부려 승냥이로 변장하였다.

그런데 하늘의 옥황상제가 이 모든것을 내려다 보고 대노하여 늙은 도사에게 벼락을 내리게 했다.

하늘땅이 흔들리는 요란한 천동소리가 파르릉 거리고 시뻘건 불채찍이 평곳평곳거렸다. 그러자 승냥이로 변한 늙은 도사도 그리고 것처럼 아름답던 산도 일시에 꺼렇게 죽어버렸다.

이후로는 이 죽음의 산에는 나무도 풀도 자라지 못했고 새들도 깃을 들이지 못했다. 이 불모의 산에 의외로성한것은 승냥이무리들이었다.

처음은 어느곳에서 한두마리의 승냥이가 나타났는가싶더니 차츰 무리를 짓고 대낮에도 와술령거렸다. 골마다 승냥이무리들이 짹 차있어 그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제 집앞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후 민가가 늘고 골안으로 소로길이 뚫아지면서 승냥이무리는 깊은 골안으로 들어가버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여전했다.

그러던것이 어느 하루에 승냥이무리들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는 일이 생겨났다.

승냥이무리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 자동차가 들어온 이후 그에 놀라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먹이를 찾아 어디론가 무리지어 옮겨가더라는 말도 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이 지방에 가장 신빙성을 가지고 널리 퍼져있는것은 백두산대장수님과 관련된 전설이다.

로혹산에 백두산대장수님이 나타난것은 이 산에 등지를 틀고앉아 갓은 악행을 일삼고있는 《홍수틀》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홍수틀》이란 괴뢰만주국의 악질정안군놈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놈들의 팔에 붉은 완장을 붙이고있어 그렇게 불렸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지 《<홍수틀>이 온다》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딱 그치는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승냥이의 피해를 받으며 사는게 낫지 승냥이보다도 열배나 더 악착한 《홍수틀》놈들의 밑에서는 살지 못하겠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 《홍수틀》의 우두머리는 조폭하고 잔인하기가 이룰데 없는 왜놈사무라이었다.

그놈은 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것을 도락으로 삼는 악한이었다.

그놈의 옆구리에 차고있는 큰 칼은 늘 피에 젖어있었다.

하여 이즈음에 와서 《로혹산의 승냥이》라 하면 《홍수틀》을 가리키고 왜놈지도관놈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여지고말았다.

왜놈지도관은 난쟁이에 세모눈이 길게 찢긴 그야말로 흡사 한마리의 승냥이를 련상케 했다.

그놈은 단 하루도 사람의 피를 보지 않고서는 살지 못했다.

사실 그놈이 《홍수틀》을 로혹산으로 끌고온것은 이 산에 사람을 잡아먹는 승냥이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라고 한다. 그런데 승냥이를 없앤다고 하는 놈들이 승냥이로 된것이다.

놈은 이곳에 온 첫날에 큼직한 승냥이를 산채로 잡아놓고 졸병들에게 눈요기를 시켰다.

《저 승냥이의 살기된 눈빛과 금시라도 덤벼들듯 한 사나운 이발을 똑똑히 보라!

승냥이는 하루도 피를 보지 못하고서는 살지 못하는것이다. <천황폐하>의 군대인 우리도 저절 따라 배워야 한다. 승냥이의 잔인성, 포악성, 이것은 곧 너희들의 첫째가는 기질로 되여야 한다.

가차없이 죽이라! 불사르라! 조선사람은 다 죽여도 좋다.》

다음날부터 《홍수틀》놈들은 승냥이는 잡지 못하고 사람잡이에 미쳐날뛰었다.

한 소년이 산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것을 붙잡아 유격대에 연락을 다닌다고 차고 때리다 칼을 뽑아 목을 쳐 처참하게 죽었다.

하루는 사도하자라는 마을에 《통비》분자가 있다고 달려들어 집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아이어른 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쏘고 찌르고 불태워죽이는 귀족같은 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그리고는 화광이 충천하는 그앞에서 술을 치마시고 춤까지 추어댔다.

왜놈지도관은 이날 피가 똑똑 떨어지는 긴 칼을 자랑삼아 어깨우에 추켜들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으며 춤판에 뛰어들었다.

《천하에 악독하기 그지없는 짐승들아!》
《아 구천에 사무친 이 원한을 어떻게 하면 풀
단 말인가!》

하루아침에 집있고 부모있고 처자를 빼앗긴 사
람들의 권한에 사무친 곡성은 런 사흘 산골짜기
를 울리었다.

하나 아무리 통곡을 해도 그 원한 풀길 없고
맨주먹으로는 포악한 무리들을 당할수 없는 그들
이라 서러움은 하늘에 닿았다.

이때 마을을 지나가던 한 로인이 이 광경을 지
켜보다가 그들의 모습이 하도 가슴에 맺혀 쉬이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이 로흑산이 재변을 당한 때로부터 얼마나 많
은 횡액을 불러오느고 인피쓴 승냥이를 잡아야
그 화를 면하련만...》

마을의 참변을 두고 먼 태고적일을 돌이키는
로인이 범상해보이지 않아 울고있던 사람들이 그
의 팔을 붙잡고 《보아하니 필시 뒤말을 다 하지
않으신가본대 속시원히 펼쳐보이소.》 하였다.

그러자 로인은 불쌍한 그들을 한참이나 지켜보
다가 못내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백두산에 대장수가 내렸소. 그 대장수님은 가
난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제일선참 풀어주시는
분이시오. 어서 사람을 백두산으로 띄우시오.》

다음날 마을에서 그중 날파람있다는 두 청년이
신들메를 든느히 하고 백두산을 향해 떠났다. 그
런데 동구밖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웬 사람들이
그들을 멈춰세웠다.

등에 배낭을 진 세사람은 청년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물었다. 보매 《홍수틀》은 아니고
그렇다고 보통이상의 사람들같지도 않아 그저 심
드령하니 《로흑산의 승냥이성화에 못건디여 《사
냥군》을 찾아가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세사람은 그런 일이라면 사냥군들을 멀
리에서 찾을게 있느냐며 빙그레 웃는것이였다.

그제서야 로흑산의 두 청년은 이분들이 옷차림
은 수수해도 보통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펼쳐
들었다.

아닌게아니라 그들 세사람은 마을청년들에게
자기들은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들인데 로흑산에
동지를 틀고있는 승냥이들을 모조리 때려잡으라
는 그분의 령을 받고 오는 길이라고 말하는것이
였다.

《미련한 저희들이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며 마을청년들은 마을이
당한 참변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 그리고 《홍
수틀》은 수백명이나 되고 보통 악질놈들이 아니
라고 덧붙였다.

세 장수들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고 틀어
쥔 두주먹은 떨고있었다.

《당신들은 잠간 저 앞산 중턱에 올라가있으시
오.》

세장수는 그길로 《홍수틀》놈들이 있는 병영으
로 다가갔다. 보초막에 이르러서는 왜놈지도관을
당장 불러오라고 소리치는것이였다.

보초놈은 영문을 몰라 두릿두릿거리다가 그들

의 위세에 놀려 왜놈지도관에게 급히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래 유격대복장을 했는가?》

《저... 옷차림은 분명 산림대같은데...》

《요시, 산림대!》

지도관놈은 유격대가 아니라는 말에 안도의 숨
을 내쉬었다.

《산림대》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요정을 널 자
신이 있었다.

《홍수틀》놈들은 박격포와 중기관총까지 끌어내
며 《산림대》를 뒤쫓았다.

《빨리빨리 추격!》

왜놈지도관은 직접 말을 타고 선두에서 달렸다.
그뒤로 《홍수틀》놈들이 까마귀무리들처럼 새가
탕게 쫓아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산림대》로 가장한 장수들은
조급해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놈들을 달고 자
꾸만 골짜기쪽으로 들어갔다.

놈들은 눈앞에 뵈히 보이는 《산림대》를 잡으
려고 기를 쓰고 따라갔다. 하지만 아무리 쫓아가
도 그들과의거리는 더 좁혀지지 않았다.

놈들은 여전히 상대를 얕잡고 기세등등하여 헛
충질을 해댔다.

그때였다.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짙 파다당-
하는 천둥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세 장
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문득 골짜기에 큰
산만한 절벽이 일어섰다.

왜놈지도관은 너무도 갑작스레 당한 일이어서
한동안 멀뚱해있다가 곧 정신을 차려 부대를 되
둘러세웠다. 그러나 방금 놈들이 지나온 그 길에
도 큰 산이 턱 막혀있었다.

순간 그놈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이쿠, 신출귀몰하는 유격대의 축지법에 걸렸
구나! ...

사면팔방 그 어디에도 빠질 길이 없었다.

《홍수틀》놈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저저마다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
다.

이때 머리우에서 찌렁찌렁한 호령소리가 벼락
치듯 들려왔다.

《이놈들!》

그 소리에 놀라 하늘을 쳐다보니 앞산마루에
백두산대장수님께서 큰 칼을 짚고 서서 불길
이 황황이는 눈길로 놈들을 쏘아보고계셨다.

《죄없는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무사할줄
알았느냐? 이 인간백정놈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노하여 발을 쿵 하고 구르
자 산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그통에 돌소나기
가 쏟아지며 집채같은 바위돌들이 놈들의 대갈통
을 박살냈다.

까마귀떼마냥 골안에 차있던 《홍수틀》놈들은 불

붉은 러명

류동호

동이 튼다
이 땅우에 붉은 러명이 비졌다
40여년전 그날 당중앙의 첫새벽 창가에서
우리 장군님 아침노을속에 그려보신
그 위대한 승리의 아침이
우리앞에 찬란히 밝아온다

나는 지금 보고있다
조선을 책임진 우리의 백두령장
준엄한 세월의 폭풍을 붉은기로 헤쳐
험난한 력사의 준령을 선군으로 넘어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안아올린
강성대국의 붉은 러명을 보고있다

우리 장군님 따라 눈보라만리를
함께 헤쳐온 사람들만이
떳떳하게 긍지높이 안아볼수 있는 저 러명
천만시련 헤쳐온 신념의 강자들이 아니라면
이 세상 그 누가
저 러명에 비낀 만단사연 다 알수 있으랴

최전선길의 모닥불가에서
눈얼음 덮인 고지의 전호에서
췌기밥과 쪽잠마저 그림던 야전차안에서
장군님 심중에 비졌던 저 러명
색날은 그 야전복의 온기가 스미여
우리 마음에 이리도 뜨거운 저 러명

장장 수십성상
우리 당을 이끄시며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위해 불태우신
위대한 심장의 열과 빛으로

좋은 날 좋은 세월을 안아오는 러명이여
붉고 아름답고 장쾌한 저 러명은
우리 집의 창가에 행복을 더해주고
우리 아이들의 고운 웃음 더 활짝 피워주리라
사회주의 내 나라 우리 공화국에
세상에 부럼없는 천만복을 꽃피우리라

우리 수령님 백두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러명을 불러온것처럼
우리 장군님 필승의 그 신념으로
력사의 역풍을 휘몰아내고
이 땅우에 선군혁명승리의 러명을 불러오셨거니

그 어떤 핵무기도 전쟁의 불구름도
밝아온 아침은 어찌지 못한다
오고야만 봄을 되돌리지 못한다
이것은 력사가 검증한 혁명의 법칙
이것은 총대로 아로새긴 선군의 진리

자 마중가자 사람들이여
시련을 이겨온 《고난의 행군》의 나날은
승리자의 추억으로 남기고
장군님 따라 용기백배 기세도 드높이
우리의 새 아침을 마중가자
우리의 새봄을 마중가자

영광 영광을 드리자
승리의 러명을 안아온 태양
김정일장군님께 영광을 드리자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 영광을 드리자
아 백두의 태양이 빛나는 내 조국의 하늘에
강성대국 최후승리의 붉은 러명이 비졌다

벼락에 돌벼락을 들쓰고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왜놈지도관도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사도하자마을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뽕앗던 큰 칼을 높이 들어 소리높이 웨치시였다.

《앞으로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놈이 있다면 가차없이 요정내리라!》

그 불호령소리는 온 골안을 드렁드렁 울리며 이산저산으로 끝없이 메아리쳤다.

그후 로혹산에는 어찌된 일인지 승냥이무리들이 깨끗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처음 며칠동안은 승냥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것을 이상하고 신기하게 생각했

다.

그러나 한달 두달이 지나도 승냥이는 그림자도 볼수 없었다.

《홍수톨》놈들을 처부신 이후 그렇게도 많고많은 승냥이무리들이 감쪽같이 사라진것을 두고 사람들속에서는 이런 말이 돌아갔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놈이면 어떤 놈이든 용서치 않겠다고 호령하셨으니 승냥이들도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다 사라져버렸다오.》

《아무렴, 그게 어느분의 호령이라고!》

그때로부터 로혹산에는 승냥이무리가 쫓겨간 새 전설이 생겼다고 한다.



조생하는 제절에

한을 품고있는 너인의 몸에서는 오뉴월에도 서리발만 내뿜는다고 누가 말했는가?

강량옥은 안신호라는 너인한테 김구에 대한 저주와 분노가 그렇게까지 끝수없이 사무쳐있는줄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지금은 바야흐로 봄빛이 짙어가는 꽃계절이다.

해방산의 높낮은 기복들과 음달진 기슭까지 온통 꽃구름으로 울긋불긋 뒤덮였는데 저기 보통강 너머 사래긴밭에서는 농사군들의 구성진 노래소리가 혼혼한 봄바람을 타고 들려온다.

하지만 강량옥은 오한이라도 만난듯 몸을 웅숭그리며 힘겨롭게 걸음을 내짚었다. 언제 어디에서 꺾어들었었는지 배꽃 한송이가 그의 손끝에서 위태로이 파들거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머리를 기웃하시고 강량옥의 편안치 않은 거동에 사려깊은 눈길을 주시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폭압속에서도 애국으로 일관된 교회활동으로 지조를 굽혀본적이 없고 북조선 립시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사임하는 오늘은 사람들의 신망에 떠받들린 그가 만나뵙자마자 난처해진 자기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김구의 상면요청을 전달하러 안신호에게 홀가분히 떠났던 발걸음이 저렇듯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질수가 있을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가 안고있는 무거운 마음속의 짐을 자신계로 옮기고싶어 레의 그 시름겨운 걸음에 발을 맞추시였다.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마침내 강량옥은 긴 숨을 뿜아올리고나서 전후사연을 말슴드렸다.

평양에 발을 들여놓기가 바쁘게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감복해마지않은 김구였었다. 그런데도 북을 대하는 그의 안중에 척 보면삼천리란 의미가 잘 먹어들리지 않았다.

동그런 검은테안경속에서 검벽이는 두눈은 노

상 젊은 시절의 안신호만을 그려보고있었다. 이를테면 안신호를 통하여 북조선의 정치체제를 그 밑바닥까지 살펴보고 접어들어야겠다는것이 《고집불통》령감의 속궁리였다.

안신호는 과거 민족주의원로이며 상해림시정부의 초대국무총리였던 도산 안창호의 누이동생이다.

김구는 한때 자기와 련장관계에 있던 그 너인이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있는지 궁금했거니와 더우기는 그의 사회생활처지와 말을 통하여 북조선의 정책실패를 낱알이 파악하고싶었다.

그래서 이 로회한 민족주의 우익거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선정해 보내주신 비서와 부판에게 안신호를 꼭 만나보았으면 하는 의향을 내비치였고 남측대표들의 안내사업을 책임진 강량옥이 그 일을 말아나서게 되었던것이다.

강량옥은 이전에 같은 교구안의 신자였으며 해방후부터는 정계와 사회계의 녀성일군으로 활약하는 안신호와 상종이 잦았으므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너인을 찾아갔었다.

헌데 예상치도 않던 반응에 부닥칠줄이야.

《목사님, 이자 뭐했습니까? 꿈에두 나타나지 말기를 빌고빌던 그 두상태길 날더러 만나보라구요? 아유- 하나님말시사...》

안신호는 평소의 온화스럽던 너인이 맞는가싶게 푸르딩딩해지더니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반쯤 돌아앉았다. 그 서슬에 발길질을 맞은 뜨개감그릇이 애매하게 뒤번져지고 실꾸리가 방구석쪽으로 데굴데굴 굴었다.

(?...)

눈이 덩돌해졌던 강량옥은 방석우에서 앉은방아를 쥘으며 미간살에 주름고랑을 깊숙이 찼다. 누구보다 반가이 응해나설줄 알았던 너인에게서 대사집의 큰상을 메여치는것 같은 소리가 났던것이다.

그는 안신호가 뜨개감그릇을 바로 잡아놓고 실꾸리

의 풀려난 실을 다 감을 때까지 입을 벌린채 눈만 깜빡거렸다. 이윽해서야 자신을 수습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다,

《부위원장장동무, 우리 새 조선의 일군으로서 깊이 생각합시다. 이번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게 되는 김구를 우리들이 과거를 불문하구 뜨거운 동포애로 대해주어야...》

별안간 강량옥의 실력있는 목소리가 본론에 이르기 전에 툭 잘리웠다. 언제 보아도 순한 양같이 부드러웠던 녀인의 눈빛에서 퍼런 불길이 비수마냥 날았던것이다.

《아니 목사님, 우리 일군이기에 전에 교인으로서 말쑥 합시다. 그래 이러한 경우에도 원쑤가 오른 뺨을 치면 왼뺨을 내대라는 교리가 통합니까?》

《...》

《목사님은 그놈한테서 당한 가정참화를 벌써 잊었는가요?》

강량옥은 흠칠 웃음을 떨며 부지불식간에 어금이를 꽉 깨물었다.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자리가 모진 동통을 일으키었다.

한생을 반공일변도로 줄달음쳐온 김구는 해방된 이듬해 초봄 테로단을 보내여 북조선의 열성간부들을 사살하도록 지시한적이 있었다. 그 테로단에 의해 강량옥의 귀한 아들딸이 하루저녁에 생죽음을 당했고 안신호와 친동기간처럼 자별하던 김목사도 그날 손님으로 와있다 치명상을 입고 숨졌었다.

김구자신도 이번 길에서 측근들한테 《이제 평양으로 가면 강량옥을 무슨 낱으로 대하며 무슨 말을 해야겠는가? 만일 그 사람이 지난날에 대하여 책을 잡는다면 할 말이 없지 않는가.》하고 안절부절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자기를 마중나온 북측간부가 강량옥이었으니 그때 김구의 전전궁궁함은 어떠했겠는가.

사실 김구가 온다는것을 알게 된 강량옥은 증오와 원한으로 하여 불쑥불쑥 치미는 복수심에 치를 떨었었다.

이러한 그를 조용히 만나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김구가 선생의 귀한 아들딸을 테로한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 조국통일이라는 큰 경륜을 생각하자, 선생이 대범하게 그를 마중하여준다면 그도 북조선정치인들의 품성과 야량 그리고 너그러운 포용력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죄많은 어제날을 깊이 뉘우칠것이다, 그러니 선생이 김구를 맞이들이는 사업을 책임져주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이르지였던것이다.

강량옥과 첫 인사를 나눌 때 김구의 행동거지는 하나하나가 부자연스러웠다. 얼굴에 죄의식은 확연했으나 《지나간 일을 용서하십시오.》하고 위마디로 사과한후부터는 통 아무말도 없었다.

《그런 철면피한과 내가 얼굴을 마주한다면 인류에 대한 모독이구 정의에 대한 우롱이 아니구 됩니까...》

안신호는 어찌나 격했는지 아래입술을 부르르 떨었고 눈곱에는 묵새길수 없는 분노가 눈물방울로 가랑가랑 맺히었다.

《허허... 우리 피차에 자중합시다.》

강량옥은 애써 호방스런 웃음소리를 터치며 다 음말을 이었다.

《그는 이번에 우리 장군님을 만나뵈옵구 조국통일문제를 의논하러 힘든 걸음을 했나봅니다.》

순간 안신호의 두눈은 화등잔만큼 커지더니 동공이 떡 굳어져버렸다.

《뭘... 뭘라구요? 우리 장군님과 통일문제를 의논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아유- 하나님맙시사. ... 개꼬리는 석삼년토록 주물려두 황모로 될수 없답니다.》

녀인은 채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의논상대가 따로있지 김구는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둔지 오랜 작자입니다. 속통에 칼을 품고다니며 비위에 맞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가려지 않는 그로 하여 장군님신상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합니까?》

급기야 안신호는 사색이 되어버렸다.

(아하! 이것 참 랑패로군...)

떡심이 풀린 강량옥은 허둥지둥하며 길차비를 서두르는 녀인을 망연해서 쳐다보았다. 여울목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든 격이 되었던것이다.

김구에 대한 안신호의 원한은 한갓 도섭에 불과한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를 거듭하면서 쌓이고쌓인 원망과 저주, 웅이처럼 가슴에 들이박힌 분노와 규탄의 응결체였던것이다.

한때는 조선독립이라는 청운의 뜻을 나누며 더운 피를 함께 끓이던 열혈남녀들이 아니었던가?...

김정숙동지께서는 꽃향기가 그윽한 포석길이 별스레 울퉁불퉁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시었다.

눈앞의 복숭아꽃무지속에서 꿀벌 한마리가 뒤걸음으로 엉기적엉기적 기여나왔다. 꽃가루투성이 된 그놈은 잠시 망설이는듯 움지락거리더니 가까스로 몸을 솟구치고는 날개를 기우뚱이며 날아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생각깊은 눈길을 강량옥에게로 돌리시었다.

《지금 안부위원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녀명청사의 자기 사무실에 있을겁니다. 오자바람으루 장군님을 만나뵈겠대구 야단하는걸 겨우 녹장혀놓았습니다. 하도 분망하신 그이를 어느 여가에 무슨 수로 만나뵈는단 말입니까?》

강량옥은 어림도 없다는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입을 다시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에게 밝게 웃어보이시었다.

《제가 안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동견 하늘가에서 목화송이같은 구름들이 몽게 몽게 피어지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봉우리를 이루며 솟아오른다. 그 구름봉우리 한쪽 가늠에서는 정오를 훨씬 넘어서 태양빛을 받아들이며 눈부신 반사광을 내뿜고있었다.

김정숙동지를 따라 저택안에 들어선 안신호는 김구로 인한 기분상태가 어떻든지간에 늦은 점심을 맛스럽게 들었다. 회의나 념영일로 성안에 들어오면 다정다감하신 녀사님의 손에 이끌리어 장군님저택을 찾았고 오손도손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때가 드문하였다. 그럴적마다 녀사님의 음식솜씨를 두고 안신호의 감탄은 이만저만 아니다. 별로 색다른 음식물도 아니고 그저 수수한 잡곡밥에 토장국이였지만 하도 별맛이어서 내우할새 없이 그릇밑을 비우곤 했다.

음식맛은 그것을 조리하는 녀인의 손맛이라고 한다지만 김정숙동지와 오랜 나날을 함께 싸워온 녀투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김정숙동지의 정성이 하도 지극하기때문에 음식들마다 감칠맛을 돋군다는것이였다.

식사후 잠간 정원바람을 쏘이고난 안신호가 전실에 들어서니 어느새 설것이를 끝내신 김정숙동지께서 시루안의 룡두나물을 뽑아 큰 양푼에 담고계셨다.

안신호는 오금을 접고 마주앉았다. 나물을 손질하는 그의 입에서 저도모르게 탄성이 터지였다.

《아이구나! 참 먹음직스럽기두 하네...》

알맞춤히 자란 룡두나물은 하나같이 통통 살찐 것들인데 그 생신하고 정결함이란 이루 말할수 없다.

《좋을려면 김구선생네가 평양에서 하는 첫끼식사부터 들었어야 하는건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저으기 아쉬우하며 말씀을 이으신다.

《저녁상부턴 빠짐없이 들도록 해야겠어요.》

《?...》

《김구선생이 룡두나물무침을 그렇게도 좋아한다누만요.》

《...》

처음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던 안신호의 얼굴이 언뜻 석고상처럼 굳어졌다. 다듬어진 나물쪼는 절로 손에서 푸슬푸슬 헤뜨러진다.

(어떻게 그 두상의 식성까지 다 알고계실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안신호의 이상한 거동에는 개의치 않고 조용조용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머칠전 장군님께서 김구선생네 《한국독립당》 일행의 평양방문일정이 확정되였다시며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을 단호히 뿌리치고 오는 결음인것만큼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혈육적인 관심을 돌려 성의를 다해주어야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평양결음을 먼저 한 연락원에게서 김구의 식성도 알게 되었다는 뒤말씀을 듣고서야 안신호

는 가슴이 몽클해지며 긴 숨을 내쉬였다.

그는 일손을 다시 잡았으나 마음의 안정감은 잃어버렸다.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말씀은 호수가에 일으킨 파문처럼 진폭을 점점 넓히면서 추억의 아득한 기슭을 두드린다.

불현듯 처녀시절에 있는 석양녘의 일이 눈앞에 밝혀왔다. 귀에 쟁쟁한 오르간의 은은한 선율소리...

새야새야 파랑새야 룡두발에 앉지 말아

룡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

건반을 누르면서 풍부한 중음으로 노래부르는 안신호, 그한테서 조금 거리를 두고 원탁에 마주 앉은 두사나이, 방안에는 음악이외의 다른 세계가 또 있을상싶지 않았다.

이윽고 오르간의 선율은 잦아들고 처녀는 건반 위에서 손놀림을 멈췄다.

이번엔 어떤 노래를 요청하는가고 원탁쪽에 묻는 눈길을 건네이던 처녀는 화뜰 놀라며 몸을 일으키였다. 음악세계에 흠뻑 취한듯싶던 초면객의 꼭 감은 눈귀로는 굵은 물방울이 새어나 불편아래로 흐르고있었다.

(?!...)

처녀는 어마지두 두손을 모아잡고 가쁜 숨소리를 내었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 사나이와 마주앉아있는 오빠에게 손짓 눈짓을 했다.

신호를 알아차린 오빠는 사나이를 던지시 건너 보다가 입술에 손가락을 세워대였다. 동시에 눈을 끔벅해보이였다. 우락부락한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이 헤픈 (안신호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 초면객이 바로 김구였던것이다.

사나이가 잠간 자리를 뜬 사이 오빠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찌기 《광제창생》, 《보국안민》 등 동학리념에 동조하여 전봉준이 이끈 갑오농민전쟁에 뛰여든 김구는 18살때 벌써 농민군 수백여명을 거느린 두령의 한사람으로 싸웠었다. 그러나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과 야합한 일본침략자들에 의해 농민전쟁이 실패로 막을 내리고 전봉준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구는 구사일생으로 몸을 피하여 이곳저곳 숨어다니다 명성황후살해사건까지 접하였다. 그러자 왜놈이라든 백리라도 따라가 쳐죽이겠노라 으벼르렀고 행동에 옮기였다. 이후에는 체포, 탈옥, 절간의 승려생활...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온 강토가 울분속에 몸부림치던 어느날 그는 누군가 룡두장군인 전봉준을 생각하며 지었다는 례의 그 노래를 통곡처럼 부르며 정치없이 길을 떠났다.

《아마 그때부터 저 사람에게겐 그 노래를 부르거나 들으면 눈물주머니가 터지는 버릇이 생겨난것 같다. 제발로는 병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만...》

오빠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여다보고나서 동생

에게 일렀다.

《저녁상에 록두나물무침을 잊지 말구 준비하여라. 김군은 그 식찬을 무척 좋아하니라.》

《?...》

오빠가 밖에 나갔던 사나이를 불러들이어 건넌 방에 함께 간 후에도 처녀는 한손으로 턱을 고이고 몸을 궁싹거리었다.

(무슨 사나이가 저럴까? 파랑새를 부르는 노래 소리엔 눈물참봉이 되구 록두장군의 혼이 붙었다는 나물은 뻥하구... 참 피백스럽기란.)

김구에 대한 안신호의 첫 인상은 이러하였다.

호기심 많은 처녀와 피백스러운 사내는 그날부터 자주 접촉을 하게 되었고 마음속에 간직한 애국심을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마침내는 약혼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렇지만 약혼한 직후 김구의 또 한차례 되는 감옥살이, 해외망명 등 운명의 곡절은 두 남녀에게 결혼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화가 복으로 바뀌었다고 할까, 안신호에겐 그것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다. 상해시절부터 줄곧 우익의 벼랑끝에서 《반공투사》로 최많은 길을 걸어왔고 눈에 거슬리는 대상은 가족들까지 테로를 가한 김구가 일생반려로 되었다면 이 안신호는 질거죽었을것이다. 오죽했으면 오빠가 파란많은 한생을 총화짓는 시각에 《그와 가정을 이루지 않은것은 어찌보면 잘된 일이다.》라고 했겠는가.

안신호는 김정숙동지께 김구라는 《인간》의 매력과 최악으로 가득찬 행적들을 낱알이 말씀드려야겠다고 작정하였다.

×

대표들의 숙소로 가는 나지막한 등성이길에 봄바람이 진한 꽃향기를 머금고 산들산들 불었다.

새들은 길 좌우의 푸르싱싱 우거진 수풀속에 숨어서 노래하고 나비는 이꽃 저꽃을 찾아다니며 갓가지 춤가락을 펼친다.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하늘가, 신록으로 부푸는 대지... 자연에는 저희들끼리 통하는 무슨 언어가 있는것 같다. 봄바람의 호소를 세상만물이 알아들으며 반응하고있었다. 아버지처럼 속깊고 어머니같이 부드러우며 런던들의 속삭임마냥 열정적인 봄바람의 호소에 따라 꽃송이들은 잎새를 활짝 펼치고 더욱 탐스럽게 흐드러졌다. 제비와 종다리는 화창한 평양풍경의 이모저모를 부감하듯 날아이며 목청껏 봄노래를 부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음향속에서 그와 대조되는 안신호의 말을 마감까지 듣고 계셨다. 검사의 론고비슷한 그의 열번속에는 제 나름의 불안과 위구심이 짙게 깔려있었다.

《...그가 이제와서 무슨 체면으로 감히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겠다고 하는지, 또 장군님을 모신 회의장에서 무슨 판동을

부리겠는지 도무지 대중할수가 없습니다.》 하고 안신호는 입을 다물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는 김구네의 숙소로 가는 이 걸음도 녀사께서 같이 가보자시기에 마지못해 따라선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안신호의 마음을 리해하고도 남으시였다. 그의 불안과 위구심은 물론 자기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을것이다. 만약의 경우 김구일행이 원새끼를 끈다고 해도 련석회의는 성과리에 진행될것이며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질것이었다. 하지만 안신호가 아직도 김일성장군님의 민족대단결에 대한 사상, 통일전선의 위대한 경륜을 좁은 소견으로 리해하는것이 저으기 섭섭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옆에 끼였던 록두나물바구니를 안신호가 이었던 찻쌀자루와 바꾸어 머리우에 올려 놓으신다.

다시금 걸음발을 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차분히 가라앉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김구선생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는지는 장군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계십니다. 해방후에도 그가 북반부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원한을 샀습니까?》

문득 김정숙동지의 가슴벽이 아프게 굽히시였다. 강랑옥이 테로를 당했다는 급보를 받고 달려갔던 그 새벽이 떠오르신것이다.

장군님을 모시고 사건현장에 이르시니 집안밖은 온통 수라장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화약내 나는 연기가 꾸역꾸역 피어오르고있었다.

이미 시체로 변한 세사람(강랑옥의 아들과 딸 그리고 김목사)을 앞에 놓고서 두 량주는 체정신들이 아니였다.

두분께서 급히 그들에게로 다가가셨다.

《장군님!》

강랑옥은 김일성동지께 몸을 묻으며 처절하게 아뢰이는것이였다.

《제가 장군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은 탓으로 이런 재앙을 입었습니다.》

그즈음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서기장의 중책을 새로 맡아안은 강랑옥이였다. 하여 애국적교인들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한편 당면한 토지개혁의 성과를 위해 뛰어다니며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그를 눈안의 가시처럼 여기던 반동교인들은 온갖 험담과 비방중상을 내돌리다 못해 제거해버릴 음모까지 꾸몄다. 놈들의 흉계를 간파하신 장군님께서서는 강랑옥에게 각성을 높이라시며 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다심히 이르시였다. 그런데 강랑옥은 교인들과의 사업을 생각하여 교회당결에 있는 사택에서 쓰기를 차일피일 미루고있었다. 그가 방심해진 기회를 노리던 반동교인들은 미제의 사촉을 받은 김구네의 테로단을 안내하여 그런 치떨리는 짓을 감행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너무도 억이 막히

시여 강랑옥을 품에 껴안으신채 오래도록 눈물을 건잡지 못하시였다. 머리를 부상당한 부인의 손을 꼭 잡으신 김정숙동지께서도 위로에 앞서 어깨를 떨며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셨었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절통하고 분노에 끓던 그때의 심정이 되살아올라 입술을 피나도록 감쳐무신다.

《김구 벼락맞을 사탄의 종자놈아!》

뒤늦게야 소식이 닿아 천방지축 달려온 안신호가 땅을 치면서 터뜨리던 저주가 귀에 쟁쟁하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숨을 폐장깊이 들이켰다가 길게 내보내시였다.

인간생활에서 감정은 매 계기들마다 무시할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고 사물현상을 대할 때 특히 사람들의 호상관계를 놓고 감정만을 앞세운다면 만사가 뒤죽박죽이 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지는것이다.

《어둡서니는 볼수록 커만 진다고 김구선생의 불미스런 행적을 들추자면 끝이 있겠나요?》하고 녀사님께서는 안신호에게 눈길을 주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신다.

《하지만 그가 최근에는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민족분열책동에 침을 뱉었고 장군님의 통일로선에 동조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장군님께서 김구선생의 어지러운 과거보다도 통일애국의 길로 발걸음을 잡은 현재의 지향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진심으로 분열을 가슴아파하고 단결을 도모하라는 사람과는 그가 누구이든 죄과를 묻지 않고 손을 잡으시려는것이 바로 장군님의 립장이십니다.》

사실이 그러하였다. 민족의 대단결, 반침략세력과의 연합은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걸음부터 김일성장군님께서 시종일관 견지해오신 위대한 경륜이였다. 장구하고도 파란곡절에 찬 그 길에서 피눈물을 내색하지 않고 삼키시던 고비는 얼마이며 목숨을 서슴없이 내대야 했던 순간들은 또 얼마였던가.

김정숙동지의 담담한 목소리는 어느덧 항일무장투쟁의 첫기슭에서 있는 이야기로 번지시였다.

《...일제는 만주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중국 구동북군에서 반일구국의 기치를 들고 떨어져나온 구국군과 갓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와 연합하는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 연합전선이 실현되면 곧 만주의 치안유지와 대륙을 침략하는데 압초로 되는것은 물론 저들의 숨통까지 조이게 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에요.》

놈들은 조종인민의 선린관계를 깨뜨릴 목적으로 금수나 돌부처도 낫을 불힐 모략을 조작해냈습니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가짜를 날조하는 술책에 노상 골탕을 먹으면서도 그 가짜에 쉽게 속아넘어가곤 하였답니다. 거기다가 반일부대 두령들속에서의 빈번한 동요와 민족배타적인 경향, 우리대오안에서 좌경분자들이 빚어낸 해독적인 후과는 원썬들의 민족리간책동에 부채질을 하였습니

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때의 예측할수 없던 형편을 그려보시듯 말없이 몇발자국 걸으시다가 의분어린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왜놈의 첩보기관은 로후산에 웅거하고있던 토비화된 구국군의 한 부대에 특무를 잠입시켜 부대장 동산호를 매수하였고 그를 꼬드겨 반일인민유격대의 리광별동대를 전원 참살케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일인민유격대와 중국인 반일부대와의 관계는 날카롭게 악화되였다. 다치면 터질듯한 이 적대적인 관계를 항일무장투쟁의 동맹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앞에 초미의 운명문제로 제기되였던 것이다.

사태를 꿰뚫어보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항일구국군전방사령 오의성과 담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 오의성을 잘 설복하면 리광별동대참살사건 등으로 하여 동만땅에 빛어진 유격활동의 부동상태를 끝장내고 조선혁명이 처한 역경을 얼마든지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다는 신심에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이 일은 어차피 누구이든 목숨을 바쳐 나서야 할 위험천만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동지들의 만류와 간청, 애원을 마다하시고 결연히 라자구로 떠나셨답니다.》

눈앞에서 나비 한마리가 이리 저리 팔랑거리며 홀리듯 어리광쳤다. 길랑열의 우거진 숲속에서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귀따갑게 울리어온다.

그렇지만 좁안에 땀이 질척한 안신호는 발을 저겨디디며 먼곳의 한점만을 줄곧 응시하였다. 그 눈길이 닿은 거기에서 살벌한 분위기가 통트립하는 라자구를 본듯 머리칼을 쭈뼛 곤두세웠다.

녀인은 속이 한줌만 해서 김정숙동지의 다음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여하튼 장군님께서서는 오의성과 담판탁에 마주 앉으셨고 외뿔으로 향했던 그의 마음을 돌려 세워 일제를 반대하는 연합전선을 못는데 성공하셨답니다.》

얼마후에는 반일인민유격대와 구국군이 공동으로 작전하여 일제의 주요거점인 동녕현성을 치고 대승리를 거둠으로써 반일연합전선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셨습니다.》

길을 가로질러 낮추 드리워진 나무가지가 불쑥 눈앞에 나타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안신호가 허리를 굽힐세라 그것을 우로 쳐들어 먼저 지나보내셨다. 그러신 다음 걸음발을 나란히 따라잡으며 말마디에 그루를 박으시였다.

《그럼 무엇이 반복과 질시, 오해와 편견으로 굳어진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속을 움직이도록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열을 추구하면 망하고 단합을 도모하면 흥하는 인간생활의 진리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전기간 이 진리를 신념

으로 지니셨기에 헤아릴수 없이 맞닿들었던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김구 선생과의 경우에도 례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 우익거두인 그가 미국에 대한 환상을 품고 해방 직후에 반공의 도수를 더욱 높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민족을 영원히 분열시키려고 꾀하는 미제침략자들의 검은 야욕을 간파하였을 때 펼쳐 정신이 들어 우리 장군님의 통일정책에서 나라를 구원할 참된 진리를 보았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제하고 배척할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애국애족정치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는것이 아직 반신반의하는 김구 선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번 련석회의의 성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숨소리마저 삼가하며 너사님의 말씀에 이끌리었던 안신호는 둔중한 그 무엇한테 세차게 얻어맞는 느낌으로 머리가 아찔하였다. 믿고 선 땅이 줄지에 뒤집혀진듯 피흐름이 거꾸로 물키였다. 이어 방망이질처럼 귀가를 울려주는 심장의 세찬 박동소리...

돌부처도 움직여내실 김정숙동지의 사리정연한 말마디와 억압속에서 품겨나는 따스한 감정까지도 세세히 음미하던 너인은 자기 폐부로 잇닿아 흘러드는 거창한 세계를 짜릿짜릿한 흥분속에 감득하였다. 그것은 단순하고 범속한 안목으로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 사랑의 세계, 제도와 리념 위에 우뚝 솟아오른 인간사랑의 거룩한 세계였다.

은연중 안신호는 몸을 흐트러뜨리며 늙은이의 상심한 모양새를 서글피 드러내었다. 우주를 송두리채 안은듯싶은 위인들의 그 사랑의 세계속에 안겨 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던 자기를 발견한것이다.

어느결에 해방후에도 초야에 묻혀 성경책이나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그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각근히 보살펴주신 장군님의 은정이 가슴뜨겁게 되마친다. 애국지사 안창호선생의 동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앞에 내세워주신 그이께서는 우리 마음을 합쳐 오빠가 념원했던 민족독립국가를 보란듯이 건설하자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었다. 이어 자식들의 사회활동문제까지 일일이 헤아려주실 때 감격에 겨워 오열을 터뜨리던 안신호였다.

나라를 해방하는 싸움길위에 신발 한켠레도 보태지 못한 자기를 혈육이상으로 살뜰히 대해주며 절음결음손잡아 이끌어주신 김정숙동지의 사랑은 또 얼마나 다심하고 뜨거웠는가!...

내어놓고 질책은 않으셨지만 방금 너사님께서 하신 말씀속에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지 못하고있는 이 늙은것의 좁은 소견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깔려있다.

늙을수록 로망이 잦다더니 내 무슨 번고를 일으킬번 했는가? 미제에 의한 민족분열의 위험을 두고 그토록 심뇌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도움은 못드릴망정 외람되게 김구따위와는 대상도 하지

말아달라고 여쭙 생각까지 하다니...

급기야 안신호는 낮색이 컴컴하게 질렀고 가슴속은 죄책감으로 미여지는듯했다.

《아니... 어디로 가실려구 그럼니까?》

숙소를 가까이 한 갈림길에 이미 들어서신 김정숙동지께서 찾으시여셔야 그는 헛갈리웠던 발길을 허둥지둥 되짚어 바로잡았다.

×

숙소 앞마당을 오락가락하던 강량옥이 급히 달려와 김정숙동지의 머리에서 쌀자루를 내려메었다.

그는 한손으로 쌀자루미를 더듬으며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여기에두 좋은 흰쌀이 넉근한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김정숙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나물바구니를 안신호와 맞드시였다.

《잡쌀입니다.》

《?...》

《남측대표들가운데 위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겁니다. 그들에게 찰밥을 따로 해주면 소화장애의 고통만이라도 조금 덜어줄수 있을것 같아서요.》

《!...》

강량옥과 안신호의 눈길이 허공에서 마주치였다. 얼굴들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짙게 어려든다. 안신호는 물론 대표들의 안내를 책임지고 후생사업까지 맡아보는 강량옥이도 미처 생각을 못하였던 것이다. 그 찰쌀이 만경대할머님께서 손자며느리분의 건강을 념려하여 손수 농사지어 보내신것이라는것은 더욱 모르고있었다.

숙소는 모든 대표들이 정당, 사회단체협의회에 참가한 때라 어딘가 한적하게 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심한 걸음으로 매방의 온습도며 환기상태, 침구류까지 살펴보고는 손님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대책을 세우시였다.

강량옥과 안신호는 그이의 빈틈없는 후생실무의 일처리솜씨를 두고 마음속으로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를 향해 이윽히 기울어졌다. 커다란 마당비를 거꾸로 세워놓은듯 한 백양나무가 마당가에 길다란 그림자를 던진다.

식당의 주방칸으로 들어서신 김정숙동지께서 조리대에 무뎌히 쌓여있는 생선토막을 보시자 환한 웃음발을 피워 올리셨다.

《저런! 대동강의 송어구만요.》

금방 물에서 건져낸것을 손질한것이다. 그옆의 커다란 물통안에서는 팔뚝보다 더 실한 송어들이 퍼들떡이며 꼬리치고있었다.

《남측대표들이 오자바람에 송어탕맛을 보자구 성화여서...》

강랑옥이 빙글썩해서 사람 좋은 얼굴에 실눈을 그리었다.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네들이 언제 평양 특산인 송어탕을 꾸짖히 먹어봤겠어요.》

음식조리를 맡은 녀인이 생선토막들을 빈 가마에 집어넣으려 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발 나서시며 가볍게 제지하신다.

《조금 참아요.》

그러시고는 팔소매를 걷어올리신다.

《같은 값이면 진미라는데 우리 송어탕을 맛있게 끓여보지요.》

어느새 그이께서는 가마안에 물을 적당히 붓고 고추장과 소금을 풀어 초벌간을 맞추시었다.

《집집승고기예 비해 생선은 살이 연하기때문에 미리 국물을 끓이다가 넣어야 보는 사람들의 구미를 돋우고 맛도 살아나답니다.》

강랑옥과 안신호는 물론 음식조리를 맡은 녀인까지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김정숙동지의 요리가 공숨씨를 냈이 빠진듯 바라보았다.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손놀림들에 이름 못할 정성이 함뿍 어려있어 가슴은 몽클하니 젖어들었다.

이윽하여 가마뚜껑이 들썩이며 김발을 푸푸 내뿜기 시작한다. 녀사님께서는 손수 생선토막들을 가마에 넣으셨다.

《송어토막에 간이 배일정도로 끓은 다음 인차 불땀을 낮춰주세요.》하고 주방칸 녀인에게 상냥스러운 어조로 이르신 다음 그 자리를 뜨시었다.

《참, 서기장동지!》

김정숙동지께서는 발을 천천히 옮기시며 강랑옥에게 영채도는 눈길을 주시었다.

《대표들이 체류기간을 얼마만큼씩이나 잡고있습니까?》

《대다수가 보름은 남짓하게 예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내에 생일을 맞는분들이 있을터인데...》

《?...》

《그들이 생일 쇠는 문제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어- 거기까지는 전혀...》

강랑옥은 눈을 껌벅이면서 말꼬리를 사렸다.

《바쁘신 몸에 거기까지 언제 머리를 돌릴 새가 있었겠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 머리를 끄덕이신다.

《하지만 우리 이제부터 관심을 돌립시다. 객지 생활이지만 제집에서처럼 느끼도록 말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나이가 많아 음력으로 생일을 쇠겠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양력생일을 택한 사람들도 있을거예요.》

《?...》

《!...》

강랑옥과 안신호의 눈길이 허공에서 또다시 마주쳤다. 어쩌면 그렇게도 친어머니처럼 세심하고

다정다감하실까?!

두 일군의 눈앞에는 뜻밖에 생일상을 받아안고 어쩔줄 몰라하는 여러 대표들의 모습이 방불하니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러루한것을 미리 다 알아두었다가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동의를 구하시듯 밝게 웃으며 안신호를 돌아보신다.

《부위원장동지, 그렇게 하는것이 어때요?》

순간 안신호는 온몸이 햇빛같은 그 미소속에 녹아버리는 환각으로 무아몽중이 되였다. 산도 들도 평양의 이 봄날도 그 미소속에 한껏 무르녹는듯싶었다.

《어쩔... 어쩌면 녀사님께선 그렇게도 친절육보담 더 다심하구 뜨겁게...》

녀인은 북받치는 매혹을 견잡을수가 없어 말마디를 더 잊지 못하였다.

×

그날 밤 숙소의 응접실에서는 두 늙은이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김구와 안신호였다. 런정으로 불타던 홍안시절은 어디로 가고 머리 위에 백발을 얹은 모습이 되여 이렇게 다시 만났는가. 덧없이 흘러보낸 나이를 줄일수만 있다면 이제라도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 새로이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볼수 있으면만...

이야기는 대체로 안신평에서 많이 하였고 김구는 묻고 듣는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어느 대목부터인지 김구는 의자등받이에 깊숙이 파묻었던 웃음을 앞쪽으로 굽힐사하니 내밀고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그의 두눈이 더욱 휘둥그레진것은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인 안신평이 북조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라는 중임을 지닌데다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남포시 녀맹위원장이며 그의 아들도 남포시인민위원회 서기장사업을 한다는 사실이였다.

《인민회의의 대의원이면 저쪽 식으로 <국회의원>이란 말이겠는데...》

김구는 흥분으로 눈섭을 쫓깃거리면서도 입귀를 비틀어 말끝을 사리였다.

《왜 믿어지질 않아요?》

안신평은 가볍게 웃고나서 품안의 대의원증을 꺼내여 그한테 보이였다.

《이름두 없는 내인이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장군님을 모시기 유명썩한 혁명투사들과 나란히 앉아 나라정사를 의논한다니까 혹 거짓말 같이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바 그대로 사실이에요.》

얼결에 증명서를 받아들였던 김구의 눈앞에서 창문이 기우뚱거리더니 회전목마를 탄것처럼 방안이 빙글빙글 돌았다. 흥분이 정도가 넘으면 어

지름증을 일으키는 모양이다.

그는 걱정끝에 숨을 들이키었다.

(아, 여기에 바로 이북사람들이 지닌 민족단합의 참 리념이 있고 애국애족의 정치를 주관하시는 김일성장군님의 거룩한 인간상이 있구나!)

열려진 창문가로는 꽃향기를 머금은 봄바람이 시서늘하게 흘러든다. 달빛에 우렷하니 자태를 드러내놓은 송림속 어디선가 유정히 울려오는 뻐꾹새소리...

동안이 지나서야 김구는 다소 흥분을 가라앉히고 웅글진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평양에서의 첫 인상두 그래 느끼는바두 그래 북조선의 공산당은 내가 지난날 상해일관이나 서울에서 보아온 《공산당》과는 근본이 다른것 같아.》

그는 안신호의 꾸밈없는 말마디들에서 진실을 감수하고있었다.

《저도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방식을 다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알고있는데로 말하면 우리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단합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애국자들로 키우고 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선양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상에서 만복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제 오라버니는 애국이요 민족주의 운동이요 하면서 덮어놓고 공산주의를 반대했구 자기 민족을 깔보면서 대국만 넘겨보았지요. 아마 오늘의 북조선현실을 보았더라면 오라버니도 가슴을 치며 헛길을 걸은 지난날을 후회했을겁니다. 그리구 민족주의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일어섰을거예요.》

안신호의 속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에 김구는 가슴이 띠끔하였다. 지난 한생에 대한 허무감으로 하여 목덜미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언제부터 이 속통에 반공이라는 외교집이 자리잡기 시작했는가? 수십년전 《상해파》와 《이르주쿠파》가 저질러놓은 《흑하사변》때부터였던가? ...

나라도 민족도 몰라보는 그 《공산당》과 오늘 평양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북조선 공산주의는 너무도 판이하였다.

그는 안신호를 만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굴러본 북조선의 정치체제에 대한 의혹이 너무나도 유치한 편견때문이었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유-》

부지중 꺼질듯 한 한숨이 길게 터지며 응접실의 공기를 휘저었다. 그 한숨소리는 완고하고 끈질긴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이 뿌리채로 뽑히는 소리였다.

김구는 나직하니 물었다.

《그래 신호는 지금두 교회당에 다니겠지?》

《네, 김일성장군님께서 저에게 하늘을 믿어도 남의 나라 하늘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하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김구는 철썩 무르팍을 치더니 지루한 악몽속에서 헤어난듯 얼굴을 건듯 쳐들고 부르짖었다.

《암, 천만지당하신 금언이요. 하느님을 믿어두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

그의 뇌리에는 순간 조선의 《하느님》이 바로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생각이 번개쳤다.

못별들이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있었다. 마치도 해가 하루동안 넓은 우주에 뿌려놓았던 광명의 씨앗들이 비로소 금시 돌아난듯싶다. 초생반달은 그 반짝거리는 씨앗발의 가녀에 낮가락같이 고운 문양을 그려놓았다.

이윽하여 김구는 안신호에게 말을 건네인다.

《참, 오래간만에 신호가 성의있게 만든 룽두나 물무침을 끝맛보다두 더 달게 들었소. 산천두 변화였구 세상두 변했는데 세월의 풍상속에서도 변하지 않은것은 그대의 음식솜씨구만...》

그의 얼굴은 사뭇 감회가 깊은 표정이었다.

《그건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룽두나물은 김정숙녀사님께서 선생이 온다는것을 아시고 며칠전부터 맥에서 길러내신것이랍니다. 그리구 손수 무침까지 만드셨구요.》

《뭐 뭐... 뭐라구?》

김구는 불을 삼킨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뛰쳐일어났다.

《백두산에서 장군님을 모시구 싸우시면서 족발이들을 삼대베듯 했다는 그 녀장군이 말인가?》

《그래요.》

《하- 이런 천은이 망국하다구야!》

너무나도 뜻밖의 말을 들어서인지 김구는 아래턱을 덜덜 떨면서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한동안 아연실색하여 멍청하니 서있던 그는 천천히 안신호에게로 눈길을 돌리었다. 이 사람이 언감 자기를 놀리는가 하는 속대사가 그 눈빛에 확연하게 내비쳐있었다.

안신호가 룽두나물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해주어서야 그는 거쿨진 몸을 후둘후둘 떨며 목갈린 말마디를 터친다.

《이 못난 로구가 무엇이라우... 이렇듯 혈육보다 더 뜨거운 정을 베풀어주시는가?...》

등근테안경속의 두눈은 벅찬 충격으로 연신 습벽이였고 삼시에 진한 물기가 내배었다.

이윽하여 고개를 푹 떨군 김구의 입에서는 신음같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자고로 세상일을 대할 때 두귀로 듣고 두눈으로 보라 했는데 나는 한쪽귀로 가짜공산당의 나쁜 말만 들었구 한쪽눈으로 그놈들의 나쁜짓들만 보아왔소그려. 그런즉 김일성장군님의 진짜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눈귀를 막아버리고 반공에만 치중하면서 망동을 부릴수밖에... 어허- 이 욕된 인생을 무엇으루 다 세척한단말인가.》

창밖의 하늘에서는 못별들이 더욱 여무지게 밝은 빛발을 내뿜고있었다. 잠들줄 모르는 평양의 밤 새 조선의 거창한 숨결인양 건설장에서 울려오는 창조의 노래소리...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명상에 잠긴 두 늙은이의 가슴속에 그것은 소생하는 계절의 환희로운 교향곡으로 메아리쳤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동지들과 공동위업에 대한 헌신성, 이것은 김정숙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이였으며 또한 그가 지니고있는 인간적매력이기도 하였다.》

《내가 김정숙을 처음 본것은 삼도만유격구에서였지만 그의 경력과 가정애사를 구체적으로 들은것은 1936년 봄 만강에 가있을 때였다.》

《김정숙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던 집에서도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법이 없이 나무도 패주고 물도 길어주고 방아도 찧어주었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김정숙의 정성은 참으로 돌우에 꽃이라도 피울수 있으리만큼 지극하였다.》

《그가 도천리를 혁명화하는데서 중심고리로 잡은것은 군중을 의식화하여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이였다. 김정숙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걸고 우리의 혁명사상을 정력적으로 선전하였다. 이런 과정에 지도핵심들을 소문없이 키워냈다. 그리고 그 핵심들로 반일청년동맹도 조직하고 부녀회도 조직하였다.》

《김정숙은 도천리와 신파지구에서 활동하는 기간 백두산밀영과 삼수에도 다녀왔으며 신흥, 흥남, 북청, 단천을 비롯한 동해안지구에 나가 이 지대 혁명가들과의 사업도 심도있게 하였다.》

《그의 낮은 언제나 인민에게서 떠나본적이 없었다.

나는 이따금 이런 질문을 던져보군한다. 어떻게 되어 김정숙은 그로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후원속에서 어려운 지하공작을 해낼수 있었을가?

만일 김정숙이 인민에게 참다운 사랑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민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을것이다. 인민을 위해 자기를 갇그리 바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인민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수가 없다. 김정숙은 인민에게 사랑을 바친것만큼 자기가 것처럼 아끼고 품어준 인민들로부터 응당한 보답을 받은것이다. 그러고보면 500명의 인장이 찍힌 량민보증서는 그가 인민의 참된 충복임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서라고도 해야 할것이다.》

목 수 건

-김정숙군 혁명사적관에서-

천일수

사적관 진렬대우에 놓여있는
김정숙어머님 두르시던 목수건앞에 서네
평평 내려지던 백두의 흰눈이
내 마음에 쌓이고
무서운 눈보라 광풍속에
백두밀림 나무아지 부러지는 소리 들리는듯

아 적후공작 떠나시던 어머님 손에
몸소 들려주신 우리 수령님
그 목수건 두르시고 떠나시는
어머님을 바래워
수령님은 그 얼마나 오래도록 바라보셨던가

어머님은 저 목수건 두르시고

수령님의 뜨거운 체온을 느끼시며
백두의 만년장설을 헤치고
백두의 설한풍도 길들이시며
길아닌 길로
여기 신파땅에 오시였으리

지금도 그날처럼
석전양복점이며 잡화상점
광선사진관 2층창가에 서면
저 목수건 날리시며 찾아오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보여올듯

오늘도
물방아간 아지트며

오함덕 객주집에 들어서면
저 목수건 벽에 걸어놓고
지하조직을 무어주시던
어머님의 뜨거운 그 음성 들려올듯

말하라
압록강바람에 목수건 날리시며
원호의 나루배를 저어가던 력사의 나루터여
신파의 골목길이어

신파, 도천리...
백두의 험한 길 걷고 걸으시며
언제 한번 마음 편히
저 목수건 풀어놓고
쉬어본적 있었으랴

깊은 밤에도 때없이 찾아가
피눈물에 젖은 가슴들에
혁명의 씨앗을 심어주며
갈길 몰라 헤매이던 사람들을
백두산으로 향한 길에 내세워주신
김정숙어머님

아 어머님 두르시던
저 목수건
오늘은 장군님 받드는
선군의 한길에
불같은 그 체온으로
우리모두를 이끌어주어라

금로수에 부치여

박춘선

구슬이 녹아흘러
그 물빛 맑고
산삼이 씻겨내려
그 물맛 좋은가

로화를 막는다고
그 이름 금로수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길이 잦던 곳

찾아오는 사람마다
잊지 않고 너를 떠나시고 갔건만
그처럼 소중히
그처럼 정성답아
너를 떠담아간 손길은 없었더라

아 수령님 안녕을 바라시는
그 마음 뜨거우신 김정숙어머님
수령님께 금로수를

삼가 떠올리셨나니
축원의 그 마음 비껴흘러
금로수 너의 물빛 그리도 맑고
뜨거운 그 정성 비껴담고 샘솟아
금강산을 찾아오는 그 누구나
소중히 떠마시는 네 이름 금로수!

금로수가 없이야 그 어이 금강산이라
우리 어머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샘
금로수 물맛을 모르고서야
그 어이 금강산구경을 다 했다 말하랴

어머님의 마음속에 줄기를 두고있어
솟아 마를줄 모르는 신비로운 샘이어
너로 하여 인민이 천만년 전해갈
금강산전설이 또 하나 태어났구나
너로 하여 금강산은
더 아름다워졌구나 더 자랑스러워졌구나

장군님의 추억

누구에게나 추억은 더없이 아름답고 소중한지만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의 추억의 세계는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것인가.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 얼마나 심원한 추억의 세계가 간직되어있는지 다는 모를것이다.

어느해 7월말 어느날 새벽녘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로씨야행 특별열차는 동해선철길을 따라 북방의 청신한 새벽공기를 헤가르며 두만강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영화화면처럼 차창가에 언뜻언뜻 스쳐 지나가는 오בות 산골마을들, 푸른 산과 벌들, 자그마한 개울들...

아버이장군님께서 아름다운 산촌의 풍경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고계시는 사이에 렬차는 두만강철교에 들어섰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부터 장장 천수백리 달려온 강, 젖빛안개를 피워올리며 거세차게 흘러내리는 두만강을 마주하신 장군님의 감회는 말할수 없이 깊어졌다. 그이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두만강이로구만.》

《그렇습니다, 장군님. 두만강입니다.》

동행하던 일군도 그이의 사색을 깨칠가 저어하며 조용히 말씀드렸다.

두만강!

수수천년 이 땅, 이 민족과 함께 때로는 비분으로 몸부림치기도 하고 희망과 행복으로 뚫어번지기도 하면서 굽이쳐흐르는 력사의 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사연깊으신 눈빛으로 출렁이는 두만강을 바라보시면서 《두만강은 깊은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강입니다.》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두만강의 물결을 거슬러 꿈에도 잊지 못하신 백살구 주령진 오산덕언덕이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은 이국땅으로 가시던 눈물젖은 그날의 나무터를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가 동행한 일군들에게 몸을 돌리시며 동무는 회령에 가본적이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장군님, 가보았습니다. 회령에 가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도 뵈었고 고향집도 돌아보았습니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께서는 아직 회령에 가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김정숙어머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신후 산에서 함께 싸우던 전우들이 회령에 가보시

자고 여러번 말씀드리였으나 그때마다 지금 할일이 많은데 어떻게 고향집부터 찾아보겠는가, 후에 시간이 있을 때 가보자고 하시면서 미루시다가 끝내 가보지 못하시였다고 가슴아픈 추억의 갈피를 더듬으시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 자신께서도 어머님이 그리워질 때마다 회령에 가보고싶었지만 일감이 너무 많아 시간을 낼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언제인가 왕재산혁명전적지건설을 지도하러 온성에 갔을 때에도 시간이 없어 회령에 들러보지 못하였는데 그때 회령을 지나면서 울리는 기적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고, 그때의 일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다고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사연깊은 말씀이시였다.

바로 이곳에 민족의 령수를 모시지 못한탓에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남부녀대하여 낯설은 이국의 하늘아래로 뿔뿔이 헤쳐져야 했던 곡절 많고 수난 많은 비운의 민족사가 숨배여있고 저 강건너 이름모를 어느 산기슭에 귀중하신 부모님과 형제분들, 친척들과 동지들을 묻으시며 오열을 터치시던 우리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아로 새겨져있는것이다.

뜨거운 추억의 갈피갈피를 펼쳐가시던 장군님께서는 이윽고 두만강의 물결에서 눈길을 떼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옛날에는 두만강을 원한의 강, 피눈물의 강이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렇던 두만강이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실때에는 투쟁의 강, 희망의 강으로 되었고 오늘에 와서는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되었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 오늘 우리는 김일성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안고 로씨야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올랐다고, 출렁이는 두만강의 흐름이 로씨야에 대한 우리의 방문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축복의 인사를 보내는것 같다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버이장군님의 태양같은 그 미소에 끌려 그이를 따라 행복의 미소를 한껏 짓던 일군의 머리속에는 번개처럼 번뜩하고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그러하던 일군은 불쑥 저도 모르게 《장군님, 장군님께서 하신 두만강의 력사에 대한 말씀은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무릅없이 말씀

내 조국에 흐르는 빨찌산년륜

리동수

한낮에도
깊은 밤에도
이 땅에는 빨찌산년륜이 흐른다

온갖 꽃 피어나고
창가마다 행복 넘쳐나도
내 나라를 지켜선 전호와 전호
전선천리방선에 흐르는
오 빨찌산년륜

눈비오고 바람세차도
우리 장군님
어느 한시각
어느 하루도 멈추지 않으신
빨찌산행군
그 자욱 따라 내 조국에 흐르는 날과 달이어

한가닥 모닥불로
언뎀을 녹이시며
한모금 샘물로 끼니를 에우시며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
사회주의 내 나라를 지켜
가신 길은 몇천 몇만리
지새우신 밤
헌신의 날과 달은 그 얼마이던가

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일군의 미숙한 견해를 긍정해주시면서 두만강은 우리에게 심오한 철학을 안겨주고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그것은 아무리 역사가 유구하고 뿌리깊은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는 강이라고 하여도 그 민족이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가 모시지 못하는가에 따라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되는가, 아니면 원한의 강, 피눈물의 강으로 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되기때문이라고,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락원의 강, 행복의 강, 강성대국건설!

어버이장군님의 이 말씀을 입속으로 따라외우던 일군은 그제서야 좁전에 뇌리를 치던 그 섬광이 무엇이었던지 푹푹히 깨달았다.

가시는 길
바치시는 그 나날속에
병사들이 틀어쥔 총검마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번개는 일어번지고
강성대국건설의 힘찬 동음
강산에 넘쳐나거니

장군님따라
이 땅에 흐르는 빨찌산년륜
그 세월속에
일심단결은 강철로 다져지고
기적과 비약의 나래 펼치고
조국은 힘차게 나아간다

내 나라 삼천리강토를 거느린
백두산!
성스럽 그곳에서 시작된 빨찌산년륜
수령님 역사를 빛내이며
우리 장군님
선군의 총대로 이어가시나니

천만번 해와 달이 바뀌어도
백두산정신
그 하나의 넋을 신념으로 삼고
영원무궁토록 내 조국에 흐를
오, 빨찌산년륜이어!

(령도자의 추억, 그것은 결코 단순히 정치가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회고가 아니다. 령도자의 추억에는 반드시 민족의 넋과 피가 뛰고 자기 인민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헌신, 부강한 래일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담겨야 하며 그런 추억을 지닌 정치가만이 민족의 위대한 아들로, 인민의 수령으로 역사에 빛나는것이다.

정녕 우리 장군님의 추억은 이 땅과 우리 민족이 겪어온 그 모든 희로애락뿐아니라 더욱 번영할 우리 조국의 휘황찬란한 래일까지도 비껴담은 이 세상에 단 한분밖에 안계시는 천출위인의 심원한 정신세계이다.)

렬차는 이미 두만강을 건너 봇나무 뻗뻗한 이 국땅의 무연한 수림속을 달리고있었다.

그러나 어버이장군님의 추억은 푸른 물결과 더불어 더욱 부강번영할 우리의 래일이 약속된 조국으로 끝없이 나래쳐가고있었다.

한없이 은혜로운 품속에서(1)

박춘택

소설가 리기영은 현대조선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이다.

해방전부터 《민촌》이라는 별호로 널리 알려져 있던 그는 농촌의 산 화폭을 담은 땅냄새나는 30여편의 장편소설과 100여편의 단편소설을 썼다. 그는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성공의 명마루에 오른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그의 참다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진것인가.

1895년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당시)두메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는 다닐 수 없어 서당방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가난속에서 당에서 공부하였지만 머리가 총명하고 학업에 열성이 높아서 다른 아이들보다 《천자문》도 먼저 떼고 《동문선습》도 맨선참으로 통달하였다. 그리고 학식 있는 고모한테 가서 열흘동안에 우리 글을 익혀가지고 와서 고전소설을 읽기 시작했으며 동네집들을 다니며 읽어주기도 하였다.

고전소설을 많이 읽고 련이어 현대소설에도 접근하면서부터 청년 리기영은 소설을 써보리라 마음먹었다. 따라서 더 배우고싶고 인간세계를 폭넓게 알고싶었다. 그러나 일제에게 강점당한 식민지민족의 가난한 청년에게는 그러한 길이 열리지 않았다. 청년은 방랑의 길에 나섰다.

금전관로동도 해보고 품팔이일도 해보았지만 청년의 꿈을 알아주고 키워줄 세상이 아니었다. 그는 고학의 꿈을 안고 일본에도 건너가보았다. 도쿄대지진이 일어나니 일제놈들은 조선사람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 조선사람멸살소동을 벌리며 수천수만의 조선사람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리기영도 그러한 수난속에서 죽을수 있는 위험에 처하였다. 그는 분명히 일본땅을 뛰쳐나 조국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고학의 꿈을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 글을 써보리라 마음 다지였다. 그러한 결심과 노력끝에 이루어진 첫 열매가 단편소설 《오빠의 비밀편지》였다.

이 작품을 발단으로 창작의 길에 들어선 그는 자기문학의 방향타를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을 그리는데로 돌렸다. 그래서 호를 《민촌》으로 정하고 이 나라 농민들의 운명을 안고 한생을 모대기리라 결심하였다.

《카프》의 조직자의 한사람으로 되어 그 조직의 활동에도 적극 참가한 그는 단편소설 《가난한 사람들》, 《원보》, 중편소설 《취불》 등 수많은 작품들을 통하여 가난한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고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식민지사회의 불합리성을 단죄하였다.

일제놈들은 리기영의 이러한 《카프》활동과 창작생활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갖은 박해

와 고통을 들썩였다. 찍하면 불러다 심문하고 고문하고 구류시켰으며 제2차 《카프》검거를 벌리며 체포구금하고 2년이상 감옥살이까지 강요하였다.

그러던 그에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소식이 날아들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전개하시는 항일무장투쟁, 이 소식에 접한 작가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으며 조국해방의 그날에 대한 환희로 하여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지나간 날들의 창작세계에 대하여 검토총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써야 할 창작세계에 대한 새로운 상을 안게 되었다.

리기영은 압당한 현실에 대한 폭로와 모순된 사회에 대한 비판에 머물렀던 지난날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작품, 혁명투쟁의 진리 계급투쟁의 철리를 보여주는 사회주의사실주의작품창작으로 지향하였다. 그래서 그는 장편소설 《고향》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작가는 장편소설 《고향》에서 농촌의 계급적대립관계를 근로하는 농민대중과 착취자이며 압박자인 지주계급과의 관계로 뚜렷이 제기하고 전형적인 성격으로 형상하였다. 작품은 우리 나라 진보적문학에서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본보기작품으로 되었다.

이 장편소설의 출판은 우리 나라 소설문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었으며 다른 작가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일제침략자들의 신경을 심히 자극시켰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영향하에 진보적문학작품이 사상적경향이 뚜렷한 계급투쟁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일제침략자들은 교활하고 악랄한 압살책동을 벌리며 《전향문학》을 강요하였다. 《카프》출신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전향문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중 대표적인 작가가 리기영이었다.

죽으면 죽고 글을 못쓰면 말았지 일본놈의 비위에 맞는 글을 쓸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작가로서의 붓을 꺾고 서울을 떠나 농들의 통치기구의 손길이 덜미치는 두메산골에 들어가 부대기농사나 하면서 살것을 단호히 결심하였다.

이러한 결심은 사실상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었다. 신념과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진실의 인간, 의지의 인간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용단이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리기영의 이런 애국적지조와 작가적량심에 대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일제가 강요하는 <국민문학>(전향문학)을 하느냐, 붓을 아주 꺾어버리고마느냐 하는 기로에서 대부분의 <카프>출신작가들은 진보적문인으

로서의 량심을 지키었다. 리기영은 내금강의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부대기농사를 지으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는 량심적인 지성인, 애국적인 작가로서의 체모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작가 리기영의 해방전생활, 애국적지조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해주는 집약된 규정이다.

리기영은 금강군 병무리에 내려와 살면서 일곱 식구가 험하디 험한 부대기농사로 연명하며 조국과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는 량심적인 지성인, 애국적인 작가로서의 존엄을 지켜냈다. 병무리에서 리기영의 생활고는 일제말기 조선의 가난한 농사집 생활고 그대로였다.

바로 이렇게 암흑속에서 살아온 리기영이었기에 조국해방의 감격은 남달리 컸던 것이며 새 조국건설에 대한 헌신성은 비할바없이 높았던 것이다.

리기영이 8.15해방에 대한 소식을 8월 16일에 듣고 8월 17일에 벌써 《내금강면인민위원회》라는 간판을 자필로 써가지고 면소재지로 달려가 왜놈들의 면사무소간판을 때펄개치고 그 자리에 인민위원회간판을 박아붙이고 눈물을 흘리며 《영명하신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해방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고 면인민위원회조직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도 작가의 감격과 흥분, 새 나라 건국열의가 얼마나 높았던가를 짐작할수 있다.

리기영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해방을 맞이했으며 놀라운 정도의 열성으로 건국사업에 투신하였다. 이러던 그에게 평양으로 올라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작가를 불러주신 것이다.

평양에 온 리기영은 통일적인 문학예술인조직으로서의 문학예술총련맹결성대회에 참가하여 사회를 하였으며 집행위원회 한사람으로 선거되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리기영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년세는 얼마인가, 가족은 몇이며 지금 어디 있는가, 어떤 연고로 병무리에서 살게 되었는가 등 여러가지를 다정히 물으시었다.

리기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으시는 차례대로 차근차근 대답을 올리었는데 도교육부장사업을 인계할 때 좀 서운했던 감정이 은연중 섞여나왔다.

그의 말을 다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년세도 많은데 가족을 빨리 데려와야 하겠다고, 식구가 일곱이나 되니 집도 넓직해야 되겠다고 걱정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이렇게 만나주신것만도 감격과 흥분을 금할수 없는데 가족을 데려오는 문제와 넓은 집에 대해서까지 넘려해주시니 송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하루빨리 창작의 붓을 들어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고 마음다지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말씀하시던 넓직한 집으로 이사오는 문제가 그리도 빨리 이루어질줄 어찌 알았으랴.

위대한 수령님의 집견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날 한 일군이 리기영선생에게 와서 시내구경을 나가자고 하였다. 산보나 좀 하자는것으로 알고 그를 따라 동평양 선교쪽으로 갔는데 높고 두터운 담장을 둘러친 큰 벽돌집을 그에게 구경시켜주었다. 유리를 끼운 미닫이문으로 들어가니 마루가 있고 마루옆으로 꺾어들며 방들이 여러개 있었다. 그 집은 넓은 방이 있는가 하면 온돌방도 있고 책장을 벽에 붙여지은 큰 서재도 있고 부엌, 위생실 지어 목욕실까지 있는 집이어서 리기영으로서는 보기부터 처음인 요란한 집이었다. 넓은 마당에 화단과 정원까지 있었다. 그 일군이 집이 어떤가고 물었다. 그는 보기도 처음인 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일군은 선생이 좋은 집이라니 뵈었다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이 집을 골라서 리기영선생네 집으로 주시었다고 알려주었다.

리기영은 너무도 놀랍고 감격하여 그만 눈물이 솟구쳐올라 일군의 앞이라는데도 잊은듯 마루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울었다.

아! 집때문에 당해온 고생과 수모가 얼마나 컸던가. 서울생활 15년에 초가집조차 한번 제집으로 써보지 못하고 이 세방살이에서 저 세방살이로 쫓기운 그 설움많은 일 얼마였던가.

그런데 해방된지 1년도 되지 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 크고 좋은 집을 고르시여 안겨주셨으니 내 눈에 흠이 들어간들 이 은혜를 잊을수 있겠는가.

리기영의 심중은 바로 이러하였다. 그는 크나큰 은정에 목이 메었다.

당시 평양에는 집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새 조선의 각종 중앙기관이 나오고 술한 간부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배치되어있는 때여서 높은 급의 간부들 거의가 합숙생활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리기영을 비롯한 작가들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집들을 몸소 고르시여 배정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바다같은 사랑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한편의 시, 한편의 소설이 노는 역할과 가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였으면 이렇듯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겠는가.

그런데 며칠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옥백미가 몇가마니씩이나 도착하였다.

리기영은 좋은 작품창작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에 기여이 보답하리라고 강심을 먹었다.

작가란 가장 량심적인 인간이어야 할진대 50년동안 일제에게 짓밟히고 천대받으며 암흑속에서 헤매던 인생을 이렇듯 광명의 상상봉에 이끌어주시였는데 그 사랑, 그 은혜를 모른다 하면 그게 무슨 인간이며 작가이겠는가, 작품을 쓰자,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께 명작을 드리는 한마음으로, 순결한 도덕의리심으로 창작하자!

이렇게 마음 다진 작가는 분연히 붓을 틀어잡고 해방후 첫 단편으로서 《개벽》을 썼다. 그리고 장편소설 《땅》창작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받아안은 사랑의 천분의 일도 보답하기 전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

장군님 찍으시는 사진

송재하

낮이나 밤이나
초소를 찾고 찾으시는
우리 장군님
얼마나 많은 사진
병사들과 찍으셨던가

초도와 판문점
1211고지와 오성산...
찾으시는 초소마다
나의 병사들이 보고싶었다고
나의 아들딸들과 사진을 찍자고
우리 장군님 말씀하셨으니

먼 후날 오늘을 잊지 말라고
자신의 곁에도 세워주시었던가
영광의 그 순간에 언제나 살라고
자동보총과 쌍안경을 안겨주시며
기념사진을 남기시었던가

고향의 부모님께 보내려면
얼굴은 크게 찍어야 한다고
장가들 때 처녀에게도 주려면
몇장은 있어야 한다고
호탕하게 웃음도 지으시고...

아, 조국의 초소를
동무들에게 맡긴다 하시며
사진을 함께 찍으실 때

숫구치는 뜨거움으로
병사들의 가슴은 고동쳤나니

정녕 병사들과 찍으시는 사진
그것은 병사들에게 안겨주시는
행복과 영광만이던가
소중히 간직할
병사들의 자랑스러운 가보만이던가

태양처럼 환히 빛나는
그이의 안광에서
병사들은 목숨같은 조국을 보았고
그 무엇보다 바랄수 없는
조국수호의 불같은 맹세 간직했거니

준엄한 격전장에 선다면
사진속의 병사들
맨 앞자리를 차지하리라
최후의 그 순간이 온다면
《김정일장군님 만세!》
목청껏 소리높이 부르리라

그렇다, 장군님 찍으시는 사진
그것은 병사들을
조국의 억센 수호자로 키우시고
조국의 참된 아들로 내세워주시는
우리의 위대한 령장께서
자신의 믿음을 통채로 주신것이다!

과 믿음은 거듭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 1돐을 맞으며 리기영을 우리 나라의 첫 외국방문사절단의 단장으로 외국에 파견해주시었다.

첫 외국방문사절단 단장이라는 이 과분한 신임을 그가 어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는 커다란 흥분과 책임감을 안고 비행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대표단을 보내주시려고 비행장에 나오신것이다.

《아 장군님, 장군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리기영은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며 놀라와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첫 사절단이 외국으로 떠나는걸 보고싶어 나왔다고 하시면서 비행기 떠날 시간이 몇분이나 남았는가고 물으셨다. 그는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였다. 시계가 없으니 수령님의 물으심에 정확한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리기영이 시계가 없다는것을 아시고 자신께서 애용하던 회중시계를 주시었다.

《장군님, 온 나라의 국사를 보시는 장군님께서

시계 없이는 안됩니다.》하고 사양하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무리 식민지민족으로서 가난했던 나라라 해도 해방된지 1년만에 첫 사절단이 외국으로 가는데 단장이 시계가 없어서야 되겠는가고, 자신께서는 다른 시계를 또 구해보겠다고 하시며 기어이 리기영의 손에 쥐여주시었다.

리기영은 첫 사절단의 단장으로 내세워주신것만으로써도 꿈같은 일인데 시계까지 꺼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무슨 인사를 드려야 할지 말이더 나가지 않았다. 오직 좋은 작품으로 기어이 보답하리라는 내심깊은 맹세를 다졌을뿐이었다.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불타는 열정을 바쳐 빠른 시일내에 장편소설 《땅》 집필을 끝내었다.

장편소설 《땅》이 출판되어 나오자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소설은 전국문학예술축전에서 1등으로 당선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오늘이여 너를 사랑하노라

생각할수록
신심에 넘치는 오늘이여
이 마음 부풀어오를수록
생각깊어지는 오늘이여

생활이 비록 풍족치 못해도
남을 부러워할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에 살면서
래일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며 산
선군시대 사람들을 생각하노라

돌아보면
얼마나 험난한 길 우리 왔던가
걸음걸음 고난이 막아서고
시시각각 시련이 몰려들 때
우리는 장군님만을 믿고
선군의 천만리를 걸어오지 않았던가

빈터우에 새 공장을 세울 때도
대고조의 불길 지퍼올릴 때도
그 마음 하나로
부족한 백가지
필요한 천가지를 대신하며
자옥자옥 수놓아온 자랑스러운 오늘이여

더운 땀 흘리고
값비싼 피를 바친 대가로

가사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것을 얻었던가
어려울수록 수령의 두리에
더 굳게 뭉쳐야 한다는

혁명하는 나라
수령을 모시여온 승리자로
세상이 우러르는 그 높이에 선 인민!
수령결사옹위로 뜨겁고
결사관철의 열풍으로 가득찬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이나니
남들이야 어찌 다 알수 있으랴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어
선군승리의 동트는 아침을
눈앞에서 맞이할 우리의 락관을

천번 싸움에서 천번 승리한 우리
어찌 가슴 부풀지 않으랴
가는 길에 다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해도
우리는 신념으로 이기리라

오, 래일의 승리를 틀어쥔 오늘이여
휘황한 래일도
손잡고 함께 사는 오늘이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사랑하노라
장군님 모시여 승리를 앞당긴
우리의 오늘을!

장군님 바다는 넘려마십시오

박두천

출항의 아침에도 귀항의 저녁에도
장군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네
그러면 그날의 감격이 설레여
해병은 그 영상 우러러 맹세하네
장군님 바다는 넘려마십시오

파도에 출렁이는 갑판에 오르시여
바다의 용사라 믿음주신 사진이네
그 품에 목메던 그날을 못잊어

해병은 그 영상 우러러 맹세하네
장군님 바다는 넘려마십시오

장군님 모시고 우리 찍은 기념사진
천만년 세월 가도 그 모습 변함없네
우리의 항로는 오직 하나 결사옹위
해병은 그 영상 우러러 맹세하네
장군님 바다는 넘려마십시오

창작의 나라를 펼쳐주시며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에는 《조선인민군》신문이 명실공히 당과 수령의 신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령도의 자욱이 깊이 새겨져있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군력사에 남기신 어머님의 공적은 참으로 크다고 말씀하시었다.

잊을수 없는 주체38(1949)년 5월 26일이였다.

그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인민군신문사의 책임일군에게 보천보전투승리 12돐기념일과 관련한 신문편집에 대해 생각해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책임일군은 김정숙동지께 얼마전에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보고서야 보천보전투에 대해 료판적으로나마 알게 된 때여서 별로 편집계획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을 나무랄 대신 지금까지 보천보전투에 대해 쓴 글이 없었으니 그럴수 있다고, 자신께서 보천보전투에 직접 참가한 동무들을 보내주겠으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문편집을 잘 해보자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5월 30일,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신문사를 찾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한자리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그날 편집계획을 하나하나 알아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실을 주자고 한다는 의견을 긍정해주시면서 사실을 내야 보천보전투승리가 가지는 력사적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힐수 있고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과업도 구체적으로 강조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편서사시 《백두산》중에서 보천보전투장면에 대한 부분을 전체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천보전투에 대한 그림까지 내면 기념특집이 아주 특색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며칠내로 그림을 다 그려서 신문편집을 보장하겠다고 그 열성이 대단하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들이 준비한 미숙한 편집계획을 보아주시면서 그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

게 고스란히 안겨 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며 기자, 편집원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그러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신문편집방향을 토론할 때마다 동무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꼭 같은것이 참으로 신통하다고, 우리들의 생각이 매번 같은것은 우리모두가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워가려는 마음이 같기때문일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기자들은 글을 잘 써서 신문기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매 기사와 작품들에 종자를 심어주시며 창작적 열정을 부어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말씀에 고무된 기자, 편집원들과 미술가들은 보천보전투승리 12돐 기념특집준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바로 그러한 때인 6월 2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또다시 신문사를 찾으시였다.

그날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을 세심히 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일제와 싸울때에는 물론이고 나라가 해방된 오늘까지도 장군님을 형상한 그림이 없었는데 인민군신문사 미술가동무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내놓았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편집에서는 장군님의 정책적의도가 구현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림은 면중심 맨 웃단에 편집하고 이번 편집의 기본사상을 담아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의 산아**이라는것을 강조할수 있도록 구호 비슷한 표제를 큼직하게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정중히 모시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생동하게 반영한 그해 6월 4일부 군보는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다. 하지만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선인민군》신문의 갈피에 남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선행한 그 어느 력사적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수 없었던 최상의 사회적지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작가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되어야 한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란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말한다.》

《작가는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되어야 한다.

당의 충실한 방조자란 당의 의도와 구상,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심장깊이 새기고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당의 위업을 실천적성공으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협력군을 말한다.》

《작가는 당의 훌륭한 조연자로 되어야 한다.

당의 훌륭한 조연자란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활동과 혁명실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과 방도를 탐구하고 제기하는 당의 정열적인 사색가, 적극적인 보좌원을 말한다.》

《작가는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 되어야 한다.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란 당이 제시한 문예사상과 정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그것을 견결히 지지하며 온갖 반동적문예조류의 침습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당문예로선의 신봉자, 보위자를 말한다.》

《당문예로선의 적극적인 관철자란 당의 문예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드립없이 구현하는 철저한 집행자를 말한다.》

평론

단편소설의 매혹과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가

-올해 상반기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읽고-

천재규

소설은 재미있고 끌려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하지만 박력있는 구성미를 추구하는 단편소설인 경우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의 이야기흐름은 사람의 마음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매혹과 감동의 연속으로 시종 건인력있게 엮여져나가야 한다.》

과연 매혹과 감동의 연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론 여기에는 유일한 처방이 없다. 있다면 그것은 벌써 창작이 아닌것이다. 하지만 창작에는 결코 공인된 형상원리가 없는것도 아니다. 작품은 작품마다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지향이 공통된 사람들에게 공인된 형상생리와 형상묘리가 있기 마련이다.

상반기에도 소설가들은 이 문제해결에서 일련의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보여주었다.

생활탐구와 인생문제

상반기에도 창작된 성공한 단편소설들이 주는

강한 느낌은 생활에 대한 진지한 탐구정신이다.

생활이 있고서야 문학이 있는것이여서 생활을 홀시하는 작가는 없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태도와 립장, 생활탐구정신은 결코 한본새가 아니다.

단편소설 《어느 일요일에》(한웅빈 작, 6호)는 범상한 생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범상치 않는 사회적문제-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깃들 때까지는 어느 일요일도 진정한 일요일일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렬한 시대적자각을 안겨주는 작품이다.

이야기는 극히 평범한 생활에서 시작된다. 제대군인들이며 총각들인 광산합숙생들의 즐거운 토요일 저녁생활, 일요일은 더 유쾌히 보내자는 처녀합숙생들과의 약속, 사태에 막힌 도로구간을 열려고 새벽에 광산지휘부성원들이 비상소집을 하자 분명 기계화부대의 기동을 보장하기 위한 비밀행동일것이라고 예측하고 몰래 그 대렬속에 끼여드는 주인공들, 무너진 비탈길개통공사중 전쟁때의 우편가방의 발견, 그속에 있는 편지의 사연-

《...더는 이 땅에 전쟁의 위험도 미군놈들도 없

는 통일된 조국땅에서 진짜 일요일을 즐기요. ...》

주체39(1950)년 6월 24일 저녁, 토요일 그 저녁을 즐긴 편지의 주인공은 작업반에서 이튿날 야유회가 예정되어있었다. 일요일이었던것이다...

범상히 흘러오던 이야기는 여기에서 급전한다. 반세기전 전호에서 쓴 50년대 전선병사의 편지를 두고 작가는 마침내 주정을 토설한다. - 《이것은 우리조국의 1950년대가 오늘에, 우리 세대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러니 편지는 주인을 찾아온것이 아닌가고.

독자들 누구나가 늘 체험하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선군시대가 제기하는 사회정치적문제-통일되고 평화가 실현된 그날에 진정한 일요일을 즐기자는 생활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문제를 제기한데 이 작품의 독창적인 발견의 경지가 있다. 이것은 작가의 생활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결과에 얻어진 결실이다.

이처럼 창작실천은 작가의 생활탐구가 마땅히 생활속에 깃든 사회적인 문제, 인생관적인 문제의 발견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래야 창작에서 생활과 정치를 밀착시키고 형상과 사상을 통일시키며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전달할수 있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이 문제가 생활적으로 매우 진실감있게 해결되었다.

창작실천은 또한 작가의 생활탐구가 생활속에 체험된 본질과 진리의 탐구로 실현되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흔히 생활의 본질은 형상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생활의 진리는 형상의 철학성을 담보하게 된다.

토요일저녁 합숙호실에서 오락, 텔레비죤시청. 일요일의 휴식계획... 어찌보면 너무도 특색이 없는 의례적인 생활인듯싶다. 작가는 이 범상한 생활속에 체험된 본질과 진리를 탐구적인 안목으로 발견하여 현실적인 의의를 부여하면서 소설적형상으로 훌륭히 실현하였다.

토요일저녁의 휴식에 그토록 마음쓰는것은 제대군인총각들이 광산적인 혁신자들로서 월계획까지 앞당겨 끝낸 흥겨움때문이라는것, 지루한 병원생활에서 뛰쳐나와 호실동무들의 들뜬 기분을 미처 리해 못하는 친구를 두고는 휴식일이란 일하는 사람에게만 차려지는 《표창》이라는것, 결국 토요일저녁을 좋아하는것은 노는것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보람찬 로동의 한주일을 보낸 긍지와 환희에서 오는 고상한 정신문화생활이라는것 등의 형상적해명은 독자들로 하여금 범상한 생활에 깃든 그의본질적의미와 진리성을 깊은 정서적체험속에서 음미하게 한다. 더우기 화려한 일요일의 휴식계획을 한순간에 포기하고 《폭풍》신호에 스스로 호응하여 사태진 비탈자리에 직선도로를 내는 일에서 《불도젤》로, 《땅크》로 불리우며 한몫 단단히 하는 주인공들의 결패있는 행동세계에서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이 땅에서 미제를 기어이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고야말리라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정신적강렬성을 실감있게 보여준다.

창작실천은 작가의 생활탐구가 생활정서의 탐구, 형상묘리의 탐구로 실현되기도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노래와 열정, 로동의 희열로 충만된 주인공들의 성격미는 그대로 선군시대 인간들의 정신적특질을 그려보게 하며 작품의 량면적정서를 기초지어준다.

소설적이야기의 기본골격선을 이룬다고 할수 있는 주체39(1950)년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다는것과 반세기도 훨씬 넘는 기나긴 세월 수없이 맞고 보낸 그 일요일들처럼 범상히 맞게 된 일요일과의 대조, 전쟁때의 우편가방과 관련한 일화 등도 현실속에서 탐구된 실재성이 강한 형상수단들이다.

이 소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은 선군혁명의 기상이 내려치는 우리의 혁명적현실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현실공정의 열정과 관련된다.

(물론 우리는 소설을 대혹과 감동속에 읽히게 하기 위한 작가의 세련된 이야기꾸밈술을 배제하지 않는다. 지면상 여기서는 약하려고 한다.)

단편소설 《밝은 웃음》(김명진 작, 3호)도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흔적이 안겨오고 자기나름의 형상적몰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은근히 감심하게 되는 작품이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녀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더 잘 받들어나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우리 녀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일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이고 나라앞에 본분을 다하려는 뜨거운 심정문제라는것을 비교적 공감이 가는 생활화쪽으로 진실하게 밝히고있다. 자칫하면 범박하다고 할수 있는 생활소재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 인생관적인 문제로 승화시키고 거기에 선군시대 모습이 비끼게 형상화폭을 펼친데 이 소설이 거둔 성과의 비결이 있다. 그것은 제대군인인 부부가 《선군가정》을 꾸려나가려는 지향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소설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웃음, 거리와 직장에 차넘치는 녀성들의 밝은 웃음의 의미를 생활미의 견지에서 설득력있게 밝혔다. 그리하여 적들의 고립압살속에서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지향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미, 자랑찬 선군시대미를 발랄한 생활감정으로 잘 보여주었다. 이것은 작가가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시대미를 민감하게 감수하고 인간학적견지에서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진지한 생활탐구결과에 얻어진 귀중한 결실이다.

단편소설 《축복》(최치성 작, 4호), 《인생의 한여름에》(최치성 작, 6호)도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극적기대와 정서적공감속에서 형상을 펼친 읽히우는 작품들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축복속에 사는 삶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행복의 절정에 오른다는 심오한 사상적알맹이를 심고 가꾼 단편소설 《축복》은 주인공의 곡절있는 운명발전속에서 참된 인생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비교적 현실적감각이 짙은 작품이다.

주인공 김영심은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 준공식에 나오신 아버지수령님께 꽃을 달아드리는 무상의 영광을 지녔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고맙소. 조선의 훌륭한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한생에 대한 축복이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받아안았고 굳건한 마음의 기둥을 간직하고 살며 일하는 일군이기에 김영심은 일부 나쁜 놈들의 책동으로 경공업성 부상직에서 강직되어 도지방산업관리국 부국장으로 사업하는 마음쓰린 나날에도 인생의 그늘을 모른다.

다시 해밀될것이라는 부질없는 사람들의 뒤소리, 모욕당한 딸애의 지칭구...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그 모든 오욕들을 자기 홀로의 심적고충으로 이겨내며 오로지 지방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혁명과업수행에만 전념하는 그의 인생신념과 마침내 부상으로 다시 소환되는 그의 인생길은 독자들을 기쁘게 한다. 그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의 총복으로만 살려는 그의 정신세계가 아름다우며 언제나 고결한 의리로 참되게 살려는 그의 열망에서 진정이 느껴지기때문이다.

결국 작품에 대한 공감은 주인공의 정신미에 대한 공감이며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가의 주장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수 있다.

복잡다단한 혁명의 길에서는 곡절있는 인생길을 걸을수도 있다. 때문에 작가들은 그러한 인간들의 운명문제를 다루면서 곡절속에서 가꾸어가는 참된 인생을 론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문제는 곡절을 안은 인생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성을 발견하고 비판복적인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남다른 모색과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단편소설 《인생의 한여름에》는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걷는 두 인물의 대조와 대립속에서 사람은 사회와 집단,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무역국의 국장으로 새로 임명된 손경후와 처장으로 일하는 남태설은 군사복무도 한부대에서 하였고 대학도 함께 다녔으며 무역국에서도 상하급으로 함께 일해오는 막역지우이다. 두 가정사이로 인간적으로 친밀하다.

무엇이 그들사이를 버그러지게 하였는가. 그것은 개인주의적인생관과 집단주의적인생관에 기초한 서로 랑립할수 없는 인생관점과 활동방식이다.

특평광산에 쌓여있는 수만톤의 미광을 버력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무역국이 허리를 펴고 자신의 사업실적을 올리는 처장의 행위에 대하여 친구인 새 국장은 묵인할수 없는 현상으로 락인하고 강한 투쟁을 벌려 바로잡는다. 미광에서 《MV》합성첨가제를 추출하면 나라에 백배의 리익을 줄수 있기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주로는 지휘일군들속에서 찾아볼수 있는 사회적문제, 인생관적문제이다. 작가는 이것을 스쳐지날수 없는 현상으로 포착하고 조국을 위해 살며 일하고있는 우리 삶의 룰리에 관한 문

제로 승화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진실하고 아름다와야 내 조국이 흥하고 위대하여진다는 진리를 밝혀주었다.

비교적 극성이 강한 작품이다. 일정한 매혹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작품들은 레외없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의의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있으며 이야기도 기대감이 가게, 자연스럽고 굴곡있게 흐르고있다.

이러한 창작적 결실들은 결코 만족의 전제로는 되지 못한다.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우리의 혁명적현실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선군시대가 제기하는 철학성이 강하고 심오한 인생철리가 담긴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들고나오기 위해 생활을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며 불타는 창조적노력을 기울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시대성격, 시대정신

인간이 있고서야 생활이 있는것만큼 문학에서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해야 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리해되고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창작된 작품들에서 매양 매혹적이고 감동이 가는 성공적인 시대성격을 찾아보게 되는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룩된 성과가 더욱 소중한것이다.

상반년도에 창작된 단편소설들속에는 앞에서 지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시대성격이 인상깊게 안겨오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서 단편소설 《안해의 성격》(심남 작, 6호)은 비교적 긍정적인 교훈을 시사하여주는 작품이다.

제대군인인 수일의 안해는 평범한 농장원이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언제나 일감을 스스로 찾아 해제끼는 각강성이 체질화된 인물이다.

다른 분조의 나비알반이 나무잎묵음을 자기 스스로 바꿔주고 밤늦게 돌아오는가 하면 분조장이 허위보고한 논밭김을 마음에 걸려 밤에 혼자 매기도 하여 분조장을 《난감하게》 만든 일도 있다. 더우기는 대리분조장을 하는 며칠사이에 울봉산에 삭도를 놓아 저수지자리의 니탄을 운반할 때 담판 일판을 벌려나가는 놀라운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이 사건에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소설은 극히 평범한 이야기로 사건을 펼치고있지만 주인공의 남다른 자각을 지닌 개성적인 성격미를 선명히 드러낼수 있는 적중한 생활사실들인것으로 하여 인상이 깊다.

특히 소설의 이야기는 구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사적인 이야기라는 특성에 맞게 묘사문장의 묘미를 잘살려 읽을 맛이 있게 생활화폭을 펼치고있다. 이것은 사건위주의 꾸밈이 아니라 성격위주의 묘사원리를 살렸다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경험을 준다고 본다.

말로 전달하면 이야기의 진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도 읽고나면 감칠맛이 나는것이 소설이 아닌가싶다. 이것은 묘사문학의 생활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단편소설 《안해의 성격》을 읽고나면 확실히 여운이 남는 작품이다. 그것은 설새없이 일거리를 찾아 하는 성실성, 진취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발랄한 성품을 지닌 안해의 생신한 성격적매력과 많이 관련된다.

시대성격은 시대정신의 체현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울봉산삭도공사를 두고 우려하며 만류하는 남편에게 안해는 군대때 삭도를 놓고 진지공사를 하던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쇠바줄과 활차, 기동감 해결방도까지 신심있게 내놓는다. 모두 현실적이었다.

그는 군대나 사회나 다 같은 장군님의 품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고 항변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혁명적군인정신때문이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아이의 살뜰한 어머니로, 남편의 다정한 안해로, 농장의 진취적이고 조직력도 있는 실농군으로 형상화되었다. 지휘일군이 아니라 선군시대농장원의 전형을 창조하였다는 의미에서도 의의를 가지는 형상이다.

오늘의 현실물이 아닌 경우에도 시대성격, 시대정신의 구현은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더 어려운 과제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작중인물이 살고있는 시대모습과 독자들이 살고있는 현실의 요구와 지향을 다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단편소설 《영원한 포옹》(리일룡 작, 5호)은 나라도 민족도 왜놈에게 통채로 팔아넘긴 불법무도한 매국역적 리완용놈을 처단하기 위한 열혈청년의 애국적거사를 감명깊게 형상한 비교적 인상깊은 작품이다.

력사적소재에 의거하고있지만 현실물로 느껴질 정도로 이야기를 다감하고 정서깊게 펼쳐고있는 소설은 민족애와 조국애로 가슴끓이는 주인공의 성격미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흥미진진하며 인정의리적으로 매우 인상깊게 형상화하고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의 속박속에 짓눌리면서도 온갖 불의에 도전하면서 가난뱅이자 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설립해보려고 동분서주하는 청년(재명), 그러한 정의감은 목숨걸고 매국역적부터 처단하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한다. 마침내 그는 서울명동거리의 많은 군중앞에서 원한 맺힌 역적두목놈의 가슴노리에 민족의 분노로 복수의 칼을 박는 패거리를 단행하고 《자기가 비로소 웃으며 안해에게로, 겨레에게로 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영원한 포옹》의 길이었다.

작가는 주인공 리재명의 2년간의 거사준비과정을 그리면서도 그의 성격해명에 꼭 필요한 세부들만을 간결한 필치로 인상깊게, 재치있게 연결시키면서 주로는 거사전날에 있는 안해와의 인정의리적인 다정한 관계를 생활적으로 뜨겁게 그리고있다.

안해에게 자기 거사를 감추려고 무던히 애쓰는 남편, 눈치채면서도 《아무쪼록 몸을 조심》 하라고 속마음으로 원심을 쓰는 안해, 하루밤만이라도 안해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주려고 밥주발로

술까지 거나하게 마시며 익살을 부려보는 남편, 그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조용히 웃음짓는 안해... 소설은 부부간의 이러한 애무와 정을 깊이 파고들으로써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한 이렇듯 고결하고 뜨거운 사랑은 나아가서 민족애로, 조국애로 승화되는것임을 생활론리에 맞게 감동깊이 형상화하였다. 애국지성도 높고 정서도 깊은 고결한 성격미로 하여 부부의 형상은 오래도록 뇌리에서 사라질 줄 모르는 인상깊은 성공한 형상이다.

뿐만아니라 재명의 안해 인성의 형상을 통하여서는 외유내강한 조선녀성의 고결한 내심세계가 진하게 그려졌다는것이 뚜렷이 알린다.

보위성손님의 청탁에 따라 조선인민군소좌가 사랑을 이루어보지 못한 마음속의 애인인 레벤미술대학 류학생으로 나타났던 처녀에 대한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있는 단편소설 《금강산》(리웅수 작, 1호)은 지난 세기 50년대 영웅전사의 인상깊은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가렬치절한 전쟁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어깨에 화판을 메고 밤빛가죽잡바에 커다란 흙갈색의 안경을 끼고 나타난 미지의 처녀.

그는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사무치는 사랑을 안고 적후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자폭전사한 조선인민군 정찰군관처녀이다. 소설은 그의 숭고하고 영웅적인 정신미를 인상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지성과 숭고미가 흘러넘치는 청춘남녀의 아끼고 존경하는 조심스러운 교제관계는 이야기흐름에 기대감을 주면서 작품전반에 아름답고 풍만한 정서가 차넘치게 한다.

조국의 상징인 금강산은 아름답다. 그 조국-금강산을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지켜낸 인민군전사들은 더 아름답다는것이 이 소설의 형상적주장이다.

소설은 그지없이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미를 가진 인간들에 대한 열렬한 찬가로서 짙은 여운을 남겨주고있다. 이것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자폭정신은 오늘 선군시대 인간들의 정신세계에 련면히 이어지고있다는 산 증거로 된다.

정신적공감은 그에 대한 긍정과 지지, 그 정신의 재현의지를 의미하는것이다.

도식과 유형은...

시종 창조로 일관되어야 하는 작가의 활동은 매번 새롭고 독창적인 미의 세계, 인간세계를 펼쳐야 한는데 고심이 있는것이지만 반대로 거기에 작가의 남다른 보람과 자부가 있는것이다.

새롭지 못한것, 독창적이 못되는것은 작가의 창조활동과 인연이 없다. 그것은 도식이며 유형이다.

상반년도에 창작된 단편소설들가운데는 매혹과 감동을 크게 주지 못하는 작품들도 더러 있다.

우선 일부 소설들에는 이야기의 굴곡이 약하고 따라서 기대감을 주지 못하는 부족점이 나타나고있다.

단편소설 《버들꽃》(김정희 작, 1호)은 사랑하는 고향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그 땅에 선군시

대의 새봄을 안아오기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 세세대 관리위원장의 참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농업전선을 주공전선으로 선포한 오늘날의 절실한 형상과제인것이다.

그런데 소설은 진지한 서술적전달을 위주로 하면서 이야기를 섬세한 필치로 잔잔하게 수평적으로 끌고갔기때문에 공감에 약하다. 다시말하여 묘사에 력점이 없이 이야기가 평균주의적으로 흐르는 까닭에 생활적으로는 곡절이 있으나 형상적으로는 굴곡있게 그려지지 못하고있다.

인물형상에도 일련의 문제점이 있다.

주인공인 관리위원장은 농장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며 고생만 하는 인간으로 그려졌다. 현 난국을 혁신적으로 타개하는 진취적인 인물이 되지 못하고있다.

랑만이 없는 고달프기만 한 생활은 우리와 인연이 없다.

소설에서는 관리위원장으로서의 조직동원적인 측면은 구체적인 생활세부로 펼쳐보이지 않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로 일관되어있다. 이신작척도 중요하지만 지휘일군은 군중을 조직발동하는것이 더 중요하며 그것이 사명이기도 하다.

주인공남편의 형상에도 문제가 있다. 제대되어 대학이나 도시가 아니라 농장으로 돌아와 미생물 연구에 전념하다가 마침내는 불치의 병으로 맥없이 죽게 한것은 형상적으로 별다른 의의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주인공에게 고독과 고달픔만을 더해준다.

(죽음은 미학상 심각한 문제성을 안고있는것이여서 창작실천에서 언제나 심사숙고할것을 요구한다.)

단편소설 《우리 선동원》(황청일작, 5호)은 《일곱집마을》의 화목과 분조의 단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더잘 받들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선동원아바이의 진정에 넘친 성실한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150매를 전후한 비교적 긴 단편소설이다. 하기에 작가의 형상의도를 마음껏 살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어긋비슷한 생활이야기들로 대상을 엮바꾸어가며 이렇다할 굴곡이 없이 펼쳐나감으로써 작품의 정서적공감을 저하시켰다.

그리고 성격적인 인물은 11명, 장면인물은 6명, 화제속의 인물은 9명, 도합 26명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있다. 굳이 확률적수치를 따지게 되는것은 단편적양식의 특성을 일정하게 무시한 무리한 느낌이 들기때문이다.

이밖에 단편소설 《병사의 가정》(박성보작, 4호)도 새로운 맛이 적고 기대감을 주지 못하는 작품이다.

소설은 이웃구분대에서 복무하는 신입병사인 한고향 동창생을 휴식일에 만나게 하여주고 과일과 식사도 함께 나누고 사진도 함께 찍어 고향에 보내도록 적극 보살펴주는 지휘관들과 구대원들의 다심한 인정의리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중대는 가정중에 가장 값높고 자랑높은 병사

의 가정, 혁명의 가정》이라는 사상적알맹이를 밝히고있는 이 소설은 주장도 명백하다.

그러나 발전적이라기보다 많이 들어왔거나 목격해온 상식적인 생활세부들이 평면적으로 련결되고있다보니 감동이 적고 뒤가 뻔드름히 내다보인다. 단편적인 묘미를 살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덜 느껴진다.

상반년도에 창작된 단편소설들에서 도식과 류형화는 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우고 정서적흥분도가 희박한데서도 표현되고있다.

물론 형상에서도 논리를 무시할수는 없다. 성격론리, 생활론리를 떠난 순수한 감정의 세계를 상상한다는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하지만 본질과 진리, 법칙과 합법칙성의 일반화는 작가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독자의 몫이다.

단편소설 《론증》(황동선작, 2호)은 대동강에 흘러드는 바다물을 관개용수로 리용할 과학적방도를 밝혀내어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선군시대 과학자의 희생적인 노력을 그리고있다. 무게와 뜨거움이 실린 심장이 밝혀내지 못할 과학의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 진리를 해명한 작품이다.

수역론에 달하는 바다물을 관개용수로 끌어들이게 된것은 《그 어느 관개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신화같은 사변》임이 사실이다. 허나 이 《신화같은 사변》을 그린 소설은 정서적감동이 크지 못하다. 그것은 주로 다감한 생활의 빈약과 관련된다.

수리공학연구사인 주인공 리수남의 학술적실마리를 풀기 위한 고충과 사색세계 그리고 전문가 아닌 독자들에게 연구내용을 리해시키려는 지나친 학술적해설이 큰 변화없이 반복강조되고있다. 관리위원장과와 교제만 없었더라면 너무 생활이 결핍된 작품이 될번 하였다.

작가의 미학적주장은 어디까지나 독자에게 감성적으로 안겨지고 그것이 독자스스로의 분석, 추리, 일반화과정을 거쳐 리성적인 결론 즉 생활교훈적인 진리로 접수되어야 할것이다. 작가가 사건의 논리적인 전후사연전달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만큼 독자의 정서적인 감상몫이 적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들은 소설에도 시가 흐르고 음악이 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이다. 소설뿐아니라 모든 문학예술작품에는 마땅히 감정정서적숨결이 줄기찬 흐름으로 세차게 고동쳐야 한다.

×

매혹과 감동을 주는 명작을 창작하기 위하여 우리작가들은 현실속으로, 생활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생활속에서 문학을 찾고 선군시대 현실의 거세찬 박동을 심장으로 감수하며 현실속에서, 현실속에서 창작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자.

이 푸른 기슭에 오면 (외 1 편)

김재원

보게 되리, 이 푸른 기슭에 오면
바다를 막고 솟구쳐오른 대굴지의 서해갑문-
거기 바쳐진 우리 수령님 창조의 사색과
그를 떠올린 우리 장군님 담대한 기상을

알게 되리 여기 오면
위대한 그 사색, 그 기상 붉은기에 새겨들고
우리 병사들이 떨쳐온
그 결사관철의 정신을

듣게 되리 파도소리 ... 배고동소리
서해곡창으로 바빠도 흘러가는
정겨운 사랑의 물노래...
그 노래에 실려오는 곡식들의 기쁜 설레임소리

그리고 느끼게 되리 서해갑문에 오면
인간의 힘과 재능을 놀랍도록 자부하며
제 가슴속 어디선가에도 또 하나
거창한 창조의 기념비 솟구쳐 일떠서는것을!

갑문길을 걸으며

나는 걸어간다
진주물결 설레는 푸른 바다길로
자동차도 아니 타고
려객선도 아니 타고
천천히 천천히 ...

걸으며 천천히 걸으며
나는 생각에 잠기고싶다
20리 날바다우에 솟아오른
거창한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보며
그것을 떠올린 그날의 병사들을 추억하며

지금 모두 어데들 있는가
우리 병사들의 신념을 믿고
경애하는 장군님 굳히셨던 그날의 결심-
그 결심 불타는 가슴마다 새겨안고
얼음파도 헤쳐나갔던 영웅병사들

어데 있는가
날뛰는 격랑에 웃으며 몸을 던져
물속 깊이에서 혁명가요 높이

건설의 돌파구 열어가던
그날의 애젊은 용감한 잠수공들

입대하여 한해도 되기 전
그리도 빨리 의젓해지며
복잡다단한 생소한 건설공법 익혀가던
그날의 병사들
락동강을 헤쳐왔던 그날의 근위병들

조국땅 어디있든 그날의 병사, 군관들
얼마나 감회깊이 바라보라
여기 대동강하구에 펼쳐진 대인공호수를
서해곡창 적서가는 푸른 물줄기며
서해기슭으로 뻗어간 대륙환도로들을

그네들 지금 이 아름다운 기슭에
훈장달고 한줄로 정렬해 서있지 않아도
그네들 얼굴과 성격, 그들의 투쟁모습
푸른 하늘아래 기념탑으로 높이도 솟아있구나
김정일시대 빛나는 위훈의 탑으로 영원히!



금곡천의 마지막 사람

주종선

아버지의 일생은 실패로 끝났다. 색깔도 보풀이 인 한장의 자서전이 나에게 그것을 말해주었다.

그것은 무서운 진실이었다.

오래동안, 무척 오래동안 그 진실이 못견디게 나를 괴롭혀왔다.

하건만 운명은 나로 하여금 바로 그 진실에서부터 자기 생을 다시 시작할것을 강요하였다.

(이름없는 탐사대원의 지질조사수첩에서)

1

길을 잃은 탐사대원들은 비내리는 숲속을 헤매고있었다.

지질조사와 측량, 분석과 시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능공들로 무어진 이 자그마한 탐사집단은 하루동안의 렬차행군뒤에 어제 낮 북부내륙선 렬차에서 내렸었다. 이어 립산협곡차로 70리, 차겁게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또 그만큼 걸었으니 어지간히 지친 일행이었다.

지질연구사 한석은 대렬의 맨앞에서 묵묵히 숲을 헤치고있었다.

좀전에 묵은 가랑잎들이 떠내려오는 골짜기의 개울을 건널 때였다. 여름철에 벌치던 사람들이 버리고간듯한, 물가에 나뭇구는 꿀벌통 하나가 어쩐지 눈에 익었다. 바로 그곳이 몇시간전 자기들이 점심밥을 퍼놓았던 장소임을 깨닫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석은 그 사실을 자기 혼자만 알고있기로 마음먹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 맥빠진 몸에 비를 맞으며 걷고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행에게 알려질가봐 그가 꺼리는 또 하나의 사실은 자기가 모진 독감에 걸려 신고하고있는 것이었다. 지금 한석은 온몸이 확확 달아오르

고 뼈마디가 찌르는 고통을 참느라 이를 악물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때때로 가물가물 흐려지는 의식속에 귀속말같은 속삭임소리가 들려오곤 하였다.

《…애기엄마는 가고 또 갔다. 끝없이 멀고 험한 길이었어. 하지만 애기엄마는 기어이 가야 했거든. 왜냐구? 애기엄마가 가는 곳은 금곡천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깊은 산골이었단다…》

이건 누구의 목소리던가? 나에게 이토록 살뜰하고 친근하게 말해줄수 있는 목소리의 입자는…

한석은 신열속에 모대기면서도 쓸쓸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다. 그리고 사뭇 안타깝게, 절절하게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어머니, 이 아들은 지금 금곡천으로 갑니다. 어릴적어머니의 품에 안겨 옛말처럼 새겨들던 조상의 땅… 산과 산이 어깨걸고 하늘을 가린 곳, 저는 그 땅에 가려고 지름길에 들어섰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아직 지질연구사의 자질이 부족한탓일가요? 아니면 금곡천이 이 아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걸가요? 네? 어머니…)

×

금곡천은 우리 나라 북부내륙지대 맨 북단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립산마을이다. 아니, 정확히는 그 립산마을옆으로 흐르는 강의 이름이다.

한데 어찌하여 금곡천이라는 강이름이 지명을 대신하게 되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곳 사람들은 금곡천을 그저 강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이 사는 마을은 금곡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도에도 금곡천이 지명으로 올라있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이 고장이 한때는 맹수들만 씨글거리던 무서운 산골이었음을 상기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그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야 더 말해 줘 하라.

어느때부터 금곡천에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일설에 의하면 저 갑오년에 봉기했다가 패한 북두장군 휘하 동학군 장졸 몇이서 처자를 달고 관현의 눈을 피해 북으로 올라오다가 큰물에 길이 막혀 주저앉고만것이 그대로 금곡천의 첫 거주자들로 되었다고도 하였다.

《금곡천이라는 말은 낱알을 못먹게 되었다는 뜻이란다.》하고 어릴적의 한석에게 어머니는 말해주었다.

《낱알을 구할길 없었던 그들은 산짐승고기와 산나물, 산열매따위로 목숨을 이어갔다.》

어쨌든 그때부터 울울창창한 원시림속에 묻힌 그 땅이 세상에 적의를 품고 사는 인간들의 거처지로 되었다.

《창씨개명》에 침을 뱉고 소란스런 속세를 떠난 한 학자일가, 노름판에서 빚진 돈을 갚을길 없어 들고 댤 투전군, 《공출》 나온 면서기나부랭이를 때려놓히고 야밤도주해온 젊은 부부...

각양각색의 그러루한 인간들에게 외레 생기기 마련인 공통적인것이 있었으니 그들은 하나같이 외인을 꺼렸고 자기들이 버린 인간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영영 단념 한것이였다.

《대동아전쟁》이 터진 그해의 일이다. 메돼지몰이를 나갔던 젊은축들이 쾅쾅 열어서 빈사지경이 된 중년사나이와 그의 아들로 보이는 소년 하나를 업어왔다.

그들 부자는 마을사람들의 구원을 받고 사경에서 벗어났다. 아들에는 인차 털고 일어났으나 사나이는 쉬이 완치될것 같지 못하였다.

그는 한때 흉남일판을 들썩하게 만든 파업사건의 주동인물인 한명산이라는 사람이였다. 왜놈경찰에 잡혀갔다가 3년만에 뺨만 남아가지고 풀려났으나 재검속의 마수가 뻗쳐왔다. 한명산은 그새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난, 일절혈육인 아들 성욱이를 데리고 백두산쪽을 바라고 뛰었다.

기차로 가는것은 위험하였다, 그래서 일단 산길을 택했으나 무인지경에 들어 죽을번 했던것이다.

《백두산쪽엔, 그곳엔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는 애국자들이 있지요.》

왜 백두산쪽에 가려 했느냐는 물음에 사나이는 짝막히 대꾸하고 입을 다물었다. 꼭 내리감는 눈굽이며 관꼴이 두드러진 불편에 비분강개한 기운이 차갑게 번뜩이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이 귀틀집 한칸을 붙여지어 그들 부자를 살게 하였다. 거기서 한명산은 어린 아들의 구차스런 봉양을 받으며 그럭저럭 몸을 추세워갔다.

소란스러운 세월은 금곡천의 운둔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버린 바깥세상과 언제까지든 담을 쌓고 지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듬해 봄, 지하죽에 당포바지를 입은 왜놈지질기술자들이 나타나 강변에 천막을 쳤다. 며칠

후에는 완장을 두른 왜놈 《헌병》대의 호송밑에 《징용》인부 한무리가 끌려왔다. 인가와 멀리 떨어진 끝안 깊은 곳에 울타리를 치고 보초막을 높이 세운 막사안에 그들을 몰아넣고 굴을 뚫기 시작하였다. 남포질소리가 때없이 끝안을 들었다놓곤 하였다.

그뒤 또 대처에서 막벌이군들이 몰려와 금곡천 상류에 물동을 막고 갯을 뚫는 등 역사질이 벌어졌다.

달구지길이 열리고 함바와 술집들이 이마를 맞대고 늘어섰다. 금곡천은 더는 세상과 동떨어진 땅이 아니였다.

한명산의 아들 성욱에게도 일거리가 생겼다. 소년은 왜놈지질기술자들의 심부름군으로 채용된 것이였다.

온종일 무거운 탐사기재를 등에 지고 산밭을 땀고 피가 내배는 발끝에 목숨을 걸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암석을 까냈다. 왜놈이라면 이발을 가는 아버지에게 일공으로 자갈추기를 한다고 돌려대곤 하였다.

어느날 해질무렵, 성욱이가 피투성이 된채로 업혀 들어왔다. 소년을 업어온 조선인지질기사는 성욱이 암석을 까내다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였다.

여태 제입에 들어간 낱알이 어떻게 생긴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 한명산은 펄펄 뛰며 피흐르는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다.

《네 이놈! 쪽발이들에게 나라를 뺏긴것도 모자라서 쇠돌을 섬겨바치는 앞잡이노릇을 하느냐. 역적같은 놈!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쫓겨난 아들은 강변에 나가 상처를 씻고 밥이 되기를 기다렸다. 여둑이 깃들자 소년은 왜놈천막에 새어들어가 여태 자기가 따다 바친 암석시료들과 지질조사자료들을 몽땅 안고 나와 강물속에 처넣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이 나타나지 않자 한명산은 근심에 싸였다. 닷새째 되는 날 밤에 성욱이를 업어왔던 조선인지질기사가 찾아왔다.

《저는 지금 피해다니는 몸이 되였습니다. 왜놈들이 지질자료랑 잃어진걸 두고 나까지 의심하는 모양인데 제 보기엔 이 집 아들이 한 일같군요.》

기사는 먼지가 뿌영게 오른 도수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성욱이는 절벽에서 굴러난게 아니였습니다. 놈들이 요구하는 암석대신 왕청같은걸 따다 바치곤 했지요. 교활한 왜놈들이 망원경으로 죄다 지켜보는걸 모르고. 그러다 들켜서 못매를 맞은겁니다.》

아버지 성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면서 그 애가 하도 부탁하기에...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더 말해 뭘하겠습니까. 성욱이 아버지가 때릴 건 아들이 아니라 이놈이올시다. <징병>을 피해 구차한 밥줄이나 잇자구 이 노릇을 했으니...》

젊은 기사의 얼굴에 빠져진 회오의 그늘이 드리웠다.

떠나기 전에 그는 품속에서 푸른 점들이 박힌 돌멩이 세개를 끄집어냈다.

《왜놈들이 찾은건 이겁니다. 이 광석을 찾느라고 <징용>인부들까지 끌어들여 땅을 두지고있는겁니다. 하지만 이걸 찾긴 험치 않을겁니다.

저도 여기 금곡천강상류쪽에서 이걸 얻은 뒤 강이고 골짜기이고 발각 뒤졌지만 더 얻지 못했지요.

금보다 귀한 돌이니 잘 간수해주시시오. 다시 찾으러 올 날이 과연 오기나 하겠는지...》

《그날은 인차 올거요. 난 선생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소. 믿으시오. 당신이 조선사람이 틀림없다면.》

해방이 되었다. 금곡천마을사람들은 이들, 사흘이 지나도록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한밤중에 무시무시한 굉음이 골안을 들었다놓으며 때아닌 물사태가 강변의 함바와 인가들을 덮쳤다. 고역에 노그라졌던 인부들과 아이들, 녀인들이 부랴부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날이 밝은 뒤에야 왜놈들이 언제를 터뜨려 탐사용 수직갱들을 모조리 침수시키고 내뺀 사실이 알려졌고 뒤미처 해방이라는 꿈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낮에 밤을 이어 목이 터지게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혈육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려고 서둘렀다. 한명산의 단간방엔 날마다 터져나갈 지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명산형님은 성육이때문에 여길 뜨지 못하겠구려. 함께 갑시다. 해방이 됐는데 그 애가 아버지 간 곳을 모를라구요.》

한명산은 고개를 떨구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들생각을 하는것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언제가 터진 뒤 저 수직갱에서 일하던 인부들을 본이가 없으시오?》

무겁게 꺼내는 한명산의 말에 모두가 침묵하였다. 수직갱에서 일하던 인부들이라면 《징용》나온 사람들이다. 왜놈들의 삼엄한 감시속에 죄수들처럼 일하고있어 여태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었던것이다.

《패망한 왜놈들이 뿔때문에 수직갱을 물에 잠그어버렸겠소. 뿔때문에? ... 난 이걸 알기 전엔 누구도 이곳을 뜨지 말았으면 하오.》

갱우를 범람하는 물줄기를 돌리고 매몰된 갱입구를 헤치는데 보름이 걸렸다. 갱마다에서 눈을 부릅뜬채 숨진, 끔찍하게 부풀어난 시체들이 나왔다.

서른여덟구의 시신을 건져내어 양지쪽 산등성이에 나란히 묻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그네들의 명복을 빌어 술을 부을 때 해별에 꺼멓게 탄 한명산의 여윈 뺨으로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분하구나. 저 악귀같은 왜놈들의 씨를 어떻게 하면 말린단 말이나. 이대로는 여길 못떠나겠다. 왜놈들 보란듯이 이 금곡천을 가꿀데다. 그래야 이 불쌍한 사람들도 발파고 잠들게 아니냐.》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남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한명산의 지도밑에 터진 물동을

다시 쌓고 토장들을 정리하였다. 후날 그들속에서 금곡천의 첫당세포가 조직되었다.

해저물녘이 되면 한명산은 멀리 동구밖에까지 나와 오래동안 거닐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잃어버려진 안될 그 세개의 돌멩이를 간수한 피츄를 꼭꼭 눌러보면서...

《여보 기사, 당신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았으면 빨리 돌아와야 할게 아닌가, 이 사람아.》

×

기사는 끝내 왔다.

해방된 이듬해 봄. 산업국 전권대표가 금곡천 립산마을에 찾아왔는데 그를 안내해온 사람이 다름아닌 안경쟁이 젊은 기사였다.

그날 저녁 한명산의 집에 당원들이 모였다. 전권대표가 이 금곡천아근에 귀한 보물이 묻혀있는데 그걸 찾아야 한다고 한바탕 연설을 했다.

사람들은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불안고 새파랗게 젊은 전권대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싸웠다는 항일빨찌산출신인 그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명산은 유지에 싸고 또 험겔으로 동인 돌멩이 세개를 풀어내놓았다. 안경쟁이기사가 내준 확대경으로 번갈아 돌시료들을 들여다보았다. 얼핏 보면 길가에 텅구는 조약돌과 다름없는 그 돌가운데 깨알만 한 파란점들이 박힌 광석이었다.

바로 그 파란 점들이 금보다도 값진 보물이라고 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세월에 우리는 이런 수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돈이 없고 무기 없는 우리 민족은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은자중에

네 아버지 그가운데 한사람이다>

그 피바다의 노래를 부르며 불에 타고 목이 찢긴 조선민족이였습니다. 살 곳이 없어 이 무인지경으로 쫓겨와야 했고 <징용>에 끌려와 참혹한 노예로동을 해야 했고 무참히 생매장 당해야 했습니다.

손에 들 무장이 없어 맨주먹으로 눈물만 씻어야 했던 우리 인민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왜놈의 무장을 빼앗아쥐고 싸웠습니다. 바로 이 광석은 조국의 국방공업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광물입니다. 기사선생, 광석이름이 뭐라고했던가요?》

기사가 알아듣기 힘든 꼬부랑말을 길다랗게 번저놓자 전권대표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어렸다.

《가만, 그게 좀 까다롭다. 이제부터 노상 입에 올려야 할텐데...

우리 식으로 이름부터 고치고말시다. 참, 청석이 어떻습니까? 푸를 청, 돌 석자를 놓아서.》

모두들 찬성했으나 전권대표는 다시 머리를 긁적거리더니 《이왕 고치는김에 부르기 좋은 우리말로 <푸른 돌>이라고 합시다. <푸른 돌>, 어떻습니까?》

《푸른 돌》 개발은 이렇게 첫걸음을 떼었다. 그 밤으로 탐사작업대가 무어지고 책임자에 한명산, 기술지도에 안경쟁이 지질기사를 내세웠다. 그때 자그마한 돌 세개가 수십년을 내려오며 술한 사람들의 운명에 헤아릴수 없는 곡절을 들춰우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전권대표는 금곡천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한명산의 집에 묵으면서 그 파묵하고 외로운 사나이를 베풀어주곤 했다.

그는 해방전에 집을 뛰쳐나간 한명산의 아들 성욱을 찾기 위해 술한 품을 들였다.

첫눈이 내리는 초겨울 어느날, 그는 끝내 성욱을 데리고 금곡천마을에 나타났다.

부자간의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명산은 그해의 마지막때목을 타고 금곡천을 떠났던 것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전에 다녀오겠다고 했다고 하였다.

그가 왜 갔는지 알게 된 전권대표는 억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였다.

한명산은 돌아오지 못하였다. 미리 말한다면 그는 《푸른 돌》 개발집단의 첫 희생자로 되었다.

전쟁이 터지자 대학에서 공부하던 한성욱이도 총을 잡았다. 대전이 해방된 그날 초연에 그슬리고 땀에 젖은 공병하사 성욱은 분대원들과 함께 눈에 달이 떠가지고 시내의 술집이란 술집은 모조리 뒤지고 돌아갔다. 마침내 성욱이 찾아낸 술집에는 그가 잘 아는 런던장-전권대표가 한발 먼저 와있었다. 주인들이 도망친 빈 술집을 지키고 있던 화부령감이 한명산이 파묻힌 골짜기를 알려주었다.

봉분을 높이 쌓고 잔디를 입혔다. 조총소리에 새들이 날았다. 런던장이 품속에서 《푸른 돌》 하나를 꺼내 무덤가에 깊이 묻을 때 성욱은 어깨를 떨며 오열을 터뜨리었다. 거기서 성욱은 런던장으로 부터 아버지의 비극적최후에 대하여 들었다.

진논까비가 종일 퍼붓던 올찌년스러운 그날 저녁, 허기지고 지친 한명산은 마지막푼전을 털어 상우에 놓고 술집주인을 찾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소? 설마 빨갱이들을 피해서 온건 아닐테지요?》

술집주인이 부산을 떨며 술상을 차려놓고 묻는 말이였다.

한명산은 묵묵히 술병을 기울이고 안주를 씹었다.

《아들엔 돌아왔는가요? 성욱이 말이우다.》

《이제 오겠지, 살아있다면 말일세.》

《대관절 이 대전바닥엔 왜 나타났다소?》

《자넨 만나자구 왔네.》

《왜? 날 데려다 친일파루 목매달자구?》

《아니, 자네가 왜놈지질공사에서 회계원노릇을 하면서 지은 죄를 씻을 기회를 주려고 하네.

자네 왜놈들이 쓰던 지질도랑 그러루한걸 가지 구있다지?》

술집주인은 웃음을 싹 거두고 상앞에 바싹 다가앉았다.

《얼마나 내시려우?》

《얼마라니?》

《돈 말이요. 나도 이런 일쯤 내다보구 빼낸것 이니까. 그놈들한테서 빼낸게 어디 그뿐인줄 아오. 총도 있군 금덩이도 있구 없는게 없수다. ... 그저 값만 맞으면 그걸 숨겨둔 금곡천부근의 장소를 대주겠소.》

한명산은 술잔을 밀어놓고 생각에 잠겼다.

《돈이라... 애국심은 돈으로 계산 못하네.》

《원, 애국심은 뭐 말라빠진거요. 난 그걸 지옥 속에서 훑쳐냈수다. 왜놈들이 물동을 터뜨려 인부들을 몽땅 물귀신 만들 잡도릴 합디다. <헌병대>의 지시라면서...》

《그러니 그놈들 흉계를 진작 알고있었던 말이 지?》

한명산은 주먹으로 술상을 내리쳤다.

《알다마다요. 나까지 죽일 잡도리였던거요.》

《네 이놈.》

한명산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술집주인의 목살을 움켜쥐었다.

《그걸 알면서도 저만 살겠다고 들구 뛰었던 말이 지. 그통에 돈 벌 생각까지 하구. 이 너절한 놈아!》

식탁이 넘어지고 술병과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네놈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죽었느냐. 너 이제라두 사람질 하겠거든 금곡천으로 가자. 가서 네 눈으로 푹푹히 봐라. 너 가겠니, 안 가겠니. 대답을 해라.》

귀청을 찢는 총소리가 울렸다. 한명산은 흠칫 놀라며 굳어졌다. 별걸게 피가 내배는 가슴앞살을 움켜쥔채 눈을 부릅뜨고 《이 불쌍한것아...》

하고 씹어빨고는 그대로 나가 넘어졌다.

《내가 왜 가? 돈이나 죽음이나, 세상이란 그제다야. 다란 말이다.》

술집주인은 입에 거품을 물고 혈떡거렸다. 그리고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

1950년 가을, 체포된 《푸른 돌》 개발조 당원들은 자기들이 갇힌 탐사갱속에서 마지막당회의를 열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세포위원장의 말이였다. 《놈들이 우릴 끌어낼거요. 우리한테서 《푸른 돌》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쥔수 없다는걸 안 이상 우릴 더 살려둘리 없소. 그렇다고 고스란히 다 죽어야 하겠는가!》

어둠속에서 열기편 눈빛들이 부딪쳤다. 세포위원장은 막장 한구석으로 더듬어갔다. 거기에 탐사조의 유일한 비당원인 안경쟁이기사-기술지도원이 누워있었다.

《이 사람, 기사! 자는가?》

《말씀하십시오. 저도 각오가 돼있습니다.》

《아니, 동문 그 각오를 버려야겠소. 그럴 권리가 없단 말이요.》

<푸른 돌>을 잊었는가? 우린 다 죽어도 동무만은 살아야 하오. 젠장, 울긴 왜 우는거요. 이견당세포가 동무에게 주는 마지막과업이란 말이요.》

날이 새기 전에 기사는 구사일생으로 갱을 탈출하였다. 그를 구출하기 위해 세명의 당원들이 희생되었다 나머지 동지들은 사형장에 끌려나갔다.

이리하여 《푸른 돌》개발조에는 한사람만이 남았다. 그 치떨리는 엄혹한 가을밤 죽음의 폐경속에서 당원들에 의하여 삶으로, 가장 책임적이고 비장한 삶으로 내던져진 젊은 기사였다.

그때로부터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이 가을날 《푸른 돌》을 찾아 금곡천으로 향한 이 탐사가 조가 비내리는 산중에서 길을 잃었던것이다.

2

한석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었다. 제때에 아이들이 아버지자랑을 할 때면 마치 누구한테 억울하게 짝 떠박질리우기라도 한듯 노엽고 서글퍼져서 공연히 풀대같이 가냘픈 어머니에게 생떼를 쓰곤 하던 그였다. 그런 때면 어머니는 강변에 손수 심어 가꾼 수수를 망에 갈아 지짐을 부쳐주곤 했었다.

지금 한석의 눈앞엔 먼 복면 압록강기슭, 화학공장공업시험소 트랙이 선히 떠오른다. 줄당콩넌출이 한껏 어우러진 그 트랙에 기름다는 냄새를 풍기며 고요히 떠돌던 연기, 풍로에서 피던 빨간 불빛...

뚝자리를 깔고 었드린 어린 석이는 군침을 삼키며 지짐이 어서 익기를 기다린다. 기름이 뽀질 뽀질 내뿜은 수수지짐을 저가락에 꿰들고 호호 불며 정신없이 먹다가도 언뜻 눈을 들어 쳐다보면, 그러면 발깃하니 익은 얼굴에 인자한 웃음을 담고 풍로우의 지짐이 다 타도록 아들을 굵어보던 어머니의 눈빛!

그런 때면 어린 마음에도 외로운 어머니를 괴롭힌 낮의 일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벌렁 나가 누우며 어머니의 무릎을 당겨 베고는 옛말을 해달라고 석이는 졸랐다.

이것이 그 시절 그가 어머니에게 용서를 비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던가. 다시는 돌아올길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줄수 있는 사랑의 전부가 아니었던가...

선선한 밤기운이 트랙의 기름냄새를 죄다 걷어가고 고요가 깃든 밤, 나직나직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름답고 신비스런 동화의 구절마냥 소년의 어린 녀의 토양우에 봄풀처럼 연한 싹을 틔우며 차분히 자아들었다.

《...애기엄마는 가고 또 왔단다. 끝없이 멀고 험한 길이였어. 걸음마다 거미줄이 얼굴에 휘감기고 굶주린 짐승들이 앞뒤로 싸다니며 으르렁거렸어. 그 무서운 숲속길로 애기엄마는 해종일 걸었던단다.

왜 갔느냐구? 그 엄마의 잔등엔 아직 이름을 짓지 못한 애기가 잠들고있었거든.

애기엄마가 가는 곳은 금곡천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깊고깊은 산골이었던단다. 거기서 이제

애기의 이름을 지어주어야 할 아저씨가 일하고있었지.

그 아저씨 용감한 지질조사원이었던단다. 일생을 <푸른 돌>이라고 부르는 광석을 찾는데 바치기로 결심하고 나선 홀룡한분이었어.

늘 집을 떠나 살았지. 나라에 아직 없지만 꼭 찾아내야만 하는 <푸른 돌>을 위해 아저씨 사시절 눈비를 맞고 험한 벼랑을 뚫으며 해와 달을 보냈단다.

생각해보렴, 비내리는 밤. 장마로 불어난 강변의 모닥불에 젖은 옷을 말리며 구운 강냉이 한이삭으로 끼니를 에울 때 그 아저씨라고 왜 도시의 자기 집 아래목이, 더운 밥 한그릇이 그림짓 않았는지.

하지만 아저씨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구나. <푸른 돌>을 찾기 전엔 쉴 권리도, 티끌만 한 행복을 누릴 권리도 없는 아저씨였어.

지친 몸을 끌고 애기엄마가 찾아갔을 때, 그때 아저씨 초막에서 온통 돌가루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절구질을 하고있었던단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너무도 뜻박이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아저씨였어.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거리다가 애기를 보자 눈이 휘둥그래져서

<가만, 저 등에 업은게 우리 애가 아니요?> 하는게 아니겠니.

애기엄마는 눈물이 솟구치는걸 애써 참으며 <애기이름을 지어달래러 왔어요.>했지.

아저씨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 고개를 떨군채 머리를 싸쥐고 긴숨을 내쉬었던단다.

<용서하오.>

떨리는 손으로 애기를 받아안은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오래도록 애기를 보고 또 보았던단다.

<애기이름을 석이라고 지읍시다. 한석이라고. 애야 석아! 너도 이담 지질기사가 되거라!>

줄음이 말짱 달아난 아들은 별똥 일어나 어머니의 품에 다가들었다.

《난 알아! 아버지야! 그 아저씨... 쳇, 어머니, 맞지?》

《맞구말구. 옹쿠나. 석아, 너도 꼭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알겠느냐...》

그런 밤, 그런 나날을 거쳐 한석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소중한 감정들이 자리잡았다.

바야흐로 소년시절이 무르익어가는 봄날.

《학생들앞에는 광석표본이 각각 열두개씩 놓여 있습니다. 광석의 이름, 매장지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 광석인가를 5분내로 알아맞히시오.》

한석은 도적인 학과경연에 참가하고있었다. 그는 큰숨을 내쉬며 책상앞에 주련이 놓인 돌덩어리들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까짓, 식은죽먹기였다. 집에는 대학강좌장을 하는 새 아버지가 생일기념으로 준 옹근한조의 광석표본함이 있었다.

그날 저녁은 명절이었다. 또다시 트랙에 기름타는 고소한 냄새가 떠돌고 풍로의 빨간 불빛이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을 비치고... 수수지침의 그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한, 이루 말못할 그 맛이 소년의 넋을 빼앗았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이 열두살소년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긴 운명적인 밤으로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잠자리를 퍼주고난 어머니가 오래도록 들여다보던 사진첩, 그때 석이가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훑쳐본, 낮에 타온 자기의 상장과 나란히 어머니의 손에 펼쳐진 퇴색한 종이 한장...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뒤 한석은 장농을 열었다. 그리고 그 호기심나서 건딜수 없는 종이장을 사진첩째에서 끄집어냈다. 하여 그는 난생 처음 자서전이라는, 대관절 어디에 소용되는지 알수 없는 천아버지 한성옥의 필적을 읽게 되었다.

아들앞에 펼쳐진것은 용감한 탐사대원의 고난과 시련에 찬 위훈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당원-지질기사가 당과 국가앞에 끼친 막대한 손해와 그에 대한 뼈저린 후회였다.

설비와 자재, 로력의 끝없는 탕진, 사고와 인명피해...

《오늘까지 내가 <푸른 돌>을 찾기 위해 탕진한 그 모든것은 분명 조국앞에 최악으로 된다. 그 최악은 <푸른 돌>을 개발해내는것외에는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수 없다.

나는 생각한다. 애국은 비단방석에 앉아서 할수 없는것이라고. 나의 경우엔 더욱 그러한것이다...》

짜릿한 상실의 아픔이, 무서운 공포감같은것이 전류처럼 소년의 온몸을 타고 흘렀다. 누렇게 색이 바랜 종이장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멀어져갔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뜬눈으로 지새는 밤, 소년은 울면서 맹세하였다.

아, 자식을 숙여오신 어머니시여,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을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자서전을 쓰지 않을것입니다...

잊을수 없는 그밤에 한석의 소년시절은 끝났다.

바람이 터지고 비줄기가 굽어졌다. 투닥투닥 비발이 락엽을 두드리는 소리, 우우- 광란하는 바람에 숲이 태질하는 소리... 하늘땅이 온통 아우성으로 짹 찬 그 인적없는 산속에서 탐사대원들은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날은 이미 어두운지 오래다.

3

그 시각, 지질연구소 부소장 전일은 자기 방에서 금곡천지형도를 마주한채 불안에 싸여 있었다.

이틀전에 떠나보낸 선발대로부터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지 못했던것이다.

지금 그의 눈길은 벽에 걸린 지형도의 철도역으로부터 금곡천까지의 180리구간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저 구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가?

사고라도 생겼는가, 아니면 길을 잃었는가?...

문득 선발대가 떠나기 전 자기가 아들에게 한 말이 아프게 뇌리를 쳤다. 그때 선발대를 책임지게 된 한석은 연구소에서부터 금곡천까지 배스를 타고 가겠다고 제기했었다.

《지금이 어느때냐, 시추기 한대가 한주일 가동할수 있는 연유를 달라?

기차에서 내리면 180리다. 걸어서 가거라.》

그는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아연한 표정을 놓치지 않고 안심잖아 평소에는 엄두도 못냈을 말을 덧붙이고말았다.

《꺾어봐야 해. 금곡천은, 그곳은 네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할 땅이야.》

사실 그 말은 안해도 되는것이였다.

아직은 어려운 시절이였다. 조국이, 인민이 《고난의 행군》의 정점에로 치달고있었다.

어찌 한석이라고 그걸 외면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들은 흔연히 떠났던것이다.

부소장은 책상앞으로 돌아왔다. 지금 그의 책상우에는 이번에 선발대를 금곡천지구로 파견하게 만든 한통의 문건이 놓여있다. 바로 금곡천마을에서 산림감독원으로 일하는 한 로인이 당에 올린 두툽한 청원편지였다.

한때 학계에서 《푸른 돌》이라고 부르던 회유광석을 찾기 위해 지질전문가들을 파견해줄것을 편지는 절절히 호소하고있었다.

《푸른 돌》은 세계적으로도 몇개 나라에만, 그것도 극소량으로 포함되어있는 매우 희귀한 광석이다. 다른 나라 학계들에서는 그 광석을 가리켜 《유혹의 돌》, 《마귀의 돌》, 《악마의 돌》이니 하는 따위로 부른다. 찾으면 일확천금이나 못찾으면 일생을 망치기 쉬우며 그 광석을 찾는데 한번 발을 들이면 거기 빠져서 영영 발을 빼지 못한다는 개탄과 경교가 깔린 말이다. 세상은 《푸른 돌》탐사를 둘러싸고 빚어진 피로 물든 비화들도 기억하고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아직 그 광석을 찾지 못하였다. 오래전부터 애써왔지만...

편지의 주인은 이 모든것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같았다. 그 로인은 만약 우리 나라에 《푸른 돌》이 있다면 그 매장지는 틀림없이 금곡천지구일것이며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자기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것이라고 쓰고있었다.

매우 신중히 타산된 설비와 로력일, 자재명세까지 첨부하였다. 즉 시추기 몇대, 내산뿔프 몇대, 유압식굴착기 등... 계속하여 자기로 말하면 전후에 학위를 받은, 그때로서는 그리 흔치 않은 지질전문가들중의 한사람이였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고 부언하였다.

편지는 길었다. 지표계산자료, 지구물리학적인 분석과 예상되는 광상규모...

부소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소연해지는 비소리가 저녁무렵의 고요를 흔들며 방안으로 새어들고있었다.

그는 긴숨을 내쉬며 움켜쥔 주먹우에 머리를 무겁게 얹었다.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가?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으로 하루를 보내고난 뒤면 항용 찾아오곤 하던 가슴뿌듯함과 그 말뭇할 충족감은 어디로 갔는가...

문득 지금 룡양소에 가있는 안해생각이 났다. 안해는 화학공학기사였다. 그 녀자에게 있어서 전일은 첫 남편이 아니었다.

저 멀리 북변, 압록강기슭의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유독성폐수를 정화시켜 맑은 물로 만드는 것이 처녀시절부터 품은 그 녀자의 꿈이었다.

수십년세월을 압록강의 폐수속에 행구며 고심참담히 쏟아부은 고초와 노력을 무엇으로 헤아리랴.

그 안해와 만난 뒤 고집이 세고 장난이 세찬 아들 석이는 이붓아버지인 전일의 손에서 컸다.

아이를 남편의 손에 맡겨버리고 집을 떠날 때마다 안해는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출장가는 날자를 자꾸만 미루곤 했다. 그러면 전일이쪽에서 안해를 쫓아보내다싶이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당장 떠나오. 당신에겐 물리설 길이 없다니까. 애, 석아. 네 엄마가 췌덴지고 오는 날엔 우리 문을 닫아걸고 들어놓지 말자꾸나.》

《밥두 주지 말구!》 아들녀석도 이붓아버지의 편을 들다가 엄마한테 엉치를 얻어맞았다.

그 아들이 커서 한다하는 지질연구사로 성장한 지금 드디어 안해에게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던 것이다.

《정화된 폐수속에서 한달째 물고기가 살고있음.》

파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면서 안해가 쳐보낸 짝막한 전보문은 머리 흰 근엄한 사나이를 울게 만들었다.

지금 지그시 내리감은 전일의 눈앞에 룡양 떠나기 전날 뭔가 애원하듯 간절한 빛을 담고 쳐다보던 안해의 눈이 떠올랐다.

《저... 금곡천에 선발대를 파건한대지요?》

안해의 말에 전일은 한순간 흠칫 놀라 굳어졌다가 《참, 당신은 모르는게 없구려. 그런데?》하고 열결에 되물었다.

안해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래 말이 없는 녀자였다. 대신 표정이 풍부한 눈을 가지고있었다. 일찌기 말을 대신할줄 아는 그 다감한 눈빛이 그때 전일이라는 로총각의 가슴을 두드린건 아니었던가...

안해는 묵묵히 쳐다보고있었다. 초볼처럼 따듯한 빛을 뿌리며 간절히 타는 그 눈빛의 언어를 읽고났을 때 전일은 목은 상처의 아픔같은것이 떠끔하고 되살아나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모진 아픔이었다. 안해는 금곡천을, 정확히는 그곳에 묻힌 한석의 친아버지 한성옥을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그밤 전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금곡천, 《푸른 돌》... 그것은 틀림없이 전일에게 있어서, 또

안해와 아들 한석에게 있어서 목은 상처였다. 어느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공민적량심이 진 빛이였다!

...벌써 서른해가 흘렀다. 그때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전일이가 금곡천지구로 간것은 순수 우연이였다. 현지에 나가있는 룡해그루빠에서 지구물리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방조를 요구했던것이다. 모든것이 그 우연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때 《푸른 돌》개발은 엄중한 실태를 빚어내고있었다. 막연한 탐사전망과 빈번한 사고, 쏟아부은 국가자금의 낭비... 지질조사원 한성옥이 법적체재를 받게 되리라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고있었다.

협의회는 저녁까지 계속되였다. 온갖 비난과 질책, 날이 선 질문들... 전일이가 한석의 친아버지 한성옥을 처음 본것이 그 협의회장에서였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 그 사람은 그때 회의실 맨 앞줄에 앉아 들썩하니 치켜올린 어깨죽지속에 머리를 파묻고있었다.

그는 거듭되는 재촉에 못이겨 뜨직하니 일어섰는데 막상 입을 열자 뜻밖에도 퍼그나 류창한 언변으로 자기를 변호해나섰다.

《태양의 질량은 초당 400만톤씩 줄어들고있다고 합니다. 타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 가설이 진짜라고 칩시다. 그래도 지난 20억 년동안 태양은 자기 질량의 7천5백분의 하나를 소모한것으로 됩니다. 결국...》

《가만, 그러니 아직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된다는거겠소?》

관리국일군의 물음에 이어 누군가 책상을 탕! 치며 격하여 부르짖었다.

《그게 공화국공민이 하는 소리요? 동무가 그 7천 5백분의 하나를 위해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리는걸 본 사람이라면 그런 뻔뻔스런 소리 못할거요!》

《외국류학이 공민의 표징을 갖추는데 방해가 된다는건 어디서 배운 견해인가요? 류학은 그때 우리가 받은 당적 임무였습니다.

락동강을 피로 물들이며 건넌던 우리가 왜 눈물을 뿌리며 돌아서야 했습니까? 총이 모자라서, 모자라서...》 한성옥의 목소리는 격하게 떨리다가 문득 끊어졌다.

장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드리웠다.

《늘 저런 식이요. 저 입심을 누가 당하겠소.》 전일의 결에 앉은 연구소 책임일군이 소곤거렸다.

《저 동무의 안해도 연구사인데 그 녀자도 자기 연구과제때문에 늘 현지에서 살고있다고. 어린 아들에는 여기 립산사업소 당비서네 집에 얹혀있지. 저런식으로 탐사대를 추동하고 간부들을 설복하여 10년째 이 일을 끌어오고있단 말이요.

더 이상 내버려두면 저 사람은 일생을 망치고 마오.

<푸른 돌>이란 그런거요.》

그때 한성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푸른 돌》을 찾지만 하면 조국은 우리 탐사집단이 소비한 7천 5백분의 1의 몇백배로 부

강해질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찾지 못하게 된다면?》

《찾아내는것보다 더 힘든건 그걸 포기하는겁니다. 만약 그가 진짜 공화국공민이라면 말입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고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운 수재가 썩고있소. 《푸른 돌》이 문제요.》 전일의 곁에 앉은 연구소 책임일군이 또 말을 건네었다.

《저 동무와 말 좀 해보지 않겠소. 《푸른 돌》과 헤어지라고, 그러면 연구소에 올려다 《푸른 돌》 개발보다 더 무거운 일감을 맡기겠다고, 중히 써주려한다고 말ियो.》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당부하였다.

《학술적인 논쟁을 펼 생각은 하지도 마오. 그런 입씨름을 해선 꺾지 못하고.》

저 사람을 욕심내는대가 많소. 꼭 부탁하오.》

전일은 밤이 펴 깊어 강변의 초막으로 찾아갔다. 한성옥은 대뜸 반기며 손을 잡아 초막안으로 이끌었다.

《저녁식사전이지? 전강녕이죽을 맛본적이 있소? 없다. 거 마침이구만. 여보,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른다는게 바로 이거요.》

한성옥은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강녕이죽을 범랑식기에 퍼담으며 부지런히 말을 이었다.

《가을에 이삭채 찌서 말렸던걸 절구에 찧어 곱질을 버리고 죽을 쑤다오. 당콩까지 넣어서 말ियो. 이젠 립산당비서네 집에서 갖다준거요. 거 웃지만 말구 좀 나왔구려.》

단둘이 앉으니 여간 활달하고 푸수한 사람이 아니었다. 첫마디부터 툭툭 치며 트고 지내자고 다가드는 판이었다. 해별과 바람에 꺼묵하니 그윽은 길숨한 얼굴에서 선량해보이는 호남아의 눈이 노상 웃고있었다.

죽을 들면서 초막안을 둘러보았다. 초라하였다. 철이 벗겨진 현미경과 시약병들, 구석에 놓인 칼도마우에 포개놓은 범랑식기들… 호화로운 금빛장정의 원서들이 초막안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자기의 체모를 빼기듯 쌓여있는것을 제외한다면 여느 산골 솟구막 비슷한 꼴이었다.

《늘 이렇게 사오? 여기서?…》

《보다싶이… 아니, 왜 그런 눈으로 날 보시오? 혹시 날 동정이라도 하는게 아니요?》

보다싶이 이렇게 살고있소. 10년째 이 꼴로 지내느라니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런 눈으로 날 보군 하오. 내겐 이 이상 더 바랄게 없는데. 제 하고싶은 일을 하는데도 말ियो.》

한성옥은 물그릇을 권하며 껄껄 웃었다.

전일은 착잡한 심정으로 그를 주시하였다.

이 사람은 지금 허세를 부리고있는것인가? 10년째 아무 결실도 없는 일에 자금만 낭비하고 비난을 받고 초막에서 대충 끓여먹으며 지내다나니 자존심만 속에 잔뜩 틀고 앉았는가?…

아니, 그런것 같지도 않다. 저 순진하고 온후한 입가의 미소, 천성적인 선량함과 강단이 비낀 눈… 그 어디에 속되고 야비한것이 깃들 자리가 있

단 말인가.

의협심의 충동에서였던지 아니면 진짜 동정심 때문이였던지 그때 전일의 가슴속에서는 이 아까운 인간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었다.

한성옥은 전일의 말을 들으며 묵묵히 밥상을 치우고 그릇을 씻었다. 그러다가 연구소에 올려다 써주려다는 말을 듣더니 웃기 시작하였다. 초막기둥에 기대앉은채 한참이나 껄껄대며 웃었다. 그러더니 문득 웃음을 끊고 전일을 마주보았다.

《자, 어떻게 하시겠소? 숙소로 가겠소 아니면 이 허술한 초막에서 묵겠소?》

《?!…》

전일은 불시에 뺨을 한대 맞기라도 한듯 아연하여 상대를 쏘아보았다.

이건 대체 무슨 인사불성인가? 방금전까지 살이라도 베줄듯 살갑던 이 사람이 이런 무례한이였는가?…

《기사동무.》 전일은 애써 자기를 건잡으며 말을 이었다.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난 어디까지나 같은 지성인들로서…》

《됐소. 그 사람들한테 말하오. 이 한성옥이가 먹이를 쫓아 뜻을 꺾을 지경으로 타락하자면 아직 멀었다고…》

《그만두시오!》

전일은 자제력을 잃고 주먹으로 노전바닥을 내리쳤다.

《동문 지금 자기에게 선의를 품고있는 사람들을 모욕하고있소!》

《모욕?》

힐끗 쳐다보는 한성옥의 불편이 부르르 떨었다.

《지금 모욕을 느끼고있소? 이 금곡천에서?》

《금곡천이 어떻다는거요? 자기의 그 어떤 애국심을 설명하자는거요? 기사동무의 그 류다른 애국심때문에 얼마나 많은것을 잃고있소. 그 <7천5백분의 하나>에 대해선 더 말하지 않겠소. 자기 가정에 대해서나 좀 생각해보오.》

《우리 가정이 어쨌다는거요?》

《여보, 애국심이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요. 그런데 동문 지금 제집 식구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있지 않소. 이런 말하긴 안됐소만.》

그때 전일은 분명 그렇게 말했었다. 일생을 두고 자기를 괴롭히는 후회의 첫장을 그렇게 번졌다.

×

비극적인 사건은 전일이 대학에 돌아온 뒤에 일어났다. 지질조사원 한성옥이 시추현장을 덮치는 산사태로부터 설비들을 구원하다가 그만 잘못되었고 금곡천의 탐사로력과 설비들은 전부 철수했던것이다.

한달이 지난 뒤 전일은 금곡천으로 갔다. 다시 가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를 한성옥의 피가 뿌려진 땅으로 떠밀었던것이다.

차거운 가랑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올씨년스러운 저녁이었다. 발길은 저도 모르게 강변의 초막으로 그를 이끌었다. 주인을 잃고 쓸쓸한 기운이 도는 초막안에 들어가 앉아있느라니 가슴이 미여 질듯 한 회오가 끝없이 차올랐다.

파연 무엇이 나를 이리로 떠밀었는가? 무엇때문에 가슴이 이다지도 찢기는가...

머지 않아 가버리게 될 사람에게, 《푸른 돌》이 아니었더라면 눈신 삶을 질주했을 그 사람에게 아픈 못을 박았다는 죄의식때문인가.

아니, 그런 애잡잡한 감정에 비할바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여기로 떠민것이었다. 내가 그의 가정을 거들며 타매했을 때 그 사람의 입가에 어렸던 쓰거운 경멸의 미소, 그 미소와 함께 내던지던 말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동문 자꾸 무슨 애국심에 대해 말하는데 난 아직 비단방석에 앉아서 애국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소.》

그는 분명 그렇게 말했었다. 그는 틀림없이 나를 《먹이를 쫓아 뜻을 열백번도 꺾을수 있는》 그런 부류의 속물로 치부했던것이다.

전일은 그것이 억울했다. 자기가 적어도 그런 부류의 속물이 아님을 한성옥에게 영영 설명할수 없게 된 그것이 분하고 슬펐다.

그가 금곡천 립산사업소 당비서를 처음 만난것이 그 초막에서였다. 젊은 대학교원의 번민을 제 나름으로 리해한 그 사람은 말없이 장작단을 날라들이고 아궁에 불을 지켰다. 이제 몇해가 지난 뒤 전일리와 석이네 모자를 한식술이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하게 될 그 사람은 긴 밤을 같이 새며 인간 한성옥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한성옥, 그는 일생 불빛을 따라 걸은 사람이었소. 그 불빛인즉 해방후 여기 금곡천지구에 파견돼왔던 한 항일빨찌산출신의 전권대표동지가 준 것이라오.

해방 전해에 집을 뛰쳐나간 어린 성옥은 중국 동북 어디선가 산다는 고모를 찾아갔는데 고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소. 그때부터 그는 거지가 되어 방랑하다가 어느 지주집 머슴이 되어 솜을 구워 파는 고역을 치르었다오.

전권대표가 술한 고생끝에 그 애를 찾아냈을 때 성옥이는 해방된줄도 모르고 그냥 지주집 돈을 불려주는 솜쟁이 노릇을 하더라오.

배는 허기지고 지친 두사람을 태우고 침침한 어둠속을 가고 또 갔소. 투사의 무릎을 베고 누운 성옥은 졸다가 깨나선 《아직 멀었나요?》, 《많이 가야 하나요?》 하고 묻곤 했소.

그런데 문득 머지 않은 강굽이에서 불빛 한점이 반짝이는걸 보지 않았겠소. 소년은 벌떡 일어나 환성을 질렀소. 《야! 다왔구나! 아저씨, 저기까지 가면 되지요?》

《그래, 저기서 기차를 타면 곧장 조국으로 간다. 하지만 아직 멀리 가야 돼. 그러니 내 무릎을 베고 한잠 푹 자거라.》

아저씨가 어깨를 눌러앉혔으나 성옥이는 그 불

빛이 아직 멀리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았소. 눈이 초롱초롱해 가지고 한식경이나 불빛만 쏘아보았소.

배는 불빛을 향해 밤새 갔소. 잠간 노를 저으면 가닿을듯, 당장 손에 잡힐듯 다가오다가는 또 저만치 물러가선 어서 오라고 손짓하듯 반짝거리는데 그 불빛을 향해 가고 또 갔소.

《저 불빛을 무심히 보지 말아.》 아저씨의 말이었소. 《한생을 애국자로 살자면 누구나 저런 불빛을 인생길에 세워두고 있어야 한다. 멀고 험한 그 길을 변함없이 가자면 어느때든 불빛을 만나게 된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해. 그 믿음을 잃으면 지척에 다가온 불빛도 몰라보고 지쳐 쓰러지게 되거든, 이걸 명심하거라.》

후날 한성옥은 전선서부의 무명고지에서 그 전권대표-런대장의 마지막부탁을 들었소.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투사동지는 런락병을 시켜 배낭을 가져오게 했소.

《이안에 <푸른 돌>개발자료들이 있다. 성옥아, 난 김일성장군님의 분부를 어겨본적 없는 사람이야, 헌데... 이젠 틀린것 같다. 죄스럽구나.

...년 류학을 가게 됐다. 열심히 배우고 와서 <푸른 돌>을 찾아다오.》

그래서 성옥기사는 《푸른 돌》에 미치게 됐소. 10년세월 이 금곡천아근에서 그가 만져보지 않은 바위, 파보지 않은 땅이 있는줄 아오. 그가 힘겹고 지친날에. 고독하고 쓰라린 날에 강변에 앉아 홀로 우는것도 난 봤소, 그러나 그때마다 그 밤의 불빛이 자꾸 부르는데 어떻게 주저앉는단 말이요. 그래서 불빛을 향해 죽기내기로 달렸소. 달리다가 쓰러지면 기었소.

여기저기서 그를 탐내고 유혹했소. 책임적인 직무, 보장된 생활, 명예가 약속된 과제...

한번은 그가 간부리력서를 쓰는걸 봤소. 나는 저 친구가 끝내 주저앉고 말았구나 했소. 헌데 그 사람이 자서전에 뭘 썼는지 아오. 자기가 지난 10년간 탕진한 설비와 자재, 노력과 연유, 전력 등의 자금명세를 콕 채워넣었던 말이요. 물러설 길이 없다는것이였지. 장담하오만 난 다시는 그런 자서전을 보지 못할거요.

한성옥이 따라간 불빛, 그가 죽으면서도 가지고 간 불빛이 뭐겠소. 난 그걸 애국자만이 간직할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오...

전일은 금곡천을 떠날 때 립산당비서의 집에 들러 한성옥의 세살짜이 아들 석이를 만났다.

《비서동지, 이 애를 제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야 이 가슴이...》

당비서는 사람의 진가를 꿰뚫어볼줄 아는 직업적인 눈으로 상대를 이윽히 들여다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로부터 서른해 가까이 흘렀다. 그 세월속에 파묻힌줄 알았던 《푸른 돌》이 야밤 흥두깨같이 불쑥 나타나 그들일가에 불가사의한 그늘을 던지고있었다. 대답하라, 《푸른 돌》-너는 정녕 《유혹의 돌》이나 《악마의 돌》이나...

《석이 아버지, 주무세요?》

《말하오. 듣고있으니.》

안해의 물음에 전일은 눈을 감은채 대꾸했다.

침묵이 흘렀다. 긴 한숨소리가 못견디게 귀전을 간지럽힐뿐...

전일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담배갑을 찾았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끊었다는것을 상기하자 긴숨을 내쉬었다.

《말하라니까. 당신 석이를 금곡천에 보내고싶어 그러는건 아닐테지?》

《...》

《당신은 지금 나한테 뭘 강요하는지 생각해봤소? 만약 석이가 거기 가서 후회한다면 나는 자신을 영원히 용서할수 없게 되오.》

어둠속에서 무거운 눈길들이, 웅근 한생을 담은 눈길들이 부딪쳤다. 그 순간 두사람은 다같이 십수년전 아들 석이가 군복을 입고 집을 떠나던 그날을 생각하고있었다.

《긴말할게 따로 없다. 석아.》 하고 그날 전일은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었다.

《아무쪼록 네 친아버지처럼 살아다오. 네 친아버진...》

그때 잠자코 듣고있던 석이가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거칠게 아버지의 말을 잘라버렸던것이다.

《됐어요, 아버지. 전 그 아버지한테서 배울게 없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은... 격렬한 말마디들이 두서없이 오갔다. 아래방에서 아들의 배낭을 꾸리고있던 안해가 달려올라왔다. 이어 술한 시약들을 다루느라 거칠어진 안해의 손이 밤차로 떠나게 될 아들의 뺨으로 날아들었다.

《넌 한성옥의 아들이 아니다.》

신음소리에 가까운 안해의 목소리는 아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도 남았다. 아니, 전일은 그 말을 안해의 입에서가 아니라 눈을 통해 들었다.

고뇌가 비긴 안해의 눈... 그 눈에 비긴것은 분노도, 슬픔도, 노여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피할수 없는 운명에 대한 절절한 반발이었다.

4

이튿날 안해를 료양소로 떠나보낸 뒤 전일은 사무실을 안으로 잠그고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날밤부터 그는 금곡천일대의 지질자료에 달라붙었다. 《푸른 돌》과 관련한 외국의 조사문헌들을 쟁그리 뒤졌다. 두눈에 피발이 서가지고 무섭게 일하였다.

한주일이 지난 뒤 전일은 도람사관리국에 전화를 걸어 아들을 불렀다. 한석은 그곳 수력자원탐사를 방조하러 내려가있었다.

연구소에 도착한 한석은 금곡천지구에 파견되는 선발대를 책임질데 대한 실무적인 지시를 받고 아버지방에 들려 오래동안 묵묵히 앉아있었다.

우울한 표정을 짓고 움켜쥔 주먹으로 입귀를 문지르는, 어릴적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마다 해대는 그 눈에 익은 거동을 주시하던 전일은 불안을 감추며 물었다.

《말해라. 왜 그러느냐?》

《하필이면 왜 내가 거기 가야 합니까?》

《네가 가야 한다. 왜냐면...》

《제발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석은 신음하듯 나직이 부르짖었다.

전일은 엄엄한 눈길로 아들을 쏘아보다가 문득 가슴이 섬적해나는 충격에 황황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쩌면 저리도 방불할수 있을가. 저 선량해보이는 눈매에 비긴 고집스런 표정...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오. 이 한성옥이 타락하자면...》

창밖에서는 비발이 쏟아져 내리고있었다. 가을철에 이 무슨 번덕스런 날씨인가.

《못가겠다는 이유를 말해봐라.》

《아버지가 그걸 모릅니까?》

《알지. 알기때문에 널 보내는게 아니냐.》

《그럼 그새 무슨 과학적인 담보라도 생겼는가요? 새로운 이상징후라든가...》

《담보? 담보말이지.》 전일은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그건 <푸른 돌>을 위해 뿌린 애국자들의 피야. 지금은 그것 이상 큰 담보가 없다. 다른 담보는 거기 가서 찾아야 돼. 그래서 널 보내는거다.》

《이제 제가 가서 피땀을 흘리면 더 큰 담보가 생기겠군요.》

한석은 벌떡 서서며 격하여 부르짖었다. 유순해보이던 큰 눈에 물기가 번쩍었다.

《에익, 다 큰 녀석이...》 전일은 갑자기 가슴이 몽클해서 중얼거렸다. 격렬한 감정이 끓어올라 목구멍을 짹 메웠다.

비소리, 바람소리... 금곡천기슭의 그밤 초막지붕을 날이 새도록 두드리던 비소리... 전일의 가슴엔 비소리가 가득 찼다. 비로소 그는 지난 서른해 가까이 자기 마음속에 단 하루라도 개인 날이 있었던가를 놀라움속에 돌이켜보았다. 금곡천의 가을밤에 퍼붓던 그 차거운 비가 30년을 하루같이 자기의 마음속에 내리고 또 내렸던것이다.

그 비에 자기자신도 안해도 석이도 젖었다. 뼈속까지 쟁그리 젖었다.

어째서 그 비를 막을 생각을 못했던가? 피할래야 피할수 없는 그 찬비를... 어째서?...

《석아.》 전일의 목소리는 짜거운 회오에 젖어 떨렸다.

《제발 가다오. 네 친아버지를 대신해서 부탁한다. 가서 정 힘들면, 자신 없으면 돌아오너라. 그러면 이 아버지가 대신 가련다. 가서 그걸 찾을 때까지 있을테다.》

선발대는 며칠후 출발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각별하였다.

그날도 비는 끊치지 않고 내렸다. 역전까지 오는 동안 전일은 아들의 신발에 비방울이 떨어질 세라 다심히 우산을 기울여주었다. 그래서 그는 한쪽 어깨가 비에 푹 젖었다...

선발대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보내오지 않았다.

전일은 더 기다리지 말기로 작정하였다. 그렇다고 잠자리에 가 누울수도 없었다.

그는 다시 두툼한 편지를 펼쳤다. 30년전 《푸른 돌》개발사업의 마지막 날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있었다

×

《미리 말해둘것은》하고 금곡천마을의 산림감독원은 편지에 썼다. 《한성옥기사에게 지질학의 초보를 배워준 사람이 다음아닌 나였다는 사실이다. 지질학만이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의 기초도 내가 가르쳤고 후날 성옥이 대학으로 가도록 추천해주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제지간인셈이었다.

그러나 나는 한가지만은 배워줄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이 애국자로 사는 법이었다.

류학에서 돌아온 한성옥과 내가 다시 만난 때로부터 10년이 흘렀다. 금곡천지구 170리아근의 산과들, 골짜기와 강기슭, 어디라 없이 시추구멍이 벌둥지처럼 뚫렸다. 갯도들에서 파낸 버력이 산처럼 쌓이고 거기에 풀이 돋고 나무가 자라 산을 이루었다. 그 술한 시추구멍과 갯도들에 채더미를 털고 숨가쁘게 일어난 조국아, 인민이 번자금이 물처럼 쓸어들어갔다.

그러나 <푸른 돌>은 나오지 않았다. 어렵듯한 징조만 계속 나타날뿐... 이 <유혹의 돌>, 《마귀의 돌》은 술한 세월과 피땀을 짜내고도 성차지 않은듯 금곡천근방 어느 지심 깊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 우리의 인내력을 악착스레 저울질하고있었다.

아니, 나와 한성옥의 일생을 통채로 망쳐버릴 잡도리였다.

<이건 죄악이요!>갱봉락사고때 내려왔던 일군이 본격하여 부르짖었다. <명백하오. 더 이상 푸른 돌에 미련을 가질수 없소.>

<죄악이지요.> 한성옥이 지지 않고 대꾸했다.

<푸른 돌이 있다는걸 뻔히 알면서 외면한다는건 더 큰 죄악입니다.>

우리 지질학계에 나와 한성옥이만큼 <푸른 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다는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반대하는 측들은 이렇다할 론거를 내놓지 못했다. 결국 <푸른 돌>의 운명은 나와 한성옥에게 달려게 되었다.

뜬눈으로 지새는 밤들이 흘러갔다. 그 밤들에 내가 무슨 생각인들 안했겠는가.

<저 안경쟁이는 없는 광석을 있다고 하여 나라에 술한 손해를 끼쳤다.>

<후퇴때 혼자 살아남은것도 이상하다.>

<왜놈지질쟁이들을 도와준 일도 있다.>

머지 않아 사람들의 눈에 비낄 자기의 초상을 이렇게 그려볼 때마다 몸서리치는 나였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푸른 돌>과 갈라지기로 결심하였다. 한성옥을 위해서도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바람새 잔잔하고 고요가 깃든 해질녘이었다. 강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강 건너편 하늘에 타는 노을을 바라보고 앉았는데 림산합숙쪽에서 키가 쫘창한 사나이가 달려오는게 보였다. 한성옥이었다.

그새 병원에 입원해있었는데 내가 중앙조사단으로 옮겨간다는 소리를 듣고 온것이 분명하였다.

낮빛이 컴컴하게 질린 그는 저만치에서부터 면바로 쏘아보며 다가들었다.

<한마디만 대답해주십시오. 금곡천지구에 푸른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소. 피롭지만 난 그렇게 봤소.>

<그럼 선생님이 해방전 이 강물속에서 채취한 시료는 뭔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조각인가요?>

<글쎄... 일부 사람들이 쭈군거리는것처럼 자본주의나라 학계에서도 그러ру한 과학협착행위가 생기군 아니까...>

<전 돌아가신 동지들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정말 푸른 돌을 버리렵니까?>

성옥은 불편을 푸들푸들 떨며 나를 지켜보았다

<제발 그들은 건드리지 말게 그러잖아도 밤마다 꿈에 나타나 내 뺨을 치고있네. 왜 날 때리는지 아나. 그만큼 해보고도 뭐가 모자라서 우리가 흘린 피까지 욕되게 하느냐. 이 녀석아, 하고 때린단 말일세.

죽은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말하는 법일세. 성옥이, 난 래일 떠나겠소. 그러니 성옥이도...>

내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낚시대를 본것이 그때였다. 그 낚시대로 말하면 한성옥이 류학에서 돌아올 때 나를 위해 품들여 구해온것으로써 10년째 내가 애용하는 물건이었다.

어느새 저만치 떠내려가는 그것을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한성옥이 물에 침범 뛰어들었다.

한참만에야 낚시대를 건져들고 물에서 나온 그를 향해 달려가던 나는 도중에서 주춤 멎었다.

성옥은 퍼릿하게 질린 입술을 떨며 나를 쏘아보는데 그 큰 눈에서 피방울같은것이 떨어지고있었다.

<분합니다.>

그의 손에서 낚시대가 푹 꺾어져 물속에 날아

들었다. 그는 휙 돌아서서 자갈을 걷어차며 가버렸다. 그는 <푸른 돌>개발집단의 마지막사람으로 남았다.…」

×

선발대는 비내리는 숲을 헤치고 골짜기를 꺾지며 가고 또 갔다. 앓고있는 인술자를 따라 쉽없이, 묵묵히 걸었다.

밤이 이슬해지자 바람이 멎었다. 비발도 뜸해졌다.

한석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이상했다. 비는 차츰 멎어가는데 비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는 것이었다.

이게 뭐가? 왜 이렇가? 앓느라고 신경이 예민해진 탓일까?...

애써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비소리가 아니라 물흐르는 소리가 쟁쟁히, 또렷이 들려왔다.

분명 물소리다. 그것도 골바닥을 훑으며 조잘거리는 내물소리가 아니라 거세차게 사뭇치며 웅심깊게 흐르는 강물소리였다. 지척에 강이 있다. 금곡천에 왔다!

《어허!- 다 왔소!》

한석은 북받치는 감개에 몸을 떨며 부르짖었다.

뒤쪽에서 즉시 반응이 일어났다. 전지불빛이 번뜩이며 달려오고 혈색이는 숨소리들이 가까와온다.

불빛은 강쪽에서도 오고있었다. 해불 두어개가 어둠을 활활 태우며 한석에게로 다가오고있었다.

웬 불빛인가? 웬 사람들인가? ... 한석은 열에 뜬 눈을 부릅뜨고 어느새 코앞에까지 가까이 온 사람들을 쏘아보았다.

두사람이었다. 한사람은 비옷차림에 안경을 낀 늙은이였고 또 한사람은 자그마한 녀인이었다. 그런데 그 녀인의 입에서 뜻밖에도 한석에게 가장 친근하고 귀에 익은 음성이 터져나왔다.

《석아! 내 아들이!》

《?!...》

한석은 소스라쳐 놀랐다. 이게 꿈이 아닐까? 어머니가, 룡양소에 가있을 어머니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날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달아오른 눈굽을 마구 문지르며 속삭이듯 물었다.

《어머니예요? 정말 어머니가 맞아요?》

《너석두... 제 어머니도 모르겠나, 아무려면 어머니가 너를 혼자 보내고 룡양소에 누워있을것 같더냐... 난 한주일째 너희들을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가 했다.》

한석은 목이 짝 잡겼다. 두개의 해불만이 눈앞에서 어릿거릴뿐...

탐사대원들이 달려와 한석을 에워쌌다. 후더운

입김들이 훑날린다. 며칠새 수염터가 거뭇해진 연구사, 조사원들, 눈이 별같이 반짝이는 분석공 처녀들... 한석은 그들의 눈에서 자기에 대한 신뢰의 정을 읽었다. 목이 짝 메여 말이 나가지 않는다.

그는 젖은 눈을 습벅이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금곡천에 왔소. 미안하오. 난 사실 길을 잃었댔소. 그러나 이젠... 내가 갈 길을 찾았소.》

그는 축축한 땅우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밤은 깊어가고 물소리는 더욱 소연해졌다. 비에 잔뜩 불고 어둠에 묻힌 금곡천이 가버린 봄과 여름을, 덧없이 흘러간 세월을 애타게 그리듯 구슬픈 가을의 노래를 부르며 흘렀다. 근 서른해만에 다시 돌아온 아들의 신상에 닥친 재난을 넘려 해서인듯 밤새 잠못들고 드설레었다.

×

아버지,

금곡천 서북쪽 6키로미터지점에서 강한 중력이 상징후를 포착하였습니다. 당에서 보내준 최첨단 탐측기재의 덕입니다.

나라가 문전을 쪼개쓰던 그 시절에 우리 부모들이 수동적인 설비를 메나르며 기울였을 그 고생이 눈굽을 뜨겁게 지킵니다.

금곡천 서북쪽 6키로미터지점은 현재 립산 류벌 작업소물동이 자리잡은 곳입니다. 이전에 여기 립산당비서를 하시던 로인의 말에 의하면 저의 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전부터 그 물동근처에 자주 나가 거닐곤 하셨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을 외우시면서 ...

친아버지는 30년전에 이미 물동심부에 뭔가 있다는것을 포착하신겁니다.

얼마나 많은것을 잃었습니까. 그렇게 잃고있는 것이 지금은 없겠는지...

이런 생각에 잠기느라 친아버지의 필적이 떠오릅니다. 《애국은 비단방석에 앉아서 할수 없다.》고 쓴 그 뜻이 가슴을 찡니다.

...

래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파견해주신 개발돌격대가 금곡천지구에 들어옵니다. 물동을 옮기고 시추작업과 갯건설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걱정은 마세요. 여기서 분석작업도 하고 식당일도 봐주면서 건강히 지내고계십니다.

이 땅의 소중함과 생의 고마움, 친아버지의 생이 헛되이 가지는 않았다는 안도감이 가슴을 채울 때면 저를 키워 이 조상의 땅으로 떠밀어 보내주신 아버지에게, 나에게 애국을 가르친 이 금곡천에 머리숙여 큰절을 올립니다.

추억에 남는 시

바다와 전사

김희종

바다의 나이는
수억수만년
전사는
갓 스물

행군의 장구 다 걸머지기엔
어깨가 좁아보이던 전사
무슨 힘으로 풍랑을 휘어잡고
바다를 타고왔든 영웅이 되었던가

바다를 처음 보는 산골내기
무거운 잠수모에 잠수신을 신고
물속을 걸어가던 첫날
바다는 세찬 물살로 조약돌처럼
전사의 몸 휘뿌려던것만

두려워하였던가 밀물을
주저하였던가 두터운 얼음바다를
비다가 한번 격파를 곤두세우면
열번 다시 솟구치는 전사

해초덤불 감겨드는 물밑에서

용접의 불꽃 날리며 철배를 무어갈 때
바다도 어찌지 못한 전사의 그 힘은
우리 당이 키워준 심장
우리 당이 키워준 의지였네

지금은 조용히 갑문에 갇히여
맑은 거울로 비치는 바다
병사령장을 단 전사의 심장속에
하나의 호수로 잠겼는가

눈부신 해빛아래
어린애마냥 어리광치는 바다
그 물에 발을 잠그고
전사는 빙긋이 웃기만 하네

전사의 나이는
갓 스물
그러나 바다는
제 나이마져 잊어버리고
백발의 흰 갈기를 전사앞에 숙였네

주체 75(1986)년

가사

아 내 고향 내 조국

최준경

산설고 낮설은 이국땅에서
정다운 부모처자 생각합니다
찬물에 맨밥을 말아먹어도
구수한 토장내가 그림습니다
아 내 고향 내 조국

타향의 큰집들은 번쩍거리도
내 자란 요람엔 못비깁니다
뒤동산 살구꽃 향기풍기는

고향집 들창가 못잊습시다
아 내 고향 내 조국

남의 땅 손님으로 살기보다도
제고장 주인돼 행복가꾸리
장군복 누리며 사는 내 나라
세상에 제일좋아 자랑합니다
아 내 고향 내 조국

영생하는 영웅의 그 모습을

김춘호

어머니 준 내 모습이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있다고
내 모습 정녕 내 모습만입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날
병사 나를 살려내고
김기봉영웅동지는
한몸 서슴없이 바치었으니

아 그날부터
내 모습은 내 모습만이 아닙니다
서러운살
구만리 아름다운 삶을 바쳐
그가 나의 삶을 이어주었으니

뛰는 이 심장도
그의 심장
눈도 귀도
그리고 이 두손도
모두 그의것입니다

한해 또 한해
스물세살, 스물네살
그리고 또 서른살 마흔살...
늘어갈 내 나이도
영웅이 나에게 준것입니다

진정
그날부터 나의 삶은
영웅의 삶의 계속입니다
그의 걸음
그의 지향
그의 위훈
구만리로 이어지는 나의 삶

달리는 못살아
새 세기 첫 영웅
그처럼 아름답게 살립니다
그처럼 고결하게 살립니다
내 모습에서 사람들
영생하는 영웅의 모습을 볼수 있게!

가사

6. 15 기치아래 굳게 뭉치자

림 철

이 땅의 주인은 그 누구더나
반만년 피줄이은 우리 겨레다
6.15기치아래 굳게 뭉치여
외세의 모든 간섭 끝장을 내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애국에 불타는 마음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없애버리자
6.15기치아래 굳게 뭉치여

기어이 통일위업 이룩하리라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북과 남 합치면 더 큰 힘되리
하나된 조선은 세상을 떨치리
6.15기치아래 굳게 뭉치여
삼천리에 통일강국 일떠세우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나는 전쟁로병이다

조래현

삶의 뿌리 억척으로 내렸기에

흙 한줌 쥐고 비비면
파편 몇개는 섞여있던
조국수호전의 옛 전호가에
푸른 숲 정답게 설레이누나
옛 병사를 반기여
산새도 목청 돋구는구나

어쩔수 없는 세월의 흐름속에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내려
생사를 같이하던 전우들 이름조차
삭막해지건만

전화의 나날 우리가 쓴 맹세문엔
세월이 백발을 없지 못했다
맹세문에 이름석자 써넣던 이 가슴엔
그때처럼 사랑과 증오의 피가 뛰누나

날아 젓을 물린 어머니사랑만으론
간간이 이어놓기도 힘들어
이 발에 저 발에 채웠던 인생
해방의 은인의 해빛같은 품에서
재생의 꽃을 피워서야
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가
비로소 깨달은 우리 아니더냐

허나 우리들중 그 누가
복된 그 생을 바치기 주저했더냐
몸이 부서져 가루된대도
피의 방울방울, 살의 점점이
성스러운 조국수호전의
총탄되고 수류탄이 되어

증오의 과녁을 향해
불이 되어 날아갔고 터졌구나

숲과 흙이 찢기고 불타
모양조차 달라진다면 고지
이제는 푸른 숲 무성하건만
보병삽날 버리기엔 맞춤이던
그 《숫돌바위》 예대로구나

탄알과 수류탄이 떨어지면
이 바위에 삽날을 썩썩 갈았지
-한놈의 원썩도 살려두지 말라!
바위를 딛고 넘어
날개단 장수마냥 내리꽂히며
시퍼런 보병삽날 휘둘렀구나

아, 전쟁의 포성은 멎은지 오랫동안
조국수호전은 오늘도 계속되나니
젊은 병사들아 몇번째로
이 고지를 넘겨받았더냐

세월이 바뀌고 또 바뀐대도
잊지를 말아
이 바위 부서지면서도 곳곳이 서있을것은
뽕히여선 박힐데 없는
내 나라 강산의 바위이기때문!
바위에 결사전의 삽날을 갈면서도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는것은
키워주신 그 품에 억척으로
삶의 뿌리 내린 인생이기때문!

이 전호터

헤일수 없이 많은 침략전쟁으로
세상을 제집 뒤동산처럼 돌아섰다는
미제의 한다 하는 장성급들
하루에 수만발씩 포탄을 쏟아붓고도
이 전호터 밟고 넘어서진 못했다

나이가 어렸던 이 병사
세상리치 다는 알수 없었다

허나 한가지만은 푹푹히 알았다

다섯뿔 높이밖에 안되는 전호덕
나의 집
나의 학교
나의 조국
수호전의 성스러운 문턱이었음을!

하기에 체소하고 순박하던 이 병사
최고사령부 작전도에 표식된
이 전호덕에 운명의 피줄을 박고
복수의 맹수가 되어

끝까지 지켜낸것 아니더나

오, 그래서였다
전쟁에 이끌리 났다는 미제의 장성급들
저들의 시체로 사다리 놓았건만
이 전호덕 바라만 봐도 마음이 상해
백년, 천년가도 못넘어설
죽음의 《상심령》이었다!

우리 분대의 첫 당원들

내 힘들게 전호를 팔 때마다
끓은 참나무뿌리 숨쉴있게 찍어주며
병사는 전호도 멋지게 파야 한다고
하나하나 일러주던 분대장동무여

애어린 나이에 군복입은 나에게
걱정말라, 이 싸움 본때있게 치르고
세상이 보란듯 대학에 가자며
힘을 주던 우리 분대 기관총수여

그 이름들 손나팔로 부르면
전호가 어디에선가
《나 여기 있다!》 반가이 소리치며
따바리 멘채, 기관총 안은채
불쑥불쑥 일어설것 같구나

세월이 흐른다고 어이 잊으랴
친부모도 대준적 없고
교과서 갈피에도 없었던
화선병사로 살며 싸우는 법

그리고 착실히 배워준 스승들을!

나란히 엮드려 일제사격을 하여도
한발한발 똑바로 쏘라
우리가 적을 못맞치면
적탄알 어디까지 가는지 아는가?
묻기도 하고 깨우쳐도 주었구나

어서 빨리 참된 병사가 되려는
내 마음을 알아
위훈으로 떠밀어준
우리 분대의 첫 당원들이여

아, 그대들은 해방직후 길지 않은 몇해에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조국을 남먼저 안
새 나라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였다

《몇살이더라?》

나의 손에도 반땅크수류탄
아바이손에도 반땅크수류탄
《꼬마, 몇살이더라?
장 한독은 더 먹어야 하는건데...》

어리게만 보는것이 싫어
대답을 피하였건만
아바이는 아무일도 없은듯
웃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히나 읽을 여가가 없었다
그 편지 팔굽밀에 깔리는것이 눈에 띄었건만
내 읽어줄 생각도 못했다

내 순간이라도 망설인다면
적땅크는 우릴 짓밟개며 넘어서리라
내 일어서려는 순간
아바이가 벌떡 일어섰다

아, 나어린 병사의 앞길 구만리
래일에 한껏 살기를 바라서던가
나의 어깨 천근무게로 내리누르며
먼저 일어선 아바이전사여!...

싸움터에 저녁노을 비길 때
아바이가 끝내 다시 못본 편지
눈물이 글썽해 읽은 중대장

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집에는 꼬마와 동갑이 아들이 있었구만
한전호에 동갑이가 있다는 편지를 받고
지난달에 군복을 입었다누만...

아, 옛 싸움터 고지정점에 올라
저 멀리 산발너머
아바이의 고향쪽 하늘을 바라보니
《몇살이더라?》
그 물음 다시 울려오는듯

무엇이라고 대답하라

전우들이 주고간 그 나이
그 나이로 내가 살아
강철의 령장 수령님 안아오신
전쟁승리의 환호속에
내 작은 목소리도 합칠수 있었다고

오늘은 선군령장 우리 장군님 품에서
칠십님은 전쟁로병으로
옛 싸움터를 찾아
못잊을 전우들을 추억할수 있었다고
말하고싶구나
천만산악이 목메여 들먹이게!

용해출신

제강소출신 중철에겐
이름처럼 쇠덩이같은 무게가 있었다
앞가슴과 뒀잔등도 널찍했다
기관총 두다릴 량어깨에 걸치면
애기를 목마태운 아버지인듯
그렇듯이 체격에 어울리었다

끓는 쇠물은 용해공의 량심
쇠물앞에 서면 흐렸던 마음도
잡것없이 맑아진다는 사람

불앞에 바싹 다가설줄 알아야
커다란 쇠물가마를 죽가마처럼
휘-휘- 저을수 있다는 사람

화염방사기의 불줄기 덤벼들어도
불을 맞받아 중기관총 퍼부으며
불은 불로 드세게 다스렸다

아, 우리 수령님 지켜보시는 앞에서
새 나라 건국의 쇠물을 녹여본 행운아여서
불을 것처럼 사랑했으리
불을 것처럼 무서워 안했으리
불을 것처럼 숨씨있게 다루었으리

새 나라의 지붕을 떠일 대들보
어떤 사람들이 제손으로
쇠물을 녹여 멋드러지게 부어냈던가

그 보배로운 대들보를 꺾으려
원썬들이 들퍼붓는 불소나기를
어떤 사람들이 앞장서 헤쳐던가
쇠장대로 쇠물을 휘젓고
기관총으로 원썬들을 답새기는
그 모습으로 내앞에 서있는 용감한 전우여!

총창을 꽃앗!

《총창을 꽃앗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자
동갑인 산비탈로 내리달렸다누나

그러다가 문득
바위뒤에서 와플 일어난 꺾다리
그놈과 부딪치려는 순간
동갑인 힘껏 총창을 내밀었다누나

불의에 맞다든 그놈
으악-소리 지르며
뒤로 벌렁 자빠지고

동갑인 총창도 못뽑은채
결따라 비칠...

몇초가 흘렀던가
펄쩍 허리편 동갑이
늘어진 그놈을 발길로
툭 걷어찼다누나
그리고도 미심쩍어
그놈의 보총 잡아챘건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누나
(흥, 이꼴이 되자구 대양을 건너왔어?)

나와 한낱 한시에 입대한 동갑이
순간에 배심이 산만큼 커져
이따위나 한놈 제끼자고
인민군병사의 총장
서리차게 버리고 또 버렸던가?

열놈이고 백놈이고 덤벼들라
총창을 쏜바엔
한놈이 아니라 한두름씩

벼락맞고 뿌리채 뽑힌 고목처럼
휘줄근해졌을 미국대통령 항복서까지
한총창에 쪽-꺾여
세상이 다 보게 쳐들고 웨치고싶더라누나
-넵다 찌르면 뒤로 벌렁
나가자빠지는게 미국이다!

나는 전쟁로병이다

보라, 이 시각에도
사나운 비바람 다 맞으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최전연 전호가에 작전도 펴시고
조국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신다

그 모습 목메여 우리러
결사옹위 성세되어
그이의 안녕을 지켜드리느
병사들과 한줄에 섰다
전쟁로병인 나도

그이께서 병사들의 노래도 들어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실 때
아들을 그 자리에 세운
아버지여서만 눈굽을 적신게 아니다

전승열병광장에서
수령님을 우리러 만세높이
광장을 울리며 행진했던
그 대렬에 서보지 못하고간
유명무명의 전우들
소리쳐 불러, 안아일으켜 세워
천출명장을 모신
이 행복속에 함께 사는
나는 전쟁로병이다!

제대배낭 메고
나의 고지를 내린지도 50여년
애어린 병사시절에 불비속을 헤쳐건넌던
그날의 락동장을 어이 잊으랴

첫 전호를 판 그 여름부터
전승의 7.27 그날까지
목숨으로 지킨

조국의 고지들을 한시인들 잊었으랴

늘어나는 나이에 묻혀
이런저런 잡념에 묻혀
맥을 놓은적 있었다면
어려운 날에도 차례지는 혜택에
마음이 헤어져
잠시라도 옛 병사의 자세 흔들렸다면

조국이며
50년대의 이름으로
선군시대의 이름으로
엄한 채찍을 들라
내 무릎꿇고 기꺼이 맞으리
만약 이 땅에 또다시
준엄한 불구름 몰아쳐오면
악의 제국 미제와 끝맺지 못한
총결산을 하고야말 로병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처럼 두분의 걸출한 령장을
모시고 산 세대는 없다
천출명장의 술하에선
나약한 병사가 없다
평범한 애어린 병사도
용사로, 영웅으로 된다
이름없던 산발도
영웅의 고지, 불멸의 기념비로 된다

그렇다
두분의 령장을 모신 영광속에서
겪을것을 다 겪으며
배울것을 다 배워
오직 승리만을 아는
나는 조선의 전쟁로병이다!

선군시대정신의 구현과 성격형상

-최근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농촌현실주제의 단편소설들에 대한 소감-

안 성

단편소설은 시대정신에 충실하는것이 첫째가는 매력으로 된다. 시대정신의 민감한 구현을 떠나 단편소설의 생명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작가의 직선적인 주장에 의해 선언적으로 제시되는것이 아니다.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진실한 생활로써,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대의 지향을 가슴에 안고 그 생활의 중심에 서있는 산 인간의 참신한 형상으로써 시대정신은 천명되어야 한다. 그럴 때라야 단편소설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보풀이 일도록 읽혀지는 줄기찬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단편이라고 하여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있으면 얼마든지 명작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지난해에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선포하고 여기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할것을 호소하였다. 이 시대적부름을 제때에 민감하게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은 농업전선의 현실생활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투시하면서 깊은 체합과탐구로 시대정신이 구현된 우수한 단편소설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그 나날에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인 《불길》(김영선 작, 5호), 《백로떼 날아든다》(김명익 작, 8호), 《한 너인에 대한 추억》(조인영 작, 9호), 《밀천》(변창률 작, 11호)등은 시대의 요구, 시대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사회주의대지에 자기의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 당의 뜻을 꽃피워가는 선군시대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새롭고도 의의있는 성격형상을 참신하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단편소설 《불길》은 오늘의 시대정신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체현한 주인공 류은아의 새로운 성격적미를 참으로 인상깊게 그려내고있다.

작품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지켜선 새세대 초급지휘성원의 일본새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선군시대 계승에 대한 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성격형상의 참신성을 더해주고있다.

옛날에는 강냉이타개죽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거지골》이라 불리우던 산골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꾸려놓고 세상을 떠난 로력영웅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썸골작업반 반장이 된 류은아, 그가 《아버지가 수십년간 이루어놓은것을 모조리 뒤집어엎》으려고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류은아는 《백정보 발이랑들을 모두 다시 썰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가 하면 고양이손도 빌려써야 할 바쁜 농사철에 강냉이발최뚝을 말끔히 없애자고 달라붙》었다. 심지어 《아버지의 피와 땀이 깃들어있는 작업반돼지우리를》 다시 짓자고 할 때 사람들은 《영웅반장의 딸이 영웅의 공적을 허물어버릴것 같아》걱정과 불만을 터치였다.

과연 그 무엇이 주인공을 그런 결심과 행동으로 떠밀었던가 류은아에게는 아버지의 한생의 노력이 스며있는 고향땅의 모든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아버지가 이루어놓은것이 누구보다도 귀중했다. 그러나 그에 결코 만족할수 없고 오늘의 조건앞에서 주저앉을수 없는것이 주인공이었다.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대한 깊은 자각이 그를 억세게 떠밀었던것이다.

후대들은 앞선 세대가 이루어놓은 공적을 현상유지나 해서는 안되며 모든것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구상하고 통이 크게 혁신해나갈 때만이 그들의 넋을 참답게 계승할수 있다는 고결한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류은아, 이런 그였기에 군사복무시절에 간직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대대로 물려오던 작업반최뚝을 몽땅 뒤집어엎고 강냉이를 심는 혁신적인 발기를 했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내 두벌농사에 꼭 필요한 더 크고 현대적인 돼지우리를 건설하고야말았다. 그리고 아글타글 이악하게 노력하여 두벌농사를 성공시켰으며 작업반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우고 썸골마을을 더욱 훌륭히 꾸려놓았던것이다.

아버지가 지킨 지난날의 불을 더 거세찬 불길로 타번지게 하며 고향땅에 당의 뜻을 꽃피워가

는 열정적이고 담찬 류은아의 모습은 농촌현실주제작품 주인공들속에서 확실히 두드러지게 안겨온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세대들이 부모들의 뒤를 이어 혁명의 지휘성원, 일군으로 성장하여 선군시대를 떠메고나가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주는 류은아의 형상은 시대적의의가 자못 크다.

단편소설 《백로떼 날아든다》 역시 세세대 농촌초급지휘일군의 형상을 담고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도 시대정신에 대한 충실성은 알찬 열매를 맺고있는바 작가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새로운 인간전형 정연순의 형상을 감명깊게 그려내고있다.

연백벌의 백로떼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있어 주인공의 모습이 이채롭게 부각된 이 인상적인 단편소설에서는 《백로소녀》정연순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선군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보다 새로운 높이에서 탐구되고 펼쳐지고있다.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도에 배치받았으나 자진하여 연백벌에 내려온 처녀작업반장 정연순에게 있어서 《이고장은 단순히 나서자란 고향만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가 논두렁을 베고 숨진 땅》만이 아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시고 인민군용사들이 전화의 그날에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의 대지, 한결음만 물러서도 살수 있었지만 조국수호의 불타는 일념을 안고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인민군렬사들의 고귀한 넋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성스러운 땅이었다. 그 넋을 가슴에 안고살자고 주인공은 구름봉의 인민군렬사묘를 자주 찾아가 자신을 인민군렬사들과 나란히 한전호에 세워보곤 한다. 그 넋을 가슴에 안고살기에 주인공은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 누구도 해본적이 없는 논앞그루 감자농사를 스스로 걸머지고 나섰 다.

《그때 우리는 굳은 맹세를 다지였지. 이 벌을 지켜 용감히 싸운 인민군전사들처럼 농사를 잘 지어 내나라를 빛내자고 말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이젠 그들이 지켜낸 이 땅을 적들에게 내여주는것이나 다름이 없어. 지금 나라는 총포성없는 전쟁을 하고있지 않니. 그러니 우리는 두벌농사, 감자농사를 기어이 지어 나라의 쌀독에 보탬을 주자. 그것이 령혼들이 잠든 이곳에 살 자격으로 되고 세세대 청년들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직하나 절절한 정연순의 이 토로속에서 시대의 요구, 세세대의 본분을 뜨겁게 감수하고 깊이

자각한 그의 심장의 웨침이 크게 증폭되어 메아리친다.

사회주의수호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오늘 인민군렬사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을 쌀로써 수호하는것은 바로 시대앞에 세세대 농업근로자인 우리가 짊어진 더없는 임무이다. 두벌농사는 나라의 쌀독에 보탬을 주고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원썬들과의 또 하나의 대결전이다. 날씨가 그 어떤 다른 조건에 빙자하면서 주저앉아버린다면 그것은 총포성없는 이 대결전에서 뒤걸음질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러설 자리가 더는 한치도 없다. 그럴 권리도 없다. 렬사들의 넋이 세세대 우리를 지켜본다. 이런 지향과 열정, 이런 각오와 의지를 안고 정연순은 분연히 일어섰다.

어찌 애로와 난관, 가슴아픈 사연들이 없지 않으랴. 논벼가 기본인 연백벌에 앞그루로 감자를 심는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것이라면서 첫마디에 도리머리질을 하는 농장관리일군들, 자연의 재난이 몰아올 《만약의 경우》앞에서 나약해지는 주인공에게 모진 질책의 말을 남기고 떠나간 순철, 때아니게 련 사흘째 내리퍼붓는 눈... 그러나 이 모든것을 이겨내며 정연순은 끝내 연백벌에 감자꽃이 활짝 피는 희한한 전경을 안아왔다. 그 감자꽃바다우로 어디론가 떠나갔던 백로떼가 구름처럼 밀려와 정겹게 울어예며 날으고 또 날은다....

이렇게 시대정신은 구현되었다.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절실한 시대적요구로 받아들이고 선렬들의 넋에 자기를 비추어보며 깨끗한 량심과 숭고한 자각에 기초한 실천행동으로 그 관철을 위해 헌신하는 정연순의 생활과 투쟁속에서 우리는 시대정신의 거세찬 퍼덕임을 력력히 느끼게 되는것이다.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 스스로 어깨를 들이밀고 선렬들의 넋에 자기를 따라세우며 이악하게 실천해가는 정연순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선군시대를 쌀로 받들어가는 농업근로자들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성격을 뚜렷이 보게 되는것이다.

보는것처럼 위의 두 작품은 다같이 세세대 농촌초급일군의 형상을 담고있지만 그 주인공들의 모습은 결코 류사하지 않다. 그 비결은 시대정신을 선언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생동하게 살아숨쉬는 새롭고도 진실한 성격형상으로 천명하려는 작가의 진지한 탐구정신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이런 탐구정신은 단편소설 《한 녀인에 대한 추억》에서도 어렵지 않게 감득할수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그 어떤 요란한 사변이나 극적인 사건 그리고 그 어떤 비범한 성격의 소유

자를 추구하지 않았다. 우리 농촌에서 오늘날 흔히 목격할수 있는 폐사로운 생활단면들이 소설의 갈피갈피에 펼쳐져있고 그 생활의 흐름을 타고 그 어디 가나 볼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농장원 변음전의 모습이 아담하게 그려져있다.

그러나 그 형상속에서 의의있는 시대적문제가 제기되고 깊이있게 해명되고있는것으로 하여 《키가 자그마하고 체소한 가냘픈 인상의》녀인의 모습은 결코 평범치 않은 시내의 주인공, 거인적인 형상으로 새롭게 두드러지면서 독자들의 가슴에 새겨지는것이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참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사회주의대지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여야 하는가, 이런 시대적물음에 소설의 주인공 변음전은 훌륭한 대답을 주고있다.

농장기사장인 《나》의 눈에 처음 비쳐진 변음전은 《너무도 어질고 착해서 남에게 아픈 소리를 한번 한뒤로는 몇날밤 잠못들것 같은》녀인이였다. 정말 그랬다. 농장총회에서 《나》를 비판할 때에도 간신히 일어나 얼굴도 들지 못한채 크지 않은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던 녀인, 모판관리공모두에게 차례진 쉽지 않은 잘수수지짐도 남을 위해 사양하는 순박한 녀인이였다.

그런 변음전이 모내기를 앞두고 며칠째 계속되는 가물로 하여 모판이 더갈라지자 밤늦도록 물지게로 물을 날라다 모를 살려낸다. 지형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생겨먹은데다가 몇평 안되는것이여서 《설계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땅》마저 말끔히 정리하도록 불도젤앞을 막아나선다. 깊은 밤 쏟아지는 폭우로 하여 급기야 불어난 개울물에 파헤쳐지는 포전기슭을 구원하기 위해 한몫 서슴없이 내댄다.

비로소 《나》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땅을 목숨가진 생명처럼 대하고 쓰다듬으며 온갖 정을 땅에 깡그리 쏟아붓는 애착이였다. 자기의 삶과 피처럼, 자기의 살붙이처럼 땅을 아끼고 사랑하는 순정이였다. 기쁨도 설음도 땅에서 찾는, 제 설음, 제 기쁨이 아니라 땅의 일로 울고 웃는 진심이였다. 《그것은 정녕 자신을 잊고 나라쌀독을 위하여 아글타글하는 애국농민의 모습 그대로였다.》바로 여기에 평범한 여성농장원 변음전의 평범치 않은 성격적미가 있고 새로운 시대적성격으로서의 높이가 있는것이다.

이런 사람이 오늘의 참된 땅의 주인, 사회주의대지를 지켜가는 선군시대의 애국자이다. 것처럼 살라, 것처럼 열렬히 땅을 사랑하라, 것처럼 땅에 티없는 진심을 바치라, 이렇게 작가는 호소하고 있다.

실로 평범하고 소박한 《한 녀인에 대한 추억》

을 통하여 안겨오는 주인공의 성격형상은 시대정신과 생활에 대한 새롭고도 깊이있는 탐구인것으로 하여 짙은 여운을 준다.

단편소설 《밀천》은 선군시대 농촌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일정하게 성공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은 오늘 농촌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풍모와 본분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예술적해명에 이바지하는 주인공 문인숙의 개성적인 성격발현과정을 특징적인 생활계기들과 독특한 생활세부들을 통하여 흥미있게 엮어나갔다. 소설에서 주인공인 리당비서 문인숙의 개성적형상은 농사밀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인식을 가지는 두 일군의 대조적인 립장과 태도속에서 보다 선명히 살아나고있다.

구평농장 립만성은 손에 쥔 물질적인것만을 농사 《밀천》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것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것은 《두발목을 매고 뛰어보라는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고 하면서 아무 일에서나 《밀천》구실을 내댄다.

그러나 리당비서 문인숙의 생각은 다르다. 가장 큰농사밀천은 농사의 주인이라는 본분을 자각하고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해나가기 위해 펼쳐나선 농장원대중이라고 그는 확신하고있다. 하기에 그는 농장원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장을 불려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을 발동하는것이 일군의 본분이라는 자각을 안고 언제나 농장원대중과 한마음한뜻이 되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는것이다.

작품에서 그의 이런 정신적풍모는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생동한 생활의 풍만한 토양속에서 자연스럽게 안겨오고있다. 《집이 없이 몸만 땡그라니 와서 합숙밥을 먹는 사람이 거름생산을 잘하자고 해야 빈소리뿐》이라면서 리당비서로 오자마자 엄동설한에 이사부터 하는 열정, 이사와서는 자기 집에 퇴적장과 물거름받이시설부터 잘 만들어놓고 거름무지가 솟아오르게 하여 모든 농장원세대가 따라나서게 한 말없는 이신작적, 새로 꾸려진 문화주택에 자기네가 아니라두 부부가 함께 사는 농장원세대를 이사시키게 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살뜰한 인정...

이런 형상속에서 언제나 농장원대중속에 몸을 깊이 잠그고 그들과 호흡과 숨결도 같이 하며 그들을 당정책관철로 고무추동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시대의 전형적성격으로 생동히 안겨온다. 그 어떤 선언적인 설명이나 도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숨쉬는 인간성격을 통해 시대의 요구를 깊이 자각한 선군시대 농촌당일군의 진실한 모습을 그려낸데 이 작품의 매력이 있다.

이처럼 농촌현실주체의 단편소설들은 선군시대가 배출하는 우리 농촌의 새로운 인간전형들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시대정신을 구현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이 작품들의 형상수준이 하나같지는 않다. 그러나 시대의 전투적인 부름에 민감하게 호응하여 시대정신의 적극적인 체현자, 사회주의대지의 참된 주인공들을 다양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독자들의 심장을 울려주었으며 생활의 친근한 벗으로 되었다.

올해에도 의연히 농업전선은 사회주의건설의 주공전선이다. 농업부문의 시대적의의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오늘의 현실앞에서 우리 작가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으며 더 높은 창작적요구가 나서고있다. 농업전선을 역세게 떠메고나가는 새로운 주인공들의 성격형상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더 왕성하게 창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런 요구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의 창작발전을 위해 이미 발표된 작품들에서 미흡하게 생각되는 몇가지 의견을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우선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체현한 주인공을 그려냄에 있어서 그 성격형상의 진실성보다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이다. 작가가 아무리 시대정신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인물형상이 생활론리, 성격론리에 맞는 진실한것으로 되지 못하고 작가의 주관적인 꾸밈에 의해 빚어진 것이라면 독자들을 매혹시키는 참신한 인간성격을 보여줄수 없는것은 물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는 작가의 의도도 옹당한 결실을 맺을수 없다.

올해 《조선문학》잡지 1호에 실린 단편소설 《버들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 작품에는 자기 나름의 주장과 형상세계가 있으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펼치려는 작가의 재기도 엿보인다. 그런데 주인공의 형상이 진실성을 잃고있는것으로 하여 실망의 그늘을 던지는것이다.

작품에서 주인공인 농장관리위원장 옥순은 척박한 땅이어서 사람못살 고장으로 불리우던 고향산천을 훌륭히 꾸려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마을에 들리시면 그이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릴 일념을 안고 아글타글 애쓰는 녀성일군이다. 그리하여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 분조장, 작업반장을 거쳐 관리위원장으로 성장한 오늘에 와서도 발전소건설이며 미생물비료연구 등 고향땅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간다.

작가는 주인공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과 성실한 마음을 돋구어내려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를 가정생활과 인접적인것과는 아예 담을 쌓은, 메마르고 딱딱한 인간으로 그려놓았던것이다. 설명절을 같이 즐기자고 찾아온 시누이네 가족이며 집안식구들과 새해 첫아침의 밥 한끼도 같이 나눌 새도 없이 《꼭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야 하며 집을 나가서는 종일토록 혼자 발전소건설장에서 일하는 옥순, 아버지없이 돌생일을 맞는 딸애를

집에 두고 미생물비료를 포기하고 가버린 연구사를 찾아 떠나는 주인공... 이런 세부들이 점철되면서 작품에서는 옥순이 가정적인 모든것을 《외면》하고 오로지 농장일과 고향땅을 위한것에만 전심하고있는것으로 그리고있다.

이것은 생활의 론리를 무시한것으로서 생활의 진실한 반영이 아니다. 그 누구보다도 생활을 사랑하고 자기 가정과 인간적인 모든것을 열렬히 사랑할줄 아는것이 선군시대 인간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선군시대 농촌일군의 새로운 형상을 추구하고있지만 작품의 세계에 공감되지 않는것이다. 아무리 시대정신에 충실하려고 해도 그것을 진실한 성격형상으로써 천명하지 못할 때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다음으로 언급하게 되는것은 이야기를 엮어나가는데 있어서 도식으로 기울어질수 있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는것이다. 우에서 긍정적으로 지적한 작품들가운데서 《한 녀인에 대한 추억》을 제외한 나머지작품들은 다 현지에 취재내려온 기자에게 다른 인물들이 주인공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으로 시작을 떼고있다.

더우기 《불길》과 《백로페 날아든다》는 너무도 류사하다. 이미 10년전에 찾아가 취재했던적이 있는 고장이 크게 변모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기자, 거기에서 면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는 주인공의 생활과 투쟁, 무한한 감동속에서 주인공을 한시바삐 만나보고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기자...

게다가 이 두 작품의 주인공들의 처지와 성장과정도 서로 비슷하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땅에 진심을 바쳐 일하다가 돌아간 아버지, 그의 뒤를 이어 고향땅에 뿌리내리고(한 사람은 체대되며, 다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분조장을 거쳐 작업반장으로까지 자라나는 주인공들... 너무도 엇비슷한 이야기의 설정과 전개로 하여 다소 실망감도 없지 않다. 물론 주인공의 성격형상이 주는 공감과 여운으로 하여 이런 《허물》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지만 이런 《도식》이 다시금 허용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선군시대의 전투적호소에 민감하게 화답해나선 농촌현실주체의 단편소설들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시대정신에 언제나 충실해온 우리 소설문학의 풍격을 힘있게 과시하고 당정책관철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시대정신을 체현한 선군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전형적성격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시대를 빛내이는 명작으로 선군문학의 보물고를 풍만히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물이 일하러 간다

황승명

천년을 흘러
만년을 흘러
놀고먹던 충만강
물머리 돌려 일하러 간다

날새도 쉬어넘는 첩첩 아호비령
걸어서 몇백리
넘어넘어 몇백리
백리굴 꿰질러
어허, 일하러 간다

산에산에 진달래
너도야 그 향기 실어보내거라
명문의 양몰이쳐너
너도야 고운 꿈 실어보내거라

멋이로다
학두루미 앞세우고 달맞이봉 돌아서니
덧없이 흐르던 대령강이 얼싸안고

함께 가잔다 일하러 가잔다

천야만야 뛰어내려
날리는 물보라
타빈을 안고돌며
뿌리는 물보라
밝고밝은 이 강산이 더 밝아지는듯

개벽이로다
동창에서 솟는 해를 마중하고
충충 다락밭을 적시며 흘러흘러
간석지 새땅에선 둥근달을 실자누나

아, 방울방울 빛이 되고
알알이 열매가 되어
충만강 대령강 놀고먹던 강물이
사회주의 이 강산의 생명수로
어허, 일하러 간다

가사

벼꽃이 고와

신현숙

진달래 봉선화 너도 곱지만
나는야 들에 핀 벼꽃이 고와
모내기 도와준 군인동무들
그 모습 어려와 벼꽃이 고와
아 벼꽃이 고와 제일 고와

병사들 구슬땀에 영군 벼이삭
내 고향 포전에 설레이겠지
주인된 일습씨로 농장을 도와준
그 마음 깃들여 벼꽃이 고와
아 벼꽃이 고와 제일 고와

초소의 병사들 다시 보고파
너도야 정답게 속삭이느냐
선군의 대지를 가꾸는 보람
인민의 기쁨으로 꽃피날거야
아 벼꽃이 고와 제일 고와

그 마음을 누가 알랴

김광호

혼기를 놓친다고 걱정많은 어머니
여기저기 수소문해 총각들을 내세워도
봄철에는 씨뿌리기 너무나도 바쁘다며
선보려 오려면 가을에나 오라나요
아 처녀반장 그 마음을 누가 알랴

고운 얼굴 별에 타고 손마디도 통기치니
옆에서도 속상들 해 총각들을 내세워도
두벌농사 시대이니 여름철도 바쁘다며
선보려 오려면 가을에나 오라나요
아 처녀반장 그 마음을 누가 알랴

봄 여름을 들에 살며 진심을 묻은 처녀
황금의 이삭들에 진정을 바친 처녀
뜨거운 그 사랑이 이 가을에 있었으니
선보려 오려면 가을에나 오랬겠지
아 처녀반장 그 마음을 누가 알랴

두른 꽃



백상균

과견장을 처음 보는듯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관리위원장은 책상앞에 서있는 나를 향해 얼굴을 들었다.

《우리 농장에 무슨 축산기지가 있다는거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라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아니,...그건 무슨 말씀인지?...》

관리위원장의 입가에 어설픈 웃음이 스치었다.

《허허허! 처녀동문 뭔가 잘못 알고 왔구만.》

《?!》

나는 그 말을 잘못 들은게 아닌가 하여 놀란 눈길로 관리위원장을 쳐다보았다.

관리위원장은 손에 쥐고있던 과견장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돌아가오.》

《예?! 돌아... 가다니요?》

얼결에 과견장을 받아온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여러겹으로 접혀있는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펴며 물었다

《그럼 이건 뭐니까?》

눈앞에 펼쳐진 천개덕축산기지전경도를 본 관리위원장은 당장 폭발할 시한탄이라도 마주한듯 흡칫 놀랐다.

《영?! 이게 어떻게 동무의 손에까지 들어갔소?》

《...》

관리위원장은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거리며 흥- 하고 코길을 내뿜었다.

《하야간 엄성인 피짜야. 그러니 동문 이걸 진짜로 믿고 왔겠소? 하긴 이걸 보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데 있겠소.》

관리위원장의 말이 부정할수 없는 사실임을 절감한 나의 가슴속에서는 무엇인가 쑥 빠져나가는것만 같았다.

(그럼 내가 속히왔단 말인가?)

순식간에 달아오른 심장의 박동은 세차게 흥벽을 두드려댔다.

부지중 내가 밟고선 사무실바닥이 꺼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생각할수록 억이 막혔다.

(이럴수가 있는가?)

나는 해염칠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구원을 청하듯 절망에 찬 눈길로 관리위원장을 쳐다보았다.

관리위원장은 내 정상이 가공하게 여겨졌던지 동정하듯 말하였다.

《욕심같아선 축산전문가인 동무를 농장에 불들어두고싶지만... 하긴 동문 이 산골에 정을 붙이지 못할게요. 그러니 돌아가오.》

실수한 딸을 타이르듯 관리위원장은 내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주고 밖으로 나갔다.

너렁청한 사무실에 외롭게 남은 나는 가슴속에서 뿔박질하는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몸부림쳤다.

엄성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그런 허황한 거짓말로 한 인간의 운명을 희롱하려드는가

×

대학 전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나는 짓눌린 용수철마냥 긴장되어 배치를 기다리고있었다.

날마다 신문과 텔레비존으로 전해지고있는 강성대국건설의 돌격선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청년들의 영웅적인 투쟁소식은 선군시대 청춘답게 값높은 삶의 자욱을 남길것을 꿈꾸는 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곤 하였다.

(나도 그들처럼 청춘시절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리라.)

그러던 어느날.

축산연구소에 가서 연구사업을 해볼 의향이 없는가고 묻는 대학일군의 물음에 현장으로 보내달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낮익은 우편통신원이 놓고갔다는 한통의 편지와 파자통만한 소포꾸레미를 받게 되었다.

편지결봉에는 이상하게도 《수의축산대학 축산과 졸업생동무들 앞... ××군 천암협동농장 천개덕

축산기지 방목공 일동》이라고 써있었다.

소포에도 같은 글이 써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편지람.

무릇 편지란 개인 호상간 주고받는것이 상례인데 졸업생들 앞이라니...

무척 호기심이 동하였다.

기숙사 호실로 들어선 나는 동무들을 기다릴새도 없이 편지결봉을 뜯고 속지를 꺼내 펼치였다.

앞머리에 《수의축산대학 축산과 졸업생동무들 앞》이라고 반복한 편지내용은 자석처럼 나의 눈길을 끌어당겼다.

《...풀먹는 짐승들이 구름처럼 흐르는 현대적인 축산기지 천개덕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선군시대의 청춘이라면 가슴속에 지닌 아름다운 이상과 푸른 꿈의 나래를 펼칠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소원한다면 우리 천개덕으로 오십시오. 축산전문가인 동무들을 기다립니다.》

필체는 비록 여물지 못했지만 어찌나 호소성이 강한지 단번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편지의 마감에는 참교부호를 치고 《소포로 보내는것은 천개덕축산기지 전경도입니다.》라고 써있었다.

서둘러 소포꾸레미를 헤치고 그안에 차곡차곡 접혀있는 흰종이를 펼치던 나는 환성을 터치였다.

《야, 멋 있구나!》

갓가지 색깔로 채색된 천개덕축산기지는 수십동의 축사들과 고기가공실, 젓가공실. 방목공숙소, 과학기술식선전실 등으로 전개되어있었다.

산골짜기마다에는 멋쟁이 풍력발전기들도 세워져있었다.

산세에 맞게 정리한 풀판은 또 얼마나 희한하던지...

수채구멍에 물이 빨리여 들어가듯 전경도에 흑한 나의 입에서는 연방 《야!》, 《야!》하는 감탄이 새어나왔다.

매혹의 선풍에 휘감긴 나는 마치 지심깊이에서 분출구를 찾아 모지름을 쓰던 용암이 드디어 제값을 찾은듯한 환희에 잠기였다.

《가자! 나의 푸른 꿈을 펼칠 곳은 바로 여기 천개덕이다.》

전경도에 혼맹이가 쑥 빠진 나는 더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학 책임일군의 방문을 두드리었다.

뒤늦게야 나의 결심을 알게 된 호실동무들은 큰 일이라도 난듯이 떠들어댔다.

《창순아! 거긴 하늘아래 첫 동네로 소문난 산골이야.》

《이제라도 심중히 생각해봐. 천개덕이라는 곳에 그런 희한한 축산기지가 있다면 왜 신문, 방송으로 소개되지 않았겠니?》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디디는가에 따라 일생문제가 결정된다는데 너무 서둘러 결심한

게 아니야?》

동무들의 꼭진한 충고가 나의 마음을 마구 흔들었지만 이미 천개덕으로 향한 푸른 꿈의 나래를 꺾을수 없었다.

내가 대학을 떠나던 날은 핑장하였다.

대학구내를 들썩이며 울리는 취주악대의 경쾌한 환영곡과 두팔이 모자랄정도로 안겨지는 꽃다발들, 선생님들과 동창생들의 힘찬 포옹과 격려...

선군시대의 자랑으로 떠날거리운 나는 이렇게 출전용사마냥 대학을 떠났다.

그런데...

거침없이 질주해온 급행열차가 천개덕이라는 종착점에서 탈선될줄이야...

노젓는데 정신을 팔면 닳아리는걸 잊는다더니 내 왜 그때 동무들의 충고를 한마디라도 새겨들으려고 하지 않았던가.

후회는 언제나 때가 늦는 법...

나의 가슴속에서는 엄성이라는 인간에 대한 원망이 비누거품처럼 부각부각 피어올랐다.

×

산골의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당장 엄성이라는 인간을 만나 사리를 따지지 않고서는 비틀리운 심장이 터질것만 같아 허겁지겁 천개덕이라는 곳을 찾아 달려가던 나는 해가 저문 뒤 인차 주인행세를 하려고 덤벼드는 어둠에 발목이 잡혀 되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척지척 농장 합숙으로 들어선 나는 몸에서 뼈라고 생긴것은 다 물러났는것만 같아 옷을 입은채로 방바닥에 쓰러지고말았다.

창밖 어둠속에서 경쟁적으로 울어대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는 울화로 가득찬 가슴속을 긁어내리는것만 같았다.

《그만 속을 태우고 식사를 하라구.》

인정이 넘치는 합숙녀인의 세번째 권고였지만 웅쳐진 나의 마음은 도저히 밥상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모를 일이다. 엄성인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혼자소리처럼 뇌이는 녀인의 말은 헤집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린것만큼이나 쓰리고 아프게 들리었다.

나는 짙은 눈길로 녀인을 띠어보았다.

녀인은 나의 심중을 안다는듯 밝은 웃음을 지었다.

《나빠 생각지 말라구. 난 엄성이네와 한 지붕을 쓰고 살아 누구보다 그 사람을 잘 안다네.》

《?!》

녀인은 제 자식 허물 감싸듯 엄성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

몇달전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엄성은 축산반에 배치되어 일하게 되었다.

작업반에 첫 출근을 한 엄성은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풀먹는 집짐승 마리수가 얼마되지 않았던 것이다.

작업반원들의 말에 의하면 사방 돌박산으로 둘러막힌 농장에는 풀판이 제한되어 어찌는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설마 그러라 싶어 주변 산들을 밟아보니 농장원들의 말이 사실이었다.

풀이 있을만한 곳은 산경사가 너무 급하여 집짐승들이 도저히 발을 붙일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조건에만 매달려 시키는 일이나 수작수작 한다는것은 맹랑한 노릇이 아닐수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축산조건을 개선할 결심을 품은 엄성은 작업의 여가시간과 휴식일이면 신발이 닳도록 산발을 토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일찌기 산으로 올라갔던 엄성은 발에 날개라도 달린듯 걸음도 가벼이 농장으로 돌아왔다.

마침 농장 문화회관에서는 농장적인 김매기중간총화를 하고있었다.

뒤좌석에 앉았던 엄성은 관리위원장이 회의를 결속하기 바쁘게 뒀기듯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한가지 제기하겠습니다.》

회의장을 들었다 놓는듯한 웨침소리에 흠어져가려던 농장원들이 주춤하였다.

사업수첩을 덮던 관리위원장이 심상히 물었다.

《뭐요? 간단히 말하오.》

호기심어린 수백쌍의 눈길들이 엄성에게로 초점을 모았다.

《저는 며칠간 축산반에서 일하면서 생각되는것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있겠지만 우리 농장 축산반실태는…》

침중하게 울리는 엄성의 목소리에 물속처럼 조용하던 회의장이 갑자기 소슬바람에 머리를 쳐든 갈대숲 설레듯 하였다.

《저 사람이 옳게 말했어.》

《다른데서는 축산덕을 단단히 본다는데…》

《우리도 축산을 추켜세워야 해요.》

막혔던 동이 터진듯한 농장원들의 불만에 관리위원장의 낯빛이 로안에서 금방 꺼낸 쇠덩이처럼 시뻘개졌다.

《동무, 물론 동무말이 옳은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우리…》

관리위원장의 비린청에 엄성은 침착하게 응대하였다.

《물론 산세가 험한 농장의 자연지리적조건으로 보면 풀먹는 집짐승기르기가 불리한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조건에만 매달려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우리 농장은 영영 축산덕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제라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낡은 사고와 관점에서 벗어나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린다면 얼마든지 농장축산을 추켜세울수 있다고 봅니다.》

엄성의 말을 듣는등 마는등하는 관리위원장의 입귀가 실룩거리었다.

《그래 동무에겐 무슨 신통한 묘안이라도 있어서 그런 소릴 하오?》

《있습니다.》

엄성은 확신에 넘친 표정으로 죽가마끓듯 하는 장내를 쭈-욱 훑어보았다.

《여러분들도 알고있겠지만 저 천개덕이라는 곳에…》

천개덕이라는 소리에 농장원들은 갑자기 무슨 약속이라도 한듯 입들을 다물었다.

관리위원장은 놀란 눈길로 엄성을 쳐다보았다. 엄성은 그 어떤 발견이라도 한듯 천개덕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다.

《…이렇게 비계덩이같은 천개덕만 타고앉으면 우리 농장 축산은…》

홍분한 엄성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또다시 벌동지 쭈서놓은듯 해졌다.

《야! 저 친구 꿈이 대단하구만.》

《한번 해볼만한 일인데.》

《흥, 천개덕을 타고앉을것 같으면 벌써 타고 앉았지.》

《미꾸라지 뿔꿈을 꾸다더니… 어렵도 없어요.》

장마진 하늘쳐다보듯 안색이 찌뿌둥해있던 관리위원장이 별안간 어깨를 들썩이며 앙천대소하였다.

《하하하! 우리 농장에 대단한 환상가가 나타나구만. 대단하오! 대단해…》

관리위원장의 호걸스러운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회관창문이 다 울리는것만 같았다.

《환상가》라는 말에 마음이 상한 엄성은 불쾌한 눈길로 관리위원장을 쳐다보았다.

웃고난 관리위원장은 폭풍이 지나간뒤의 바다처럼 조용해진 회의장을 내려다보며 넋지시 말하였다.

《천개덕이 비계덩어리라는 동무말은 옳소. 몇해전에 우리 농장에서 천개덕등판을 개척해볼 욕심으로 돌격대를 무어 파견했던적도 있소.… 관리위원회에서 다 생각하고있으니 바쁜 고비나 좀 넘기고 봅시다. 아무일이나 다 선후차가 있는법이 아니겠소?… 그렇게 합시다.》

엄성은 랑패한 표정으로 제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

엄성이가 그렇듯 아름다운 미래와 푸른 꿈을 실었던 천개덕개척이 관리위원장으로부터 랑대를 받게 된 리유를 알게 된것은 회관을 나선후였다.

천개덕은 농장에서 삼십여리 떨어진 곳으로서 해발고가 거의 천메터나 되는 천산령과 호두령 사이에 있는 무연한 등판이었다.

넓이는 사방 십여리가 잘되었다.

몇해전 풀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농장에서는 천개덕에 방목지를 전제할 계획을 세우고 청년들로 돌격대를 무었었다.

물론 관리위원장이 돌격대를 책임지고 작업을 지휘하였다.

하지만 천개덕개척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물원천이 부족하였던것이다.

그 넓은 등판에 온종일 퍼내야 독 하나를 겨우 채울 웅달샘밖에 없었다.

사람들의 먹을 물도 보장하기 힘든 형편인데 장차 술한 집짐승들을 어떻게 방목한단 말인가.

게다가 얹친데 덮치는격이라고 맹수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밤이 되면 사방에서 으르렁거리는 맹수성화에 잠을 잘수가 없었다.

몽둥이며 도끼를 휘두르며 맹수들의 공격을 가까스로 견제한 돌격대는 다음날로 철수하고말았다. 천개덕은 눈으로 보기에는 욕심이 나는 곳이었지만 실리를 따지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었다.

...

그 사연을 알게 된 엄성은 관리위원장과 농장원들앞에서 경솔하게 처신한 자신을 심심히 뉘우쳤다.

허나 비둘기마음 콩밭에 가있다고 천개덕에 대한 엄성의 욕심은 좀처럼 사그러들줄 몰랐다.

물, 물원천을 찾아야 한다.

그까짓 맹수는 문제가 아니다.

물원천을 찾아보겠다는 엄성의 말에 관리위원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공연히 사서 고생하지 말라구.》

《하고싶어서 하는 일은 고생이 아니지요.》

엄성의 고집을 꺾을수 없음을 느낀 관리위원장은 한번 쓴맛을 보면 정신을 차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응하였다.

천개덕에 다시 오른 엄성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듯 주변 산들을 빙질하기 시작하였다.

산을 헤매느라 신발은 바닥이 닳고 나무가지에 걸려 찢어진 옷자락과 바지가팽이는 엉마처럼 너덜거려였다.

밤이면 맹수들을 벗삼고 자며말며 런 사흘을 정신없이 산골짜기들을 뒤졌건만 그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았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지탱하며 산을 뚫던 엄성은 무딘 낮에 허리꺾인 풀대처럼 풀썩 꺼꾸러지고말았다.

아- 무정하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정녕 너 천개덕은 이 엄성의 마음을 외면할셈이나.

초인간적인 힘으로 일어난 엄성은 지팽이에 의

지하여 또다시 《탐험》의 길에 올랐다.

물을 찾기전에는 주저앉을 권리도, 물러설 권리도 없었다.

비척비척 어느 한 산골짜기를 내리던 엄성은 벼랑바위틈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이다. 물을 찾았다!》

환희와 격정에 넘친 엄성의 웨침이 메아리되어 골안을 흔들었다.

영금영금 기여서 바위앞에 이른 엄성은 두손으로 물을 퍼담아 공중으로 휘뿌리었다.

해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이는 물보라가 축복의 꽃보라인양 엄성의 온몸에 내려앉았다.

엄성의 랑볼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젠 됐다.

천개덕은 더는 불모의 땅이 아니다.

여기에 세상 보란듯이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건설하여 젖소, 염소, 양, 토끼, 계사니 등 풀먹는 집짐승들이 구름처럼 흐르고 고기와 젖가공품들이 쏟아져나오게 하리라.

물이 있는 곳에서 천개덕까지의 거리는 1키로메터가 좀 넘었다.

농장에 나타난 엄성을 본 농장원들은 아연실색하였다.

볼이 폭 꺼진 얼굴과 쑥 패인 눈확, 성한데 하나 없이 찢겨진 옷...

가꾸고 나서면 처녀들이 저마다 눈주어 불만한 끼웃한 사나이가 며칠사이에 수난자행색으로 나타났다으니 어찌 놀라지 않으랴.

허나 엄성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질줄 몰랐다.

이런 인간앞에서 천개덕개척이 되니 안되니를 논한다는것은 자신의 약점만 드러낼뿐이라는것을 잘 아는 관리위원장은 엄성에게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당장 맹수의 습격을 막을수 없는 실정에서 축산반 짐승들을 통채로 올려민다는것은 범의 아가리에 고기덩이를 섬겨바치는것과 같은 모험이라는것, 때문에 몇달동안 시험적으로 열마리정도 올려갔다가 사고가 없으면 그때 가서 보자는 것이었다.

엄성은 실망하였다.

불만이 있었으나 그대로 집행하는수밖에 없었다.

로력은 바쁜 김매기철인것만큼 중학교를 갓 졸업한 봉호 한명만 데리고 올라가기로 하였다. 설적에 굶긴 아이 낳아서도 굶긴다더니 말썽 많던 천개덕개척은 첫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엄성과 봉호는 천개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맹수들의 습격을 예견하여 눈에 초롱불을 켜고 축사를 지켰지만 어느틈에 출몰한 맹수떼가 염소 세마리를 물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던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관리위원장은 사무실기둥을 흔들며 노성을 터뜨리었다.

《내 그만큼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도 고집을 부리더니 끝내... 당장 철수시키오.》

온몸이 입이라도 할말이 없는 엄성이었지만 이미 내짚은 걸음을 절대로 되돌려세울수 없다고 딱 뻔대었다.

그 바람에 관리위원장의 뒤틀린 심사는 고무공 불어나듯 하였다.

...

너인의 자초지종을 들은 나는 처음 내 앞에서 천개덕에 대해 별로 달가와하지 않던 관리위원장의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었다.

한편 엄성이라는 인간이 보통 고집불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주관적인 욕망 하나만 가지고 큰 산을 허문다고 흰목을 뽑으며 헤덕비다가 웃음꼴이 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는가.

×

이튿날 나는 그 무서운델 처녀 혼자서는 못간다며 두팔을 기증기팔 퍼듯 벌리고 막아서는 합숙녀인을 뿌리치고 천개덕으로 향하였다.

여적 시내교외의 낮은 등성이라도 혼자서 넘어본 적이 없는 내가 그런 《대담한 용단》을 내리게 된 것은 엄성이라는 인간에게 기만당한 울분의 분출 때문이었을것이다.

천개덕으로 가는 길은 험하기도 하였다.

천연요새처럼 어깨를 나란히 걸은 삼각추모양의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들은 어찌 높은지 고개를 뒤로 젖히고서야 올라다볼수 있을 정도였다.

돛대처럼 곧추 자란 나무들이 뻗뻗이 들어찬 수림은 한낮에도 어둡시그레한게 무시무시하였다.

하늘을 가리운 나무우듬지들은 술취한 사람모양 이리흔들, 저리흔들거리는데 그 사이로 올라다보이는 쪽빛하늘에는 구름덩이들이 나무끝에 매달려 그네질을 하는듯 하였다.

금시 숲속 어느 구석에서 뛰어나온 맹수가 뒤덜미를 물고 늘어질것만 같아 잔뜩 신경을 도사린 나는 벌벌 기다실이 산경사지를 뚫아올랐다.

그렇게 넘은 산봉우리는 몇개나 되는지...

어느새 온몸은 소낙비를 맞은듯 물주머니가 되었다.

철덩이가 매달린듯한 발을 겨우겨우 들어옮기던 나는 그만 한발을 잘못 내디디는 바람에 몸중심을 잃고 뒤로 나동그라지고말았다.

×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던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내가 누워있는 곳이 산속이 아니라 깨끗하게 꾸러진 귀틀집이었던것이다.

그러니 여기가 천개덕이란 말인가.

그럼 누가 나를 여기로 업어왔을까?

혹시 엄성이라는 인간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울컥 치미는 굴욕감으로 몸서리를 쳤다.

세상에 무슨 일인들 없으랴만 처녀가 생면부지의 사내잔등에 업히우다니...

미구에 그가 문가에 나타날것만 같아 오싹 소름이 끼쳤다.

이제 그와 마주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사경에서 구원해줘서 고맙다고...

아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부터 따질테다. 머리속에서 범벅이 되어 돌아가는 상념들을 한줄기로 꺾보려던 나는 부지중 그에게 화풀이를 한다는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뎌 아기의 장래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시비질을 한다는것은 그지없이 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직은 이 천개덕이 나를 기만한 전경도처럼 꾸러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 개척의 첫 걸음을 뎌것은 사실이 아닌가.

물론 관리위원장은 지금 엄성이 벌려놓은 일이 짧은 말로 큰 산을 안겼다는것만큼이나 허황한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밀려드는 잡념들을 털어버리며 숨처럼 나른해진 몸을 일으켜세웠다.

산경사지에서 굴러내릴 때 상한탓인지 온몸이 어디라없이 쭈서났다.

아름을 참으며 문밖을 나서니 사이다를 마실 때처럼 시원한 바람이 내몸을 감싸며 어리광을 부리었다.

눈앞에는 바다처럼 무연한 초원이 펼쳐져있었다.

어찌나 넓은지 산속을 헤멜 때만 하여도 나를 무섭게 위압하던 덩지 큰 산봉우리들이 아득히 먼 수면위에 떠있는 작은 섬들처럼 보였다.

엄성이 비계덩이라고 욕심을 낼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앞에는 대형속보관이 서있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천개덕축산기지전경도가 구면이라는듯 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벗어버린 낡은 옷 대하듯 전경도를 외면하고 돌아서던 나의 눈길이나 한곳에서 멎었다.

저 앞 산기슭에 여러동의 귀틀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있었다.

집형태들을 보아서는 이미 전경도를 통해 손금보듯 알고있는 축사와 젓가공실들이었다.

그것들을 보느라니 비록 가슴속에 엄성에 대한 고까운 감정이 가시처럼 박힌 나였지만 그동안 일을 많이 하였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기야 집이나 짓는다고 축산기지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드넓은 초원을 채울 집집승들을 어디서 구하며 술한 가공설비들은 또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10년, 아니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

금처럼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축산기지가 꽤 가능하겠는지 도저히 가슴이 가지 않았다.

사업년한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년장자인 관리위원장이 천개덕개척을 손털고 나갔었을 때에는 뭔가 타산이 있어서였겠는데 엄성은 왜 굳이 굳이 앞이 보이지 않는 가시덤불길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섰을까.

고생을 할려면 저혼자 할것이지 나를 유혹한 까닭은 무엇이고...

주관적욕망이란 왕왕 인간을 실패라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걸 모른단 말인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혼탕된 모순적인 감정은 엄성을 만나지 않고서는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왜 벌써 일어났어요?》하는 소리에 나는 흠칠 놀라며 상념에서 깨어났다.

뒤를 돌아보니 진흙밭에서 금방 캐낸 고구마처럼 얼굴이며 옷에 온통 진흙대닥질을 한 총각애가 웃음을 함뱌 담고 서있었다

봉호였다.

《좀 어때요?》

봉호의 근심어린 물음에 나는 어설픈 웃음을 지어보였다.

《괜찮아요.》

《누님은 수의축산대학에서 왔지요?》

나는 그 말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척 보면 삼천리라고...》

나는 봉호의 능청에 웃음을 참을수 없었다.

《호호호... 이름이 봉호라지요?》

호감이 어린 봉호의 눈길이 나를 뻔히 쳐다보았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이 최봉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있겠군요. 인민군대 신체검사에서 불명예스럽게 미끄러진거랑...》

《...》

《에이, 몸무게가 두키로 모자라서 락오자가 될걸 생각하면...》

제김에 불이 부어 툄툄거리던 봉호는 인차 낫색을 달리하였다.

《하, 이거 먼길 온 귀한 손님앞에서... 미안해요.》

얼굴에 불우물을 깊이 파며 웃는 모양이 꼭 처녀에갈았다.

몸집은 여물지 못한 강냉이이삭처럼 작았지만 정기가 도는 두눈을 보면 차돌같이 오돌차겠다는 인상을 준다.

《무슨 일을 했길래 굴간에서 나온 사람처럼 되였어요?》

봉호는 흠뻑은 손을 썩썩 비비며 빙그레 웃었다.

《물탱크를 만들 자리를 파했어요.》

《물탱크?!》

물탱크라는 말에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벌써 물을 끌어왔단 말인가.

듣자니 물이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거의 1키로메터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 방대한 작업을 어떻게 해제졌는지 알고싶었다.

《그래 물을 어떻게 끌어왔어요? 작업량이 간단치 않았겠는데...》

《아직 끌어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차 비닐관이 해결될거예요. 그러니 물탱크를 먼저 만들어 놓자는거지요 뭐.》

《비닐관? 그 많은 량을 어떻게...》

《엄성형님 말이 저 평산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 동지가 군대때 대대장을 하던분인데... 가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수 있다는거예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가볍게 웃어버리고말았다 아무리 군대때 대대장을 하던 사람이 지배인이라고 하여도 천메터가 넘는 비닐관을 제주머니 물건 꺼내주듯 할수야 없지 않는가.

확실히 엄성은 모든 일에서 면밀한 타산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주관적인 욕망만을 앞세우는 사람같았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실수가 많다고 했는데...

별안간 어디선가 《우-잉!》하는 산짐승의 단말마적인 울부짖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를 놀라며 봉호의 뒤로 몸을 숨겼다.

《어마나!》

봉호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빙그레 웃었다.

《저건 염소들을 노리고 뛰어들었다가 함정에 빠져 악을 쓰는 짐승의 비명소리예요.》

나는 얼굴을 들었다.

《함정?!》

《예, 소잃고 외양간 고친적이긴 하지만 염소 세 마리를 잃은후 맹수들이 달려들만한 곳곳에 함정을 파놓았어요. 그후부터 그놈들도 죽는게 무서운지 얼씬을 못했는데... 저놈은 분명 시라소니일거예요.》

함정에 빠진 맹수의 스산한 울음소리는 몇번 울리다 끊어지고말았다.

봉호가 생각난듯 물었다.

《참. 누님은 어쩌다가 산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의외의 질문이어서 나는 선뜻 입을 열수가 없었다.

《응... 그건...》

《야, 난 아까 골라하기에 쓰러져있는 누님을 발견한 순간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

나는 어마지무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 나를 사경에서 구원한게 엄성이가 아니라 봉호였단 말인가.

《봉호가 날 여기로 업어왔어요?》

나의 은근한 물음에 봉호는 고개를 끄떡이었다.
순간 나의 입에서는 긴숨이 새어나왔다.
엄성이라는 인간에게 그 어떤 신세를 진다는것
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나로서는 정말 다행스러
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정말 고마워요.》

나의 진정의 사례에 봉호는 펄쩍 뛰었다.

《아, 그러지 말라요. 인사는 오히려 내가 해야겠
는데...》

《?!》

나에게 인사라니?!

이 애가 지금 무슨 소릴 하는걸가.

나는 얼떨름해서 물었다.

《나에게 무슨 인사를 한다는거예요?》

봉호의 인상적인 볼우물이 깊숙이 패이었다.

《헤, 그건... 누님이 선군시대의 자랑이기때문이지
요 뭐.》

《뭐라구?!》

도대체 갈피를 잡을수 없는 봉호의 요란한 미사
려구는 나를 뿌잇한 안개속으로 몰아넣었다.

《그건 말이예요. 누님이 여기 천개덕으로 자진
하여 오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도 하지요 뭐.》

나는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다 나가지 않았다.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법 삼단론법까지
끌어들이며 나를 추어올리는 봉호가 그 순간엔
여간 뭇상스럽지 않았다.

《야, 내가 누님이 오기를 얼마나 안타까이 기다
린줄 알아요. 오지 않으면 어찌나 하는 생각에
밥맛까지 다 잃었댔다니까요.》

이것 봐라.

보자보자 하니까 점점 못하는 소리가 없다.

피득 뇌리에에는 엄성이라는 인간이 내 앞에 나서
기가 멋적어 이 봉호를 《방자》로 내세워 나의 기
분상태를 가늠해보려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스
쳤다.

하기야 아무리 럽치없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순
진한 마음이 한조박이라도 있는 법이니까...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새어나왔
다.

《너의 형님 손님맞이 솜씨가 그럴듯 하구나.
내가 온줄 알면서 얼굴도 안내미는걸 보니.》

봉호는 눈이 울물해서 나를 뵈히 쳐다보았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엄성형님은 며칠전에 우
량종 젓소와 염소를 구하려고 저 금천종축장에
갔는데요 뭐.》

나는 빗나간 자신의 유치한 판단에 얼굴을 붉
혔었다.

나는 봉호를 외면하며 사공 배머리돌리듯 슬쩍
화제를 바꾸었다.

《금천종축장에 무슨 타산이라도 있어서 갔어
요?》

《아니요.》

《그럼 무슨 수로 우량종을 구한다는거예요?》

《이 심장의 호소...》

봉호는 가슴을 두드리며 확신하듯 말하였다.

어이가 없었다.

금천종축장은 내가 졸업실습을 한곳으로서 나
는 가기 실정을 잘 안다.

다태기술에 의한 우량종 젓소와 염소생산의 성
공으로 온 나라에 소문이 난 금천종축장은 우량
종구입을 위해 찾아오는 수효자들로 늘 물문은
바가지에 깨알엇켜볼듯 복작거리는 곳이다.

보나마나 억지를 부리며 벽도 문이라고 내밀
심산같은데 늘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씨름질해오
는 종축장 지배인이 끔찍이나 하겠는지...

결과는 뻔하였다.

봉호가 얼굴에 장난기를 가득 담고 내 앞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누이, 나하구 하나 약속하자요.》

《약속이라니?》

《이제 엄성형님이 돌아오면 말이예요. 절대로
수의축산대학졸업생이라는 소릴 하지 말라요. 알
겠지요?》

나는 예감이 이상하여 다우쳐 물었다.

《그건 왜?》

《헤, 엄성형님을 깜짝 놀라게 하자는거지요 뭐.

그 형님은 축산전문가인 누님이 여기에 나타나
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있거든요.》

《뭐라구?!》

나는 몽둥이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몸
을 떨었다.

《그럼 그 편지와 전경도를 보낸 사람이 엄성동
무가 아니란 말이나?》

《헤, 그 형님은 그런걸 알지도 못하는데요 뭐.》

《?!》

아뿔싸!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도 있는가.

이제껏 엄성을 후려칠 회초리를 속에 품고있던
나에게 있어서 봉호의 말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
의 벼락과도 같은것이었다.

《이제 엄성형님이 돌아오면...》

《그만 해...》

구멍이 뚫린 공에서 김이 새어나오는듯한 나의
매빠진 소리에 봉호의 눈이 켜혔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줄지에 온몸의 골격이 다 물러앉은듯 다리가
후들거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봉호가 당황해하며 다우쳐 물었다.

《누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가슴은 예리한 칼끝에 긁히운듯 못견디게 쓰려
났다.

《넌 정말 너무하구나. 그런 엉터리없는 거짓말
을 하다니...》

흐느끼듯 중얼거리는 나의 나무람에 한순간 플먹은 팔레처럼 뻗뻗해있던 봉호가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예요.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성형님을 돕고싶었어요. 이 천개덕엔 엄성형님의 리상과 꿈대로 꼭 현대적인 축산기지가 일떠설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 축산전문가가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그게 잘못되었는가요?》

마디마디 그루가 박힌 봉호의 말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렇듯 미래에 대한 확신이 바위처럼 굳건한 그에게 무슨 말을 한단말인가

봉호는 뭔가 의식한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알만해요. 난 그래두 누님을 존경했었는데... 후회가 된다면 이제라도 돌아가라요.》

봉호의 목소리가 떨리었다.

《?!》

초점잃은 나의 눈길이 봉호의 얼굴에서 굳어졌다.

《미안해요. 내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랴요.》

봉호는 돌아섰다.

아직은 철이 덜든 애송이로만 여겼던 봉호가 엄성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찬 나의 마음속을 헤쳐보기라도 했단 말인가.

변명을 한다는것은 유치한 노릇이었다.

봉호는 어느새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사막에 홀로 선듯한 나를 비웃듯 어디선가 뼈꾸기의 울음소리가 귀따갑게 들려왔다.

《뼈꼭! 뼈꼭!》

×

숙소침대에 새우처럼 몸을 웅송그리고 앉은 나는 숨가쁘게 조여드는 고독감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썼다.

방금전 봉호앞에서 당한 창피를 생각하니 불화로를 뒤집어쓴듯 얼굴이 뜨거워났다.

눈먼 감정을 디디고 일어난 리성은 더 이상 창피를 당하기전에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부추기였다.

허나 그 어떤 알지 못할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쇠집게처럼 짊 물고 늘어지였다.

그게 무얼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뭔가 느껴지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여기로 떠나오던 날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길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남기라고 축복해주던 대학 선생님들과 다정한 동무들의 모습이였다.

이제 돌아가면 그들은 날 보고 뭐라고 할가.

비웃을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 되돌아선 비겁쟁이, 바람따라 돛을 다는 번덕쟁이라고...

그러면서도 청춘시절의 리상과 꿈이 어찌구 어

쥔다구.

남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루어놓은 창조의 터전에서 뭔가 향유하려는것이 너의 리상이고 꿈이었던 말이지.

그들은 위선으로 가득찬 나에게 침을 뱉을것이다.

나는 그제서야 일시적으로 영웅으로 떠받들리는 쉬워도 자신의 결심을 지키기는 험치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아, 난 이제 어찌면 좋담.

마음의 안정을 잃고 방황하는 나의 입에서는 연방 무거운 한숨만 새어나왔다.

피곳 눈길을 들어 창밖을 보니 저 앞 산봉우리에서 마지막 온기를 뿌리던 둥근 해가 지친듯 산너머로 사라지고있었다.

조만간에 달려들 어둠과 또 한밤을 싱갱이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진저리가 났다.

봉호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까딱도 않는다.

날 보고 누이, 누이하며 살갑게 굴던 봉호가 이제라도 나타나면 용서를 빌련만...

별안간 밖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눈길로 밖을 보니 열댓명의 청년들이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치녀들도 몇명 보였다.

(웬 사람들일가?)

휴식터에 이른 그들은 지고 온 배낭들을 벗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천개덕이 어떤 곳인가 했더니 멋있구만.》

《엄성오빠가 비계덩이라고 욕심을 낼만도 해요.》

《여기에 현대적인 축산기지가 일떠선단 말이지.》

《그새 엄성오빠와 봉호가 일을 많이 했군요.》

흥에 떠서 한마디씩 말을 하는걸 보면 저들도 여기에 《거주》를 하려고 오는것 같았다.

마침 봉호가 혈금씨금 달려왔다.

《형님들! 아니, 명심누나랑 왔군요. 모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청년들이 봉호를 에워쌌다.

키가 전주대처럼 쭉 빠진 청년이 봉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봉호, 수고해. 우린 관리위원장동지가 보내서 왔어.》

《관리위원장동지가요?》

《응, 올라가서 엄성형님을 도우라고 하더구나.》

《그래요!》

나는 그 말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천개덕이라면 머리를 흔들던 관리위원장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하루밤사이에 돌변하다니...

이번에는 씨름선수처럼 어깨가 딱 바라진 청년이 진중하게 입을 열었다.

《봉호, 래일 엄성동무가 우량종젓소와 염소 서른두마리를 차에 싣고 오는데 맞을 준비를 해야겠어. 축사를 정리하고 풀도 마련하구...》

《야! 그게 정말이예요?》

환성을 올리는 봉호의 입은 사과 한알이 통채로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커졌다.

서른두마리라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명심이라는 처녀가 노래하듯 말을 이었다.

《정말이야, 어제 관리위원장동지한테 금천종축장 지배인동지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자기는 천개덕일이라면 뭐든지 다 도와주겠으니 엄성오빠의 꿈대로 꼭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꾸려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려달라고 부탁하셨대.》

《?!》

나는 그 말을 꿈속에서 들은것만 같아 한동안 일어나간 사람모양 굳어졌다.

그것은 배나무에 사과가 열렸다는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소리였던것이다.

나는 엄성이가 아무리 고집이 센 벽창호라고 하여도 종축장지배인앞에서만은 어쩔수 없을것이라고 속단했었는데... 도대체 지배인은 엄성의 그 무엇에 감동이 되었길래 천개덕 일이라면 제일처럼 도와주겠다고 하였을가.

아까 봉호가 가슴을 두드리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이 심장의 호소...》

하다면 그가 지배인에게 한 심장의 호소란 무엇이였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다.

×

아기의 볼처럼 살이 진 달이 앞산 마루에 걸터앉아 나를 보며 웃고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수 없었다.

엄성에 대한 편협하고 웅졸한 속단으로 흐려졌던 량심의 거울을 닦는 나의 마음은 번거로웠다.

나는 그 동무보다 공부도 많이 하였고 그 못지않게 앞날에 대한 리상과 꿈도 컸건만 무엇을 물랐는가?...
무엇을...

문득 그 무엇인가 수수께끼의 답을 찾듯 고심하는 나의 심장을 두드리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텔레비존방송야외에서 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건설자의 격정에 찬 목소리였다.

《...그가 누구이든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간직할 때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각하십시오...》

아, 바로 그것이였다.

그 마당에서는 그 목소리에 충격도 컸고 그렇게 살리라 결심도 다졌었던만...

오늘은 왜 결심을 회피한 자신을 타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삶의 순간순간이 아버지장군님의 원래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려는 애국의 마음으로 이어 지지 못하였기때문이였으리라.

작은 사람은 산우에서도 작아보이고 큰 사람은 웅덩이안에서도 커보인다더니 자책이 깊어질수록 엄성이라는 인간앞에 깊이 머리가 숙어졌다.

엄성은 남들이 불모의 땅이라고 버릴번한 이 천개덕에 자신의 지혜와 정력,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깡그리 바칠 각오를 가지고 개척의 힘겨운 길을 걸어가고있다.

자기가 걷는 길우에 인민의 행복이 꽃피게 된다면 고생도 락으로, 삶과 행복의 전부로 여기는 인간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는 법이다.

과연 누가 이 천개덕에서 물원천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한달도 되나마나한 짧은 기간에 덩지큰 축사들을 일떠세우리라고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초불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제 몸을 아낌없이 태운다고 한다.

바로 엄성은 당의 뜻대로 인민들이 덕을 보는 축산기지를 꾸리기 위해 온넛을 초불처럼 불태우고있는것이다.

금천종축장지배인도 분명 엄성의 그 진정에 감동이 되었을것이다.

그런데 나는 눈뜬 소경이 되어 엄성의 헌신을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허황한것이라고 비웃었으니...

이야말로 제 얼굴 못난것은 생각지 않고 그것이 마치도 거울탓인듯 깨버리려고 한격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나야말로 경망스럽고 가소로운 인간이였다.

이제라도 엄성동무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에 다시 없는 청춘시절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창조해놓은것이 없이 흘러보낸다면 먼 후날 자기의 청춘시절을 뗏뗏이 추억할수 있을것인가...
...

동창을 보니 나를 보며 웃던 밝은 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오늘 엄성동무가 우량종젓소와 염소들을 싣고 도착한다고 했다.

그가 몹시 기다려졌다.

취사칸쪽에서는 봉호가 언제 일어났는지 칼장단을 치며 코노래를 흥얼거리고있었다

동무여 더운 땀 이 땅에 바쳐

내 조국 빛내는 보람찬 길에

아름다운 생의 자욱자욱을 새기여가자

어머니의 한생

채동규

어머니는 지금도
해방전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아버지 손목잡고 타박타박
수십리 산길 걸어 장터에 갔던 일
왜놈장사군에게 조선말로 값을 물었다 하여
아버지는 뺨을 맞고

감자 닳말 주고 바꾼 색동옷 찢어던지며
순사놈은 어린 어머니에게 눈알을 부라리고...
《아버지는 왜 저놈한테 지나?》
철없는 소녀의 물음에
아버지는 분해 가슴만 치고...

×

해방은
열두살 어머니에게 많은것을 주었다
수수대 흙집일망정
제 집 토방에 앉아 노래부르는 기쁨
봄날이면 제 포래 동무들과 함께
그네뛰는 구경도 하고
마당가에 높이 쌓은 쌀가마니우에서
《애국가》노래 부를 때
《나라를 찾으니 얼마나 좋으냐!》
아버지 술진 눈섭에 뜨거이 맺히던것...

×

어머니는 전쟁시기에 학생이었다
방공호벽 조선지도우에
다투어 승리의 기발을 붙이곤 했다

밤이면
등잔불아래 앉아
전선에 보낼 위문편지도 썼다
씩씩기가 퍼붓는 소이탄에
학교가 불타고 동무가 숨졌을 때
타다남은 책보 가슴에 불안고
원썩을 갇아달라 피타게 웨쳤다

×

우리 집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다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조국을 쌀로 받들며
늘 속타하는 마음
조국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는 그 심정
날이 갈수록 이 가슴에 사무쳐와라

×

이 나라 어머니들이라면
누구나 흔히 겪은 지난날 일들
큰 공도 별로 없는 평범한 생이건만
어머니한생에서 나는 조국을 본다
어머니한생을 알며 조국을 깨달았고
어머니한생을 조국의 년대들과 이어보며
그래서 조국이, 나의 위대한 선군조국이
백배로 귀중함을 나는 느낀다
어머니의 한생-
이는 내 조국 력사의 한 부분이다

경구, 격언

《시인은 인민의 인술자이며 동시에 인민의 총복이다.》

《시는 경향성이 뚜렷해야 한다. 다시말하여 시인은 전반적생활을 이루고있는 개별적인 무수한 현상에 대한 단정적이며 명백한 태도를 가지고 시를 써야 한다.》

《작가는 자기의 인물들과 함께, 자기의 주인공의 운명과 함께 살며 자신이 창조한 인물들이 가장 극적인 정황에 처하는 순간 심장을 그리워하며 자기 주인공들과 함께 울고 웃는것이다. 이럴 때 그의 주인공들은 진실로 산 인간이 될것이며 작가는 그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될것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것은 작품뒤에 덧붙은 구호나 조잡한 군더더기가 아니라 작품속에 반영된 진실한 생활이며 생동한 투쟁이며 고동치는 맥박이며 사상이며 정열인것이다.》

□ 단편소설 □



말없는 바다

김삼열

1

열차가 교역에 가까와질수록 나의 기분은 저도 모르게 들뜨기 시작했다. 한것은 인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교시에서 진행하고있는 수도물길건설진행정책을 취재하여 소개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떠난 길인데 이 건설장에는 내가 잘 아는 송승철이 돌격대의 리더장으로 일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좀 오래전의 일이지만 신입기자시절 나의 첫 취재는 어느 한 서해안 간석지건설장에서 일하고있던 송승철로부터 시작되였었다. 그때 송승철을 취재하여 발표한 나의 첫 기사는 많은 기자, 편집원들 특히 머리흰 선배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햇내기 신입기자의 티를 벗어버리고 도일보사의 당당한 중견기자로 자라났지만 기자생활의 첫 걸음을 떼던 시절을 돌이켜볼 때마다 나의 머리속에는 은연중에 송승철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곤 하였다.

기자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체험해본바 있겠지만 글을 쓰는 기자에게 있어서 어떤 취재대상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은근히 원심이 켜여지는 일이다. 어떤 취재대상을 만나는가에 따라 자기가 쓰는 기사의 성공여부가 크게 좌우되기때문이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언제인가 기자생활을 갓 시작했을 때 나는 취재차로 1제염소에 내려갔던적이 있었다. 그때 그곳 기술자들은 소금생산에서 난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비를 막는 대책을 비롯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담한 기술개건사업을 준비하고있었다. 이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그곳으로 간 나는 실험이 진행되고있는 어느 한 직장의 2층사무실에서 기술혁신돌격대를 책임진 책임기사와 마주 앉았다.

도면을 보면서 책임기사의 설명을 듣고있는데

문밖에서 떠드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통계원동무, 책임기사동지를 못봤소?》

《아이 참, 조용해요. 지금 도일보사 기자동지와 담화중이에요.》

《이거 어쩐다?!》

《무슨 일이에요?》

《비마이장치말이요. 기동각도를 수정하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면에는...》

나는 의아한 눈길로 책임기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책임기사는 생각에 잠겨 덩뎁히 창밖을 바라보고있다가 조심스런 어조로 입을 열었다.

《기자선생, 도면에 반영된 새 기술은 세계적인로도 첨단기술에 속하는것입니다. 게다가 방대한 공사지요.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때라 부족한것이 많은데다가... 또 얼마 안있어 장마도 닥치겠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 종전계획보다 낮은 단계에서 도면을 일부 수정했더니 저러지 않습니까...》

별로 우뚝해보이는 인상적인 코를 가진 50대의 책임기사의 눈에는 잘못된 서글픔이 비껴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취재수첩을 슬며시 접어들고말았다.

환경이 어렵다고 뒤걸음치다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좋은 글감을 기대할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생각던끝에 제염소와 린접한 곳에서 벌어지고있는 간석지건설장으로 취재의 발길을 돌리고말았던것이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때의 내 판단이 옳은것이였다고 말하고싶은 나였다...

교역에서 내린 나는 곧장 건설장으로 떠났다. 서쪽하늘가에서 검은 구름이 밀려왔다. 어제밤 기상예보에서 소낙비가 내린다고 하던것이 생겼다. 기상예보를 듣고도 감빡 잇고 비웃을 가지고 떠나지 못한것을 후회하며 나는 폭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온 하늘을 덮어버린 소낙구름에서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져내리기 시작했

다. 길은 삽시에 진창으로 변했다. 억수로 퍼붓는 비와 튕겨나는 흙탕물에 옷주체가 엉망이 되어버리고말았다. 그래도 나는 취재가방을 그러안고 공사장으로 달렸다. 숨이 찼다.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달려가려는데 길게 뻗어간 가물막이쪽의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법석 뽐고있는것이 보였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가보니 가물막이 쪽이 크게 손상되어 흙을 채운 가마니와 마대를 쌓아놓은 부분이 금시 터져나갈듯이 뒤로 밀리고있었다. 어떻게 그것을 취재하려고 오던 길인데...》

《려단장동무말입니까? 지금 휴가중이어서 가야만하지 못할겁니다.》

《휴가라니요?!》

《그럴만한 일이... 아, 참 오늘이 12일이니까... 아마 래일 아침엔 돌아올수 있을겁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럼 하루밤 기다려보겠습니다.》

차츰 비발이 가늘어지고 작업이 끝난 모양으로 물에 들어갔던 돌격대원들도 하나둘 제방우로 올라왔다. 우리 두사람은 숙소로 돌아가는 돌격대원들속에 섞여 걸으며 얘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혹시 려단장동무의 집에 무슨 불상사라도 생긴게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요 며칠전에 웬 아주머니가 찾아왔었는데 려단장동무와 오래동안 얘기를 나누고 돌아갔지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에 방에 들어가보니 퍼그나 두툼한 색날은 책 한권이 놓여있었습니다. 그날밤 려단장동무의 방엔 불이 꺼지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글썽 휴가를 제기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아주머니는 누군데요?》

《려단장동무의 동창생의 안해라던지...》

정치부장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

그는 나를 송승철의 사무실까지 안내해주었다. 나는 이곳에 오면 늘 려단장과 숙식을 같이하곤 했다. 이런 나와 승철의 관계를 잘 알고있는 정치부장이었다.

송승철의 방은 간소했다. 수수한 책상과 걸상들, 서류함과 옷걸이가 전부였다.

방은 정돈되어있지 않았다. 서류함우에 놓여있는 그의 작업복. 이것만 보아도 그가 휴가를 받기전에 마음부터 정돈되어있지 않았음을 잘 알수 있었다. 그는 생활을 절제없이 되는데로 하는것을 질책하는 사람이였다.

전혀 고민거리가 있을법도 하지 않는 이 사나이가 무엇때문에 뜻밖의 휴가를 신청했을까?

세목장에서 어지러워진 몸과 옷을 다 씻고 후방 부장이 가져온 속옷들까지 갈아입은 나는 방을 거두기 시작했다. 바닥을 닦아내고 책상과 서류함을 정리하던 나는 그 밑에 놓인 두툼한 책 한권을 보게 되었다. 뚜껑에는 김철웅이라는 이름만 써여있었다. 호기심이 동한 나는 참지 못하고 뚜껑을 번졌다.

미리 발견했는지 돌격대원들이 물속에 뛰어들어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나도 그들을 도우려고 물에 들어서려는데 등뒤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자동무였구만요. 그만 두십시오. 이젠 급한 고비는 넘겼으니... 일없습니다. 이쪽으로 물러서십시오.》

돌아보니 목소리의 임자는 이곳 돌격대의 려단 정치부장이였다.

《아, 정치부장동무였구만요. 송승철려단장동무를 《19××년 8월 17일 날씨 흐렸다.》

나는 오늘도 검사도장을 찍고야말았다. 오늘따라 송승철동무의 생각이 난다. 그는 분명 주저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리고보니 그 동창생의 안해가 가져왔다는 그 일기장인것 같았다. 첫머리에서부터 송승철의 이름이 써여진것으로 보아 그와 어떤 남다른 사연으로 련결되어 있으리라는 짐작이 갔다.

2

로상에서의 피로로 하여 나는 인차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정신은 점점 더 포렷해지였다. 그것은 내마음이 자석처럼 일기장으로 끌려갔기때문이었다. 남의 일기장을 본다는것이 도덕적으로 건전치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승철과 관계되는 그 어떤 사연이 적혀있을것만 같아 끝내 일기장을 손에 들고야말았다.

《19××년 8월 17일 날씨 흐렸다.》

나는 오늘도 검사도장을 찍고야말았다. 오늘따라 송승철동무의 생각이 난다. 그는 분명 주저하지 않았을것이다.

졸업식을 앞두고 가진 모임때 모든 동무들이 웨쳤다. 우정에 대하여, 위훈에 대하여... 나도 몇번이나 연단에 나서려고 했지만 끝내 그러지를 못하였다. 나는 매번 소심한 내 성격에 화를 냈다. 그렇지만 교정을 떠나는 이 마지막모임에서까지 나서지 못한다면 정말 졸장부라고 나는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한다?... 그래, 학창시절의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해야지.

드디어 주저주저하며 연탁으로 나서려는 때 나의 결심은 또다시 깨지고말았다. 모임의 발기자인 승철동무가 나섰던것이다.

《동무들, 나는 이 모임을 마치면서 동무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모두 당이 맡겨준 초소에 달려나가 조국앞에 바친 자기의 땀과 열정이 스민 창조물들을 안고 10년후 이 자리에 다시 모일것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배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당의 과학자, 기술자답게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성과를 안고 모교의 교정으로 들어섭시다.》

교실안은 격정으로 끓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그런 발기를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얼마나 가슴벅찬 호소인가. 자신을 자각하고 다잡게 하는 호소였다.

나는 내 비록 오늘 연단에 나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지만 10년후에는 기어이 뿔뿔하게 연단에 올라 오늘을 값있게 추억하리라고 굳게 결심하며 승철동무를 향해 힘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승철, 그는 언제나 멀리 내다보곤 했다. 하긴 그는 대학전기간 최우등생이었으며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수재였다. 멀리 보는 눈은 지식에 있다고들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 멀리 보는 눈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대학입학초기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첫학기 시험을 마친 우리들이 막 겨울방학을 떠나려고 기숙사에서 차비를 서두르고있을 때였다.

누군가가 문득 《승철동무가 왜 안보여?》라고 말해서야 우리는 아침부터 그가 보이지 않았음을 느꼈다.

<정말, 어디 갔을까?>

동무들이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표시했다. 누구도 승철동무가 간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종일 그를 기다리다가 저녁기차시간이 되어 하는수없이 역으로 나갔다.

역에 배워주러 나온 담임선생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우리는 승철동무가 아침부터 대학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학기 외국어시험에서 승철동무는 4.4의 성적을 받았었다. 만족할만한 성적은 아니었으나 비교적 원만한 수준의 성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승철은 스스로 방학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담임교원이 그에게 다음 학기에 분발할셈치고 방학을 떠나라고 권고하였지만 승철동무는 량심에 허락치 않는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뜨거워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두과목씩이나 4점의 성적을 맞고서도 아무 대책도 없이 집으로 가려는 나 자신에 대한 환멸감이 나의 온몸을 휩쌌다.

나는 끝내 발걸음을 돌리고야말았다. 그해 나는 승철동무와 함께 설날을 대학에서 맞았다.

그때부터 나는 승철동무를 마음속 거울로 삼고 거기에 나를 비추어보며 학창시절을 열정에 넘친 배움의 나날로 보냈던 것이다...

나는 졸업후 불과 석달만에 벌써 <대합조개의 인공증식>이라는 제목으로 된 승철동무의 소론문을 과학기술잡지에서 보았다. 그런데 나는... 그때의 결심과 흥분은 어디 가고 지금 이려고 있는가?

승철동무가 만약 량심에 허락되지 않는 검사도장을 찍어주는 나를 보았다면 어떻게 타매했을가.

<여, 철웅동무. 빛나는 인생은 자기 량심과의 투쟁이야.>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오늘도 졸업사진을 들여다보니 피로기만 하다.

파연 내가 모교로 뿔뿔이 돌아갈수 있을까?...》

나는 일기가 자책으로 시작된것이 좀 이상했다.

무슨 검사도장을 찍었다는것인지...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 김철웅이라는 동무가 승철철의 뒤통을 높이 사고있다는것만은 명백히 알수 있었다.

나는 일기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19××년 8월 21일 날씨 약간의 비가 내렸다. 어장을 들여다보던 나의 숨소리는 저도 모르게 거칠어졌다. 당장 알쓸이를 해야 할 정착어미고기들이 몇마리 섞여있었던것이다. 선장을 보는 나의 눈살은 쫓꼈다.

(류동하는 고기떼를 쫓다니니 어장에서 조금 벗어나 그물질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몇마리 섞였구만.》

선장은 딱하다는듯 미간을 모으며 마주 바라보았다.

<지금이 알쓸이철이라는걸 알겠지요?>

<어찌겠소. 기사동무는 생산때문에 애쓰는 우리 심정을 다는 알수 없을거요. 오죽하면...>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일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알쓸이철에 정착고기를 잡으면 안되지요. 그게 설사 한두마리라도 그렇지요. 이것은 나라의 법이자 바다사람들의 량심입니다.>

나는 량심이란 말에 그루를 박았다. 그리고는 섭섭해하는 선장과 어로공들의 원망에 찬 시선을 받으며 실험실로 돌아오고말았다. 실험실에 들어서니 실험공 선회의 의혹에 찬 눈이 나를 지켜보았다.

잠시후 문이 열리며 지배인이 들어섰다.

<기사동무, 합격도장을 안찍었소?>

선장이 지배인을 찾아갔던것이 분명했다.

<지배인동지, 그 선장동무는...>

<음, 나도 방금 나가보고 오는 길이네. 알찬 고기가 몇마리 안되더군. 계획때문에 애쓰는 그 사람들 립장도 좀 봐줘야 하지 않겠소?>

<예? 그 사람들 립장말입니까?>

손맥이 풀렸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더구나 내가 처음 배치되어왔을 때 여기 작은 수산협동도 마다하지 않고 온 대학졸업생이라고 기뻐하며 손잡고 본때있게 일을 해보자고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지배인이었다.

<지배인동지, 어로공들의 립장을 생각해주는 길은 제가 이미 제기했던바대로 큰새우를 인공서식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나는 지배인에 대한 무너지는 기대를 지령해보려고 다시 조심히 제기해보았다.

<허허... 참, 이보라구. 그 큰새우를 인공서식하는데 드는 술한 노력과 자재는 어떡한단?>

<그럼 지배인동지는 계획, 계획 하면서 계속 이런식으로 일하자는겁니까?...>

어장은 계속 멀어지지, 그렇다고 가까운 바다에서 그물질이야 못할게 아닙니까.

만약 가까운 바다에서만 고기를 잡아낸다면 그

건 《도적행위》란 말입니다, 《도적행위》!>

내 목소리는 실험실안을 드르릉 울렸다.

<뭐라구?! 《도적 행위》?...>

지배인은 아연해진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열방에서 쟁가당하는 그릇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선희가 무엇을 깨뜨린 모양이었다. (그는 지배인의 딸이었다.)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온몸이 흥분으로 떨리기도 했지만 지배인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었다. 갑자기 긴장해졌다.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지배인은 돌아섰다.

나는 불안해서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지배인을 노엽힌것이다. 좀 다르게 말할수는 없었을까?

그러나 곰곰히 돌이켜볼수록 점점 더 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나야 조국이 키워준 새세대 지식인이 아닌가. 이런 때 승철동무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19××년 8월 28일 날씨 맑다.

아침부터 체육경기로 흥성거리던 청년절날 저녁에 사업소 앞마당에서는 무도회가 펼쳐졌다.

모두가 즐겁게 웃으며 춤을 추는데 나만은 례외였다. 워낙 소심한데다가 지배인과의 <대결>을 모두가 아는것 같아 사람들과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조용히 혼자 있고싶어 함숙으로 스택스적 걸어갔다. 땅만 내려다보며 걷던 나의 눈에 불시에 흰비닐구두가 비쳐들었다. 놀라서 얼굴을 드니 선희가 앞에 서있었다.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산뜻하게 받쳐입은 선희는 오늘따라 별로 아름답게 보였다.

쌍까풀진 눈, 선이 곧은 오희한 코. 보기 좋게 흘러내린 머리카락에 상큼한 목... 이 처녀가 이렇게 고왔던가.

내가 함숙생활을 한다고 이따금 점심밥팩을 가져오곤 하던 그의 고운 눈에 서운해하는 기색이 비껴있었다.

<함께 춤을 추지 않을래요?>

뜻밖의 말이었다.

<난 춤을 출줄 모르오.>

나는 어색하게 대꾸했다.

<동진 비겁해요.>

<뭐, 내가 비겁하다구?>

당황했다. 나는 정말 춤을 출줄 모른다. 대학시절에도 끝내 춤만은 배우지 못하였다.

<기사동지, 함숙에만 불박혀있지말고... 힘을 내세요.>

역시 뜻밖의 말이었다. 허나 이번의 어조에는 은근한 동정이 느껴졌다.

<뭐라구?!>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제저녁 당위원회에서 토의했대요. 기사동지 말대로 큰새우서식장을 꾸리자구 말이에요 그리고 기사동지 책임자로 선출했대요.>

선희는 얼굴에 흥조를 띄우고 또박또박 말했다.

<뭐, 그게 정말이요?!>

현훈증이 일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선희앞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믿으세요. 이제 인차 곧 서식장건설이...>

<누가 나를 선출했다는거요?>

나는 선희의 말을 밀막으며 다급히 물었다.

<아... 버지...>

선희는 갑자기 말을 더듬었다.

<지배인동지가?>

<그리고 전... 기사동지... 조수래요.>

나는 어째서 나에게 책임을 지웠을가 히는 생각을 머리속에서 굴리면서 선희를 바라보았다.

나보다 년한도 오래고 경험도 더 많은 기사들도 많은데? ... 게다가 눈썹미가 있고 일숨씨가 여무진 선희까지...

어쨌든 기뻐다. 일감이 생긴것이다. 이 일은 제품검사나 하는 단순한 일감이 아니었다. 졸업후 1년만에 맡은 일감, 10년후 모교에서 만나자고 호소하던 송승철동무와 많은 동창생들과 어깨를 겨룰만한 일감이다. 지금쯤 동무들은 얼마나 큰일들을 결메고 앞장서 가고 있을가. 나도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히 따라서자.》...

또 송승철에 대한 이야기였다. 1년이 지난 그때라면 승철은 벌써 돌격대의 쟁쟁한 중대장으로 간석지건설장 일판을 들었나놓고 있을 때였다.

일기의 구절들을 음미해보면 철웅이란 동창생은 승철과는 대조되는 성격을 가진 소심하고 온순한 사람인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차분해보이는 그의 인간미와 솔직성이 진실하게 안겨와 일기는 계속 나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서식장건설을 시작해서 다음해 3월말까지 그들은 6개월동안에 큰새우서식장을 꾸려놓고 4월부터는 큰새우서식에 착수했다.

여기서 조수처녀 선희의 모습이 주목을 끌었다. 세멘트가 모자라면 밤새워 어디선가 세멘트를 구해왔고 서식장에 필요한 설비들과 기구들을 구입하기 위해 며칠씩 어디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사료들을 마련하느라 입술까지 부르르며 애도 썼고 철웅에 대해서도 보호자마냥 정성도 지극했다. 나는 이악하고 사랑스러운 이 처녀가 후에 혹시 김철웅의 안해가 된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는 계속 일기장의 구절들을 읽어나갔다.

《19××년 7월 25일 날씨 흐리고 몹시 무덥다.

나는 큰새우서식이 얼마나 힘든지인지 요즘에 와서 더욱 새삼스레 느끼는것 같다.

사료도 모자라고 잡어따위들이 새끼새우들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고충은 삼복더위 때 겪게 되는 난관이었다. 한참 더울 때는 새우들의 먹이활동도 떠지고 물갈이가 어려워 오염된 물때문에 새우들의 폐죽음이 생기곤 했다. 더 안타까운것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바다에서 살던 큰새우를 키우는 일은 우리같은 수산협동에서는 어렵도 없다. 이제라도 그만두는것이 낫지 않겠는가고 반신반의의 태도를 취하는것이였다.

나는 실망에 빠져버렸다.
그런데 오늘 나의 실망을 더해주는 일이 생겼다. 내가 서식장안에서 새우들을 잡아먹는 망둥어 낚시질을 하고있는데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하던 말이 틀리지 않았군.>
지배인의 목소리였다. 나는 황황히 일어섰다.
<그래 방도는 없겠소?>
<예, 방도는 매일 바다물 1,000립방을 새로 넣어주고 오염된 물 700립방을 뽑아주는것인데 대형양수기 두대면 충분합니다.>
<그건 안되오. 대형양수기가 없기도 하거니와 전기사정은 더 긴장하오.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지.>

<그럼?...>
<기사동무, 어떤 사람들은 이제라도 그만 두자고 하는데... 그게 옳지 않을까?>

《...》
나를 바라보는 지배인의 눈길에는 썩 측은해하는 빛이 엿보였다.

<이러다간 집돼지, 산돼지 다 놓치겠군.>
지배인은 몹시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한손을 책 내젓고는 서식장을 한바퀴 터벅터벅 돌아보더니 가버렸다.

나는 지배인이 꽤섬하게 생각되었다. 수치감에 얼굴이 달아오른 나는 손에 쥐고있던 낚시대를 딱 소리가 나게 꺾어버렸다. 저쪽에서 갈게들을 잡아내던 선희가 안타까운 눈길로 나를 보고있었다.

저녁이었다. 선희가 밥을 날라왔다.
<기사동지, 식사하세요.>
<먹고싶지 않소.>
<입맛이 없을 땐 토장과 고추가 좋대요.>
선희는 토장그릇과 싱싱한 풋고추를 상우에 펼쳐놓았다.

<선희동무, 내가 공연히 벌려놓은게 아닐까?>
나는 물주전자를 들고 선 선희에게라기보다 내 자신에게 물듯 중얼거렸다.

<예?! 이자 뭐라고 했어요?>
<지배인동지는 집돼지, 산돼지 다 놓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 어디 손뭉이 풀려서...>

<그래서 낚시대를 꺾어버렸나요?>
<할수없지 않소. 일은 잘 안되지. 시비는 많지... 이제 동무 아버지까지...>

<그럼 기사동진 도피하자는거예요?>
격해진 선희의 목소리가 나의 얼굴을 후려치듯 울렸다.

<선희동무, 왜 그러오?>
어리둥절해진 나를 쏘아보는 선희의 입에서 뜻밖의 말들이 쏟아졌다.

<기사동진 언제인가 우리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마구잡는 물고기잡이는 《도적행위》라구요. 그런데 지금 동지는 뭐가 되려는지 알아요? 배반자예요. 한번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꺾어버리는것은 혁명앞에 도피하는것이나 같은거예요. 좋을대로 하세요. 기사동지 없이도 우린...>

나는 흐느끼며 달려나가는 선희를 얼없이 바라보았다.

<배반자?!>
나는 성실한 선희를 모욕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마다 빠질빠질 타들어가는 작은 입술을 감쌀다가도 언제나 제먼저 웃어 보이곤 하던 선희, 선희는 나를 믿고 이 일에 뛰어들지 않았던가. 나는 나 자신이 시시하게 느껴졌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수문쪽에서 선희의 흐느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선희동무!>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사동지, 대답해요. 연구사업을, 아니 이 바다를 정말 버리겠어요? 거짓말이지요, 예?>

선희는 얼굴을 감싸쥐고 다시 어깨를 들먹였다.

<선희동무, 내 이 바다에서 죽으면 죽었지 물러서지 않겠소. 믿어주오.>

눈물로 얼룩진 선희의 얼굴에 웃음이 비졌다.
<예, 정말이예요?! 기사동지, 방도는 있을것 같아요. 새로운 물은 이 수문으로 받고 뽑아버릴 물은 제염소쪽으로 넘기는거예요. 1차 증발된 물이니 제염소쪽에서도 좋고 우린 새우를 살리고...>

나는 선희의 두손을 덥석 잡았다.
<바로 그거요. 그건 집돼지, 산돼지 다 놓치는게 아니라 꺾먹고 알먹는 격이요. 동문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선희는 내게 손목을 잡힌채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기사동지에게 전하라고... 래일부터 제염소 사람들이 온대요. 물을 받아가는 수문공사는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한대요.》

<지배인동지가?!>
그러니 지배인동지는 속궁냥이 다 있어가지고 서로 나의 의지를 가늠해보려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나는 내가 쥐고있는 선희의 두손이 벌스레 더 따스해짐을 느끼며 정다운 눈길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떤 일에서나 일군들의 지지가 자못 중요하다.

여기 수산협동에서도 물론 철웅과 선희가 애쓰기도 있지만 지배인이 뒤에서 밀어주니 첫해에 벌써 6톤의 큰새우를 서식할수 있었다. 이런 경험에 기초하여 철웅은 그후 몇년어간에 언제부터인가 앓기 시작한 《근위축증》이라는 병마가 심신을 괴롭히는것도 무릅쓰고 새로운 방법의 큰새우 인공증식기술을 완성하였다.

《200×년 12월 1일. 날씨 첫 눈이 내렸다.
오늘 아침 지배인이 나를 찾아 서식장사무실에 들어섰다.

<이보게 책임자, 이 옷을 입어보라구.>
새로 지은 옷이었다.
<제게 옷이 없을가봐 그러십니까?>

<글쎄 입어보라니까. 자!>

그는 어리둥절해진 나를 다짜고짜 일켜세우더니 옷을 입히려 들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마비가 오기 시작한 왼쪽팔과 다리를 괴롭게 움직여가며 천천히 옷을 입었다. 나에게 넥타이까지 매여주며 싱글벙글 웃는 지배인을 보니 꼭 친아버지를 보는것만 같았다.

<지배인동지, 대체 웬일입니까?>

<장가를 들자구.>

<장가요?! 색시두 없이 어떻게... 하하...>

나는 얼굴이 벌개서 어처구니 없다는듯 웃어버렸다.

<색시가 왜 없어. 여길 보라구.>

지배인은 출입문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젖혔다.

순간 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첫날옷을 입은 선희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아!->

나는 저도 모르게 주저앉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는 정말 선희를 사랑했었다. 그것이 어느때부터였던가.

나의 조수가 되어 서식장을 함께 건설하던 날이었던가 아니면 이 바다의 배신자가 되지 말라고 흐느껴울던 여름날의 그밤이였던가...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올라수록 선희를 외면하려고 했다. 나는 불치의 병을 앓고있는 몸이 아닌가. 나때문에 선희가 불행해진다면...

<지배인동지, 안됩니다. 내 병은 이미...>

나는 항변하듯 큰소리로 웨치고싶었으나 떨리는 말소리는 목구멍에서 웅얼거려지고말았다.

<그만두게. 병이야 치료하면 되는거구. 선희는 꼭 임자와 일생을 같이하겠대. 어서 일어나라구.>

<아니, 안됩니다... 그래서...>

나는 몸을 떨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지배인은 한동안 떨리는 내 몸을 부둥켜안고서있었다. 한참만에야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저기 갈려있었다.

<자네가 정말 큰 일을 해서 우리 수산협동이 허리를 쭉 펴구 나라살림살이에 이바지하고있는 지금... 내 생각이 많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바다 <도적>이 될번 하지 않았나. 바다를 지켜보자고 애쓰는 자네의 그 마음에 난 언제나 부끄러웠네.

철옹이 이사람, 내 선희아버지로서 말하네만 임자같은 사위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 자, 어서 일어나게. 사람들이 기다리고있어. 참. 임자 어머니두 도착했을거네. 선희가 전보를 다 쳐놓았었으니까.>

나는 그만 혹 하고 흐느끼고말았다. 선희도 웃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나는 지배인과 선희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주고있었다.

하늘에서는 축복의 꽃보라인양 함박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있었다.

<장가가는 날 함박눈을 맞으면 복을 받는다더군.>

누군가 혼자소리처럼 하는 말이였다. 바다가사람들의 진정어린 축복이였다. 나의 눈에서는 건잡을수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복해줄가? 그것은 내가 자기들처럼 바다를 사랑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리라는 그 믿음때문일것이다.

내가 이 바다를 안고 이 바다를 더욱 풍만하게 가꾸며 한생을 살것이라는 그 믿음때문에...

문득 송승철동무와 동창생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눈앞에 비친다. 나는 마음속으로 웨쳐보았다.

<동무들. 우리 모교에서 꼭 다시 만나자구. 그때에 나는 이처럼 진실하고 인정많은 이 고장사람들의 념원대로 더 큰 연구성과를 안고 갈테요.>

눈시울을 적시며 바다를 바라보니 검푸른 수평선 저멀리에서 흰 파도가 갈기를 일으키며 달려오고있었다. 나는 더위오는 마음을 안고 선희의 손과 지배인의 역센 팔에 의지해서 체방뚝우를 힘차게 걸어나갔다.》

...

일기를 마지막까지 다 읽고나니 마음속에 이름할수 없는 그 무엇이 가득차올랐다. 내 나라 어디 가나 가슴뜨겁게 불수 있는 참된 인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크지 않은 어촌에서도 찾아보게 되는 기쁨이 나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케 했다.

김철웅, 그는 고치기 힘든 병을 앓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초소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송승철의 갑작휴가에서 처음엔 펍 놀랐었지만 일기를 읽고나니 충분히 이해가 갔다. 가까운 대학동창생의 묘소도 찾아보지 않는다면 어찌 의미가 있는 인간이라 하겠는가.

나는 일기장에 비쳐진 성실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는 흥분때문에 한참이나 뒤척거리다가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야 잠에 들었다.

3

나는 돌격대원들의 대렬합창소리가 들려올 때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충 세면을 하고 밖으로 나서니 뜻밖에도 송승철이 다가오고있었다.

《려단장동무, 오래간만입니다. 언제 왔습니까?》

《예... 지금 도착하는 길입니다.》

건성 대답하는 승철의 표정은 별로 심각해보였다.

《시장하겠는데 곧장 식당으로 갑시다.》

나의 이 권고에도 승철은 《예, 먼저 가십시오. 난 좀 이따...》라고 사양하며 자기 방쪽으로 걸음을 옮기는것이였다. 내가 오면 언제나 꼭 함께 식사를 하곤 하던 그였다.

하는수없이 혼자서 식당으로 가 아침식사를 마친 나는 어느 중대대렬과 함께 현장으로 나왔다.

지금 러단은 대동강하류로 흘러드는 금천강을 막는 가물막이언제를 쌓는중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밀에 음료수가 흘러들 대형잠관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강바닥의 굳은 땅이 나올 때까지 감탕을 퍼내야 할수 있었다.

이런 작업조건으로 하여 러단의 작업속도는 자연히 떠졌다. 저런 수령판에는 양수기는 물론 다른 기계수단들도 맥을 추지 못하였다. 벌써 성미 급한 축들은 깊이를 알수 없는 수령판에 들어섰다가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곤 하여 웃음보를 터쳐올리곤 했다. 술한 인원들이 똑 랑쪽에서 소랭이나 바께쓰로 조심히 퍼올리고있는것이 꼴불견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끝내기가 어려울것이었다.

이때였다. 저 맞은편 기슭에서 이마에 수건을 질끈 동인 한 사나이가 수령판에 뛰어들었다. 일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었다. 그 사나이는 비철거리면서도 한결음한결음 전진하기 시작했다. 꺾벌어진 어깨, 특히 푸른색운동복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그럼 러단장이?!

나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내가 송승철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간석지에서의 그날이 떠올랐다.

...그날은 해상정보가 있는 날이었다. 바람은 초당15~20미터, 파도는 4미터이상...

돌격대원들은 휴게실에 대피해있었다.

《푹이 무너진다. 굴착기가 위험하다!》

현장을 감시하던 돌격대원의 다급한 웨침이었다.

《굴착기가?!》

태평스레 누워있던 두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굴착기운전공들이었다. 공사마감단계에서 푹막이 큰 돌을 끌어낼을 두대의 굴착기가 실려와있었던 것이다.

운전공들이 달려나갔다. 취재나와있던 나도 돌격대원들속에 섞여 뒤따라나갔다. 제방끝에 이르니 푹이 물에 씻기면서 물러앉고있었다. 파도를 피해 굴착기에 뛰여오른 운전공이 발동을 걸었다. 육중한 기계가 움짚거리자 도리어 푹이 물속으로 주저앉아버리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제는 파도가 물속에 잠기는 굴착기를 먼바로 후려치기 시작했다. 모두가 아연해졌다. 조금후이면...

이때 푸른색운동복바람의 한 겹은이가 나타났다. 송승철이었다. 대대지휘부에서 회의도중에(그때 그는 중대장이었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허리에 바줄을 매는 그에게 돌격대원들이 막아섰다.

《중대장동지, 위험합니다.》

《비키시오. 위험한건 운전수와 굴착기야.》

파도가 물속에 잠겨들기 시작한 굴착기를 삼킬듯이 덮쳐들고있었다.

나도 승철을 막아섰다.

《중대장동무, 저길 좀 보십시오.》

《압니다. 5분후에 이 바줄을 당겨주십시오. 내 잠수시간은 5분입니다.》

승철은 히쭉 웃어보이고는 굴착기들을 서로 련결할 쇠바줄을 쥐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파도가 하늘높이 솟구쳤다 떨어지며 승철을 삼켜버렸다.

아!-

모여선 사람들속에서 비명이 터져올랐다.

한초 또 한초...

긴장해서 서있던 사람들이 바줄을 당기려는데 송승철이 굴착기우로 솟구쳐올랐다.

《당겨라!》

드디어 그는 쇠바줄을 굴착기앞고리에 걸었던 것이다. 이미 제방꼭우에 서있던 다른 한대의 굴착기쪽에서도 발동소리와 함께 돌격대원들이 용을 쓰는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지금도 그때처럼 앞장에서 수령판을 헤쳐가고있었다.

《중대별로 바줄을 늘이시오. 그리고 바줄에 의지해서 퍼내면 푹 안전하오.》

《?!》

듣고보니 승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저 사람은?... 나는 옷주머니에 넣었던 안경을 꺼내여 눈가에 가져가며 감탕에 범벅이 된 목소리의 입자를 살펴보았다. 참모장이었다.

나는 곁에 서있던 정치부장에게 물었다.

《러단장동무는?...》

《예, 러단장동무는 러단지휘를 참모장동무에게 위임했습니다.》

《예?!》

러단장이 있으면서 참모장에게 러단지휘를 맡기다니?! ... 이것은 송승철이 휴가를 받았다는 소식보다 더 놀라운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하여 더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다. 벌써 수령판은 바줄을 매고 참모장의 뒤를 따르는 돌격대원들로 불도가니처럼 끓여번지기 시작했다. 나도 일판에 뛰어들었다.

참모장의 방안은 묘안이었다. 길게 늘어놓은 바줄에 몸을 의지하고 감탕을 퍼넘기는 작업은 점차 고조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능률이 처음보다 급절은 더 나는것 같았다.

늘 봐야 말수더구가 적고 과묵한 인상을 주던 참모장도 역시 러단을 능숙하게 이끌 능력있는 지휘관이었다.

러단은 점심식사까지 작업장에서 해가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작업을 다그쳤다. 이런 기세이면 장마철전으로 굴착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물길을 개통할것 같았다.

하루일을 마친 나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가물막이푹너머 금천강에서 몸을 씻은 다음 승철을 만나고싶어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방은 비어있었다. 혼자 식당으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에야 승철이 방에 와있었다. 그런데 승철은 내가 방에 들어선것도 느끼지 못하고무슨 책임가를 정성들여 포장하고있었다. 일기장이었다.

나는 문득 생각키우는게 있어 그앞에 다가서며

물었다.

《가만, 러단장동무. 그 일기장을 내게 보여줄수 없겠소? 다문 며칠동안만이라도 말이요.》

승철은 웬일이냐는듯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 어제 일기를 보니 그대로가 글감이더구만. 그래 이번 공사취재기사와 함께 그 동창생의 일기를 가지고 기사를 하나 써볼가 하오. 어떻소?》

《기사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응답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일기장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다.

나는 진지하게 설명했다.

《성실하고 참된 동지를 소개하고 내세워주는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보오. 더구나 그 동창생이야 잊지 못할 친구가 아니요.》

승철은 피로운듯 인상을 찡그렸다.

《후- 잊지 못할 친구... 기자동무, 사실 나는 철웅동무의 이름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미처 생각지 못했었소.》

《뭐요, 생각지 못하다니?》

내가 놀라거나 말거나 승철은 추연한 눈길을 어두워진 창밖으로 돌렸다.

《철웅동무의 안해가 상기시켜주어서야 그 동무를 생각했소. 허참, 워낙 철웅동무는 학급에서도 성격이 온순하고 조용한 동무였지요. 그런데 그런 동무가...》

승철의 어조는 무척 심중했다.

나는 그러한 승철에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뭔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싶었다.

《러단장동무의 심정은 알만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순간에 생각해내겠소. 이렇게 합시다. 내 말대루 기사를 잘...》

승철은 이내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됩니다. 철웅동무자신이 그걸 원치 않았을겁니다.》

《?!》

나는 일기장을 생각깊은 표정으로 어루쓸며 나의 제의를 거절하는 승철의 태도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보다 나는 철웅동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철웅동무의 안해가 나에게 부탁하더군요, 우리 동창생들의 10년상봉모임에 이 일기장을 꼭 가지고 가달라고 말입니다.》

《일기장을 말입니까?!》

세상을 떠난 동창생을 대신하여 일기장이 대хар으로 간다! 남편을 위하는 그 녀인의 마음은 참으로 지극하고 뜨거운것이였다.

《그리고 철웅동무의 안해는 남편이 못다한 연구과제를 마저 완성하기 위하여 며칠후에 서해안 답사를 떠난답니다.》

비록 자기네 수산협동해안의 협소한 범위에서는 큰새우양식에 성공했지만 남편의 최종적인 연구목적이 우리 나라 서해 전반해안에서의 큰새우양식을 성공시키는것이였다고... 수산협동지배인인 아버지랑 도와주어 모처럼 차례진 기회를 놓

칠수 없다면서... 일기장을 나에게 부탁했던것입니다.》

《그럼 그 녀성은 남편대신 대학엘 못가지 않겠습니까?》

승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지금 큰 새우의 번식철이어서 자리를 뜨지 못하겠다면...》

《정말 쉽지 않은 녀성이군요. 그래 모교에서 다시 만나는 그 10년상봉모임날이 언제입니까?》

승철은 또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후- 래달 17일입니다.》

《원, 아직 한달이나 더 남아있구만요.》

《기자동무, 그런데 사실 난 대학으로 갈수 없습니다.》

《?!》

승철은 의아해하는 나를 괴롭게 바라보며 말머리를 돌렸다.

《기자동무, 먼저 쉬십시오.》

나는 당장 무엇때문인가고 묻고싶었지만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싶지 않아 그만두고말았다...

그후 취재를 끝내고 러단을 떠날 때까지도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물어볼수 없었다

본인이 말하기 않는 이상 더 캐여묻는다는것은 실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4

나는 한달이 지난 후에 또다시 교시에서 진행되는 수도물길공사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바쁜 걸음을 놓아 물길공사구역에 들어선 나는 몰라보게 변모된 공사장의 전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로길에는 새로 입힌 잔디가 짙어있었고 돌격대원들이 석축한 제방안에서는 맑은 물이 출렁이고있었다. 공사예정날자를 펴 앞당겨 물길을 개통시킨것이였다.

이번 출장길은 한달전과는 의미가 달랐다. 그때는 편집부장의 파업을 받고 떠난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승철의 요청에 따른것이였다.

어제 오후 시교외의 어느 한 농장에 대한 취재를 끝내고 신문에사에 들어서니 편집부장이 기다리고있었다.

《오늘 취재자료는 내게 맡기고 교시 수도물길공사장으로 갔다와야겠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모르겠소. 러단장동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개인적인 부탁이라오. 동무를 꼭 보내달라고말이요. 무슨 긴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요. 그래서 보내준다고 약속했소. 래일 아침차로 떠나도록 하오.》

이렇게 되어 떠난 길이었다. 그가 무엇때문에 나를 불렀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까닭모를 불안감이 연기처럼 맴돌았다. 승철은 자기 자랑을 모르는 사람이였다.

그런 그가 공사진행정형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부르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럼 무엇때문일까. 문득 색날은 일기장이 눈앞에 떠올랐다. 승철의 생활에 커다란 파문을 던진 일기장의 구절들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그러면서 일기장이 그의 생활에 출현한 때부터 갑작스레 달라졌던 그의 이상한 행동들이 뇌리를 스쳤다.

(어쨌든 그를 만나보자...)

그런데 러단지휘부에서 나를 맞아준 사람은 승철이가 아니라 정치부장이었다. 정치부장은 말하기가 몹시 피로운듯 한참이나 숨을 토틈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얼마전 러단장동무는 정치부에... 제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대신청서라니요?》

나는 한껏 놀리웠던 용수철이 튕겨오르듯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정치부에서... 심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요구가 너무나도 절절하고 또 타당성도 있고 해서... 상급당에 그대로 올려보냈습니다...》

러단장동무는 상급당의 조치에 의하여 XX바다가양식사업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나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듯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아버렸다. 억이 막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중요한 건설대상을 맡은 일군이 자기사업을 포기하다니. 그것도 오랜 세월을 바쳐온 정든 돌격대를 스스로 떠날 생각을 하다니... 그 나날 그는 많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당의 높은 신임도 받았고 사람들의 존경속에 살아왔다. 그런데 그 모든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다니...

하지만 당조직에서 그의 제대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럴만 한 까닭이 있었을것이다.

정치부장은 묻는듯 한 나의 눈길을 피하면서 내 앞으로 정히 싸놓은 낫익은 철웅의 일기장과 한장의 편지를 내놓았다.

《기자선생이 오면 주라고 했습니다.》

나는 얼른 편지를 펼쳐들었다.

《...기자선생, 만나지 않고 떠나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용기가 나지 않아 그랬습니다. 아마 한달전에 왔을 때 선생이 내 고충을 리해할수 있었다면... 최근에 와서야 느끼게 된바이지만...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자신이 타매하리라고 생각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에 넘쳐있었습니다. 내가 대학과정을 마치면서 가진 졸업모임에서 <10년후에 모교에서 다시 만나자!>고 웨칠 때 나에게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맛도 좋고 영양가와 약용가치도 높으며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큰 대합조개의 생산을 인공증식의 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이였습니다. 나는 배치후 석달만에 <대합조개의 인공증식>이라는 소논문도 썼고 곧 그 개발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예측할수 없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점점 묘연해지는 연구결과와 함께 자재와 로력의 탕진, 암중모색의 힘겨운 나날들이 련속될수록 나의 연구를 지켜보던 사람들속에서 도리머리를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편협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나다.

<이보게 기사, 조개를 왜 조개라고 하는지 아나? 그 번식이 조단위라는거야. 그러니 귀한 자재, 없는 로력을 낭비하면서 서식할 필요가 뭐란말인가. 괜히 되지도 않을걸 붙들고 세월을 보낼 필요가 있나...>

그럴 때마다 나는 모욕감에 몸을 떨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겹쌓이는 어려운 난관앞에서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잇달아 주저와 의무감 사이의 압투가 내 머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뜻밖에도 무서운 해일이 닥쳐들었습니다. 양식장은 하루아침에 폐허로 돼버렸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사람들, 나를 도와나섰던 사람들도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마침내 나에게에는 여기에 있다가 아무런 생의 자육도 남길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에 시달리는 날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는 간석지개간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났습니다.

돌격대로 떠날 때 철웅동무처럼 모교로만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더라면, 내가 주체조국의 과학자라는 자각을 했더라면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것입니다.

나는 모든걸 잊고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격대생활 전기간 한번도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나다. 대신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올적마다 내가 좋아하는 군침도는 조개젓단지와 함께 손바닥만한 대합조개를 한배낭씩 지고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해부터인가 어머니의 배낭에는 고구마나 과일들이 섞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조개서식조건이 불리한 이 고장 해안에서 조개의 자연증식과 생산간의 균형이 파괴되고있었던것입니다. 피로왔습니다. 하면서도 나도 조국앞에 <몇몇이>한몫을 한다는 위안속에 그에 대해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철웅동무는 귀중한 바다자원인 큰새우를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조국의 재부로 만들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모교로만 달린 철웅동무의 그 깨끗한 마음은 구호만 요란하게 웨쳐대고 물러섰던 나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나는 철웅동무의 일기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심중히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나는 휴가를 받고 철웅동무의 묘소와 일터도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피

와 땀이 스민 큰새우인공서식장도 돌아보았습니다. 조국앞에 과학자로서의 몇몇한 생의 자육을 남긴 철웅동무의 뉘이 어린 그곳에서 나는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참모장동무에게 (그는 건설기사입니다.)려 단장사업을 위임하고 그가 제대로려 단을 이끌어 나가는가를 지켜도 보았습니다. 물론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일군이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떴혔다>고 자부하는 인생이란 누구든지 힘과 정열이면 얼마든지 대신할수 있는것이었습니다...

기자선생, 부탁드립니다. 나를 대신해서 철웅동무의 일기장을 우리 대학에 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돌격대를 떠났다고 해서 인생 포기라고는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늦게나마 모교로 갈 결심입니다. 내 이제 고향에서 대합조개의 인공증식에 성공하고 선생을 초청할테니 꼭 믿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승철>

<승철동무는 꼭 해낼겁니다.>

내가 편지를 다 읽자 정치부장이 하는 말이였다. 그의 어조에는 굳은 믿음이 느껴졌다.

5

...교시중심에 있는 수산대학은 그리 크지 않았다. 건물도 소박했고 학생수도 적었다. 하지만 전교가 떨쳐나서 10년전에 떠나갔던 졸업생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해주었다. 10년만에 만난 동창생들 속에 나는 유일한 손님이었다. 그러나 모두들 나를 김철웅이 온것처럼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전체 교원, 학생들의 참가밑에 넓은 강당에서 진행된 졸업생들의 토론은 격동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내가 철웅을 대신해서 연탁에 나섰을 때는 온 강당이 숨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었다.

<...나는 오늘도 안해의 등에 업혀 실험실로 나갔다. 안해는 현미경을 내 눈가까이로 가져다놓으며 물었다.

<당신은 왜 모교로 가려고 하세요?>

나는 안해의 정다운 눈빛속에 그가 묻는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나는 마음속에 간직된 대답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성적을 받기 위해서요!>

나는 굳어지는 혀로 떠듬거리며 대답했다.

<마지막성적을요?>

<그...령소!>

대학졸업논문은 결코 마지막시험이 아니다. 대학생은 마땅히 대학과정의 학력을 현실에서 실천으로 검증받았을 때 진짜 졸업성적을 받았다고 할수 있다. 승철동무가 말하지 않았는가. 조국이

키운 과학자들인 우리는 어머니조국에 창조적실천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그런데 몸이 점점 굳어지는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나의 속마음을 느꼈는지 안해는 나의 손목을 꼭 잡았다. 그리고 속삭이였다.

<혼자 대학으로 간다고 생각지 마세요. 나도 가겠어요. 당신과 당신의 창조물과 함께 영원히!...>

나는 흥분으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어린애처럼 안해의 포근한 가슴에 나의 온몸을 기댔다.

온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대학으로 줄달음쳐가는것이 막 보이는것만 같다.

저 거세찬 노도처럼!>

내가 철웅의 일기의 랑독을 끝냈을 때 장내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나에게 꽃다발까지 듬뿍 안겨주었다. 마치 내가 김철웅이기라도 한듯...

이들에게 있어서 김철웅은 영원히 잊지 못할 동지였다. 그가 사람들의 심장을 울린것은 한 인간이 한생토록 안고산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 자기를 배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어머니당에 대한 끝없는 도덕의리심이였으며 조국앞에 바치는 또 하나의 자신의 고귀한 창조물과 함께 끝까지 모교로 돌아온 고결한 녀이었다. 그의 일기는 동창생들과 대학교원집단의 열렬한 성원속에 대학에 보관되게 되었다. 연단을 내리는 나의 가슴은 철웅의 안해 생각으로 후더워올랐다. 오직 남편의 뜻을 받들어 일기장을 모교로 보내주고는 남편이 못다한 연구과제를 완성해나간다는 또 하나의 참인간, 선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화폭속에 상상되었다.

모여온 동창생들중에는 실내에서의 전복서식에서 성공하여 나라의 수산업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공훈과학자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수요가높은 도미, 방어, 보가지, 해삼, 성게 등의 인공증식과 미역, 다시마, 김배배에서 성과를 이룩한 동무들도 소개되었다. 가장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인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조국을 위하여 묵묵히 땀을 바쳐온 이들에게서 나는 비약하는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보는것만 같았다. 이와 함께 이들속에 10년전 이 모임의 발기자이며 자기의 지칠줄 모르는 힘과 정열을 아낌없이 간석지건설장에 바쳐온 승철의 모습이 없는것이 아쉽게 생각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창생들도 이 모임에 그가 오지 않은것을 두고 몹시 서운해하는것이였다.

나는 이번에 독일보사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를 만나 오늘의 이 모임소식도 알려주고 그에게 그가 걸어온 지난날들이 결코 다른 동창생들에게 못지 않는다는 공지와 자부심도 되찾아주고싶었다.

승철, 그는 하루도 쉬임없이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조국의 땅을 한치한치 넓혀오지 않았던

가.

모진 추위와 비바람도 한지에서 고스란히 맞았고 무더위속에서 강을 막고 언제를 일떠세우지 않았던가...

나는 흥분을 안고 제방둑우를 걸어갔다. 이 길은 눈을 감고도 걸을수 있는 길이다. 오른쪽엔 눈뿌리 아득한 제염벌이 있고 왼쪽에는 새로 개간된 간석지의 검은런 땅이 길게 누워있다. 한여름의 피약벌이 내려쬰이고있었지만 바다가의 해풍이 시원스레 불어와 단물을 식혀주었다.

제염소와 간석지벌이 갈라지는 곳에서 홀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보였다.

나는 마침 땀을 들이고싶어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명상에 잠긴듯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나를 찬찬히 바라보던 그는 인차 고개를 기웃해버렸다.

나는 그러는 그가 면목이 있어보였지만 인차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낚시군은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지우?》

《예, ××바다가양식사업소에 갑니다.》

예순살이 넘어보이는 낚시군은 낚시를 멀리 던졌다.

《고기가 잘 물립니까?》

《그저 나오군 하지요.》

낚시군아바이의 눈길은 낚시대가 아니라 제염소 그 어디엔가 가있었다. 나는 언뜻 생각키우는 것이 있어서 그에게로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혹시 젊었을적에 저 제염소에서 일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 이전엔 그곳이 내 일터였다우.》

아바이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니 드넓은 염전판에서 술한 사람들이 무슨 큰 일판을 벌리고있었다.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술개건을 한다우. 새로 온 제대군인 책임기가 제염소의 현대화를 시작했지요. 저게 완성되면 굉장하다우. 세계최첨단기술이라던지...》

《예, 감회가 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보니 아바이의 얼굴에는 웬일인지 어두운 빛이 덮였다.

《감회? 차라리 교회라고 해야 할지... 그래서 아픈 마음이...》

《교회라니요?》

나는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대중할수 없었다.

《우린 10년전에 지금 저 사람들이 진행하고있는 현대화사업을 시작했었다. 애로가 많이 제기됐지요. 그때 공사를 책임졌던 나는 계획대로 내밀지 못하고 축소하여 마무리하고말았지요. 난관앞에 주저앉았다고 해야 옳겠지요.》

(그럼 이 아바이가?)

내가 처음 기자생활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제염소의 책임기사였다. 얼굴이 검고 코가 별로 우뚝해서 아까부터 눈에 익었던것 같았다.

《그러다나니 오늘날에 와서 저 후배기술자들이 내가 못다한 집까지 걸머지지 않았겠소. 내 죽어두눈을 감을것 같지 않소. 나라에서 대학공불시켜 제염기술자로 내세워주었는데... 멀리서라도 바라보군 하면 아픈 마음이 좀 달래질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군 한다오.》

그러니 이 제염기술자도 채 완성하지 못했던 창조물을 놓고 피로와하고있는것이였다.

나는 피로움으로 모대기는 이 어제날의 책임기사를 보며 저도 모르게 얼굴이 서서히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어디로도 갈수없음을 깨달았다. 모교로 가기 위해, 제 고향의 대합조개를 증식시키기 위해 이미 쌓아놓고 다져놓은 인생의 좌표를 대담하게 바꾼 송승철의 결심을 감히 위안하려 했던것이였다. 그 위안이란 결국 그에게 있어서 일종의 모욕으로까지 느껴질수 있는것이였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후회했다.

나는 더 앉아있을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멀리 바다를 보았다. 수억년세월 수많은 사연을 안고 태동해오는 바다, 바다는 말이 없다.

그러나 바다는 깊이를 알수 없는 웅심과 무엇으로써도 켤수 없는 넓음으로 이 땅의 과거와 미래를 말해주듯 쉬임없이 설레이고있다. 파도가 밀려왔다.

파도는 제 가슴에 한가득 안은 수많은 사연을 나에게 말해주려는듯 흰 갈기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첫 파도가 기슭을 치고 돌아놓자 그뒤로 점점 더 커지는 거세찬 물결들이 밀려왔다.

밀물의 노도가 시작된것이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손님, 거긴 제염소요. 양식장은 이쪽이요.》

그러나 나는 돌아서지 않고 힘차게 걸어갔다.

조선속담

- 개도 무는(사나운)개를 돌아본다
- 황소가 디디어도 꿈쩍을 앓는다
- 개미가 정자나무 건드린다
- 단김에 소뿔 빼듯
- 병풍에 그린 닭이 해를 치고 우는 한이 있더라도
- 장부가 칼을 빼었다 도로 쫓나
- 정신을 가다듬으면 바위라도 뚫는다

어머니는 눈물없이 맞아주었네

김철혁

문을 두드리지 말아다오
부상당한 나를 호송해
고향집에 함께 온 전우들아
문을 열어다오
어머니앞에 나를 세워다오

이웃집 너인이 기별해준듯
다급히 문이 열리고
허둥지둥 달려나온 어머니

첫 눈길은 한순간
운신 못하는 내 다리에 멎어섰건만
못보신듯 아니 보신듯
태연히 하시는 어머니말씀
-날 위로할 생각일랑 말아라

그리곤 어릴적의 그날처럼
나를 안아 침상에 눕히고
조용히 군공메달을 쓸어만지실 때
아, 내 상처의 아픔은
이 무한한 포옹의 바다속에
하나의 작은 물방울로 잦아드는듯

어릴적엔
강변에 뛰놀다 피터진 무릎을 두고도
눈곱찍던 어머니

오늘은 무슨 힘으로 그 아픔 눌러딜고
이 아들을 눈물없이 맞아주는것인가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늘 초소에 따라서던 그 마음
애오라지 바란것은
장군님 결사옹위의 싸움길에서
조국의 용맹한 아들로 내 사는것

아 간절한 그 마음이
전초선 순찰의 길도
나와 함께 걸었고
기여드는 원쑤무리 향해
멸적의 총탄도 나와 함께 날렸거니

어머니는 눈물없이 맞아주었네
부상입고 고향집에 돌아온 이 아들을
따뜻한 젖모금으로 곳곳한 넋으로
온 삶을 다 바쳐 키워준 싱싱한 청춘은
내 전호가에 두고 왔어도
그것을 수치로 더럽히지 않고
그 청춘을 영예와 바꾸었기에!...

◁ 고전소개 ▷

《사성기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찬란한 문화예술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며 민족문화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장희채장편소설인 《사성기봉》은 18세기경에 창작된것으로 짐작되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작자는 알려져있지 않다. 소설은 상, 하권으로

되어있다.

소설은 봉건정부의 충신들인 립, 화, 정, 연 일가의 정계와 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간신들의 추악한 행위를 폭로하고 《어진 군주》와 《어진 관료》에 의한 《왕도정치》의 리상을 표현하고있다.

주인공 립규는 립처사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우던중 간신 호유옹의 피해를 받고 고향마을에 내려와 살고있던 정상서의 딸 정소처와 혼인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상

서의 처 진씨는 립규가 못났다고 하여 이를 굳이 반대하며 인물이 잘난 자기 조카 진상문에게 은근히 마음을 둔다. 한편 상문은 정소처를 탐내여 립규보다 먼저 과거를 보아 한림벼슬에 오른 다음 진부인을 사촉하여 립규와 파혼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정상서의 반대로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간신 호유옹의 세력을 빌어 정상서를 귀양보내고 잔치날을 받는데 이른다. 한편 정소처는 립규와

의 언약을 지켜 상문과의 결혼을 거절하며 잔치날에 시녀 가월이의 도움을 받아 납북을 하고 집을 떠나게 된다.

상문은 립규를 더욱더 시기 질투하여 노복과 자객을 보내어 립규와 정상서의 아들 연경을 죽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립규의 지략과 용맹을 당하지 못하여 실패한다. 그후 간신 호유용의 조카딸과 결혼하고 더욱더 교만방자해진 상문은 연상서의 딸 연소저과 화상서의 딸 화소저를 첩으로 삼으려고 꾀하다가 망신만 당한다. 나중에는 자기 처를 미워하여 독살함으로써 결국 호유용의 버림을 받고 북해로 정배를 가는 신세가 된다. 한편 립규는 글공부와 무술담기에 더욱 힘을 써서 문무를 겸비하게 된다. 이때 간신 호유용은 황제에 대한 모반이 드러나 처단되고 그의 피해를 입었던 신하들이 복직된다. 정상서도 류배지에서 돌아오고 정소저 역시 방랑의 길에서 인연을 맺은 화소저, 연소저 등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정상서가 자기 딸과 립규와의 성

례를 이루려고 할 때 립규가 자객 호애의 흉계로 《호유용역적》의 런루자라는 루명을 쓰고 몸을 숨기게 된다. 그러는 사이에 황제가 죽고 나아린 태자가 황제로 되나 간신들의 뽕간으로 나라의 정세가 극히 어지러워지자 연왕이 태자를 몰아내고 황제가 된다. 새 황제는 인재를 널리 구하려고 과거를 보였는데 립규가 장원으로 뽑혀 황제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 등용된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 정소저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고 연소저, 화소저도 부인으로 맞인다. 서울에 돌아온 립규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반란을 일으킨 북해왕을 진압하고 한왕의 음모를 짓부시며 그 공로로 정승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정상서의 아들 연경도 벼슬을 하고 재상 러금오의 정실부인 강씨의 소생 희주와 결혼한다.

작품은 긍정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정의와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

주었으며 재능있고 청렴결백한 《어진 관료》들을 등용함으로써 사색당쟁을 없애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하려는 념원을 구현하고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일부다처제와 축첩제도의 악습과 폐해를 폭로하고 량반가정의 부패상을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시녀 가필이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적신분제도의 모순을 보여주면서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지향을 구현하고있다. 소설은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취급하고있으나 구성이 짜이고 생동한 성격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예술적수준도 높다.

작품은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하여 권선징악의 립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처리하고있으며 숙명론과 미신 등 비과학적인 사상을 나타내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봉건사회의 현실을 폭넓게 재현하고 다양한 인간성격을 창조한 소설의 하나로서 일찍부터 사람들속에서 널리 읽히어왔다.